

바
다
,

50
년
을

투
망
하
다





바다로 흘러드는 것이 어디 강물뿐이랴

이 땅의 수산인과 수산업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온 수협 50년, 돌아보면 무엇 하나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바다를 향해, 그 너머의 희망찬 미래를 향해 흘러온 지난 세월의 역사를 담은『수협 50년사』편찬에 임하면서 굳이 이렇게 한 권의 책을 별도로 만들기로 한 것은 소중한 기억들을 하나라도 더 기록으로 남기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남기고 싶은 이야기들은 끝도 없이 많았지만 몇 단계의 선정 작업을 거쳐 고르고 고른 50개의 테마는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먼저, 바다를 개척하며 쌓아온 우리 문화와 삶의 내면에 대해 듣고 싶은 이야기들입니다. 역사, 언론, 과학, 음악, 문학, 회화 등 각 분야별 전문가들이 말하는 바다와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자 했습니다. 바다와 관련된 우리 문화의 향기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100년을 향한 새로운 출발선에 서서 더욱 크고 넓은 꿈을 꾸겠다는 수협의 마음가짐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수산인과 그들의 삶의 터전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기록함으로써 그들이야말로, 그들이 발붙이고 살아온 터전이야말로, 지난 세월



그들이 흘린 땀과 그들이 품은 희망이야말로 수협과 우리 모두를 지금의 이 자리에 있게 했다는 사실을 새삼 되새기고자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50년사 본책에서 못다한 수협의 이야기들입니다. 성격이 달라 통사(通史)에서 다루지 못했거나 혹은 다루긴 했지만 좀 더 깊고 내밀한 속내를 쓰고 싶은 이야기들을 모았습니다. 수협의 지난 반세기, 큰 강물의 장엄한 흐름 이외에 작은 샛강의 재잘거림까지도 기록으로 남겼으면 하는 생각에서였습니다.

바다를 이루는 것은 흘러드는 강물만이 아닐 것입니다. 쏟아지는 빗물이나 흘날리는 눈발도 젖어들어 바다를 이루기에 그에 대한 기억은 더욱 의미 있고 애틋해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엮어낸 이 별책이 50년사 본책으로 다 채우지 못한 아쉬움을 조금이라도 덜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도움을 주신 많은 분들에 대한 감사의 말을 함께 전합니다.

2012년 4월 1일

수협중앙회장 | 이종구



Contents

바 다

- 01 한민족, 바다의 역사 10
- 02 바다가 들리는 풍경, 애환이 머무는 자리 14
- 03 항구의 이별에서 관광지의 낭만까지 18
- 04 바다를 바라보는 마음 24
- 05 바다의 문학, 문학의 바다 28
- 06 자원의 곳간, 혹은 머나먼 미지로의 길 32
- 07 '내 밥상 위의 자산어보' 그 뒷 이야기 38
- 08 바다가 보여준 몸짓 42
- 09 섬과 갯벌 46
- 10 독도의 해중림 52
- 11 세계의 바다로 뻗어나갈 전초기지, 이어도 54
- 12 그 섬에 가고 싶다 58
- 13 배들의 이정표이자 삶의 길잡이 62
- 14 혹부리 바닷물고기의 사랑이야기 66
- 15 스토리가 있는 수산물 이야기 70
- 16 바다에서 견져올린 속담 이야기 74
- 17 해삼과 전복 이야기 78
- 18 바다 때문에? 바다 덕분에! 82

수 산

- 19 조선왕조실록에 투영된 조선시대 수산업 88
- 20 조선시대 3대 수산학서 94
- 21 우리나라 고래 이야기 98
- 22 해양영토 확보 위한 총성 없는 전쟁 104
- 23 부산공동어시장,
그 안에 녹아 있는 어업인의 삶 110
- 24 우리나라 어선현대화 변천사 114
- 25 TAC제도 118
- 26 가두리와 육상수조식 양식 120
- 27 신화처럼 숨을 쉬는 고래 잡으려! 126
- 28 제주도의 해녀, 푸른 물결로 솟구쳐라 132
- 29 바닷물과 햇볕으로 만드는 하얀 소금꽃 138
- 30 황토, 친환경 치료제 142
- 31 어업인의 날 부활, 숙원을 풀다 144

수협

- 32 어촌에 희망의 싹을 틔운 일당백의 전사들 150
- 33 객주세력 근절을 위한 새로운 수산물 판매질서 확립 156
- 34 어로한계선의 소고 162
- 35 수협의 풀뿌리 어업인 조직, 어촌계 168
- 36 기름 유출 사고, 피해 어업인을 보듬다 172
- 37 또 하나의 어업인 가족, 외국인선원 176
- 38 밴댕이, 꼴갑회유! 180
- 39 바다를 지키는 사람들 184
- 40 수산의 미래를 위한 희망의 약속 188
- 41 어업인의 든든한 지킴이 190
- 42 계통판매제로 시급히 전환해야 194
- 43 면세유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노력 200
- 44 군장병에게 싱싱한 수산물을 204
- 45 수산물류 정보의 허브센터를 꿈꾸며 208
- 46 스포츠마케팅의 국가대표, 수협은행 212
- 47 Fish Care(양식생산관리지원) 사업 216
- 48 Together & Cure, 더불어 완치되다 220
- 49 수산지식 나눔시리즈 224
- 50 수산박물관은 꼭 필요하다 2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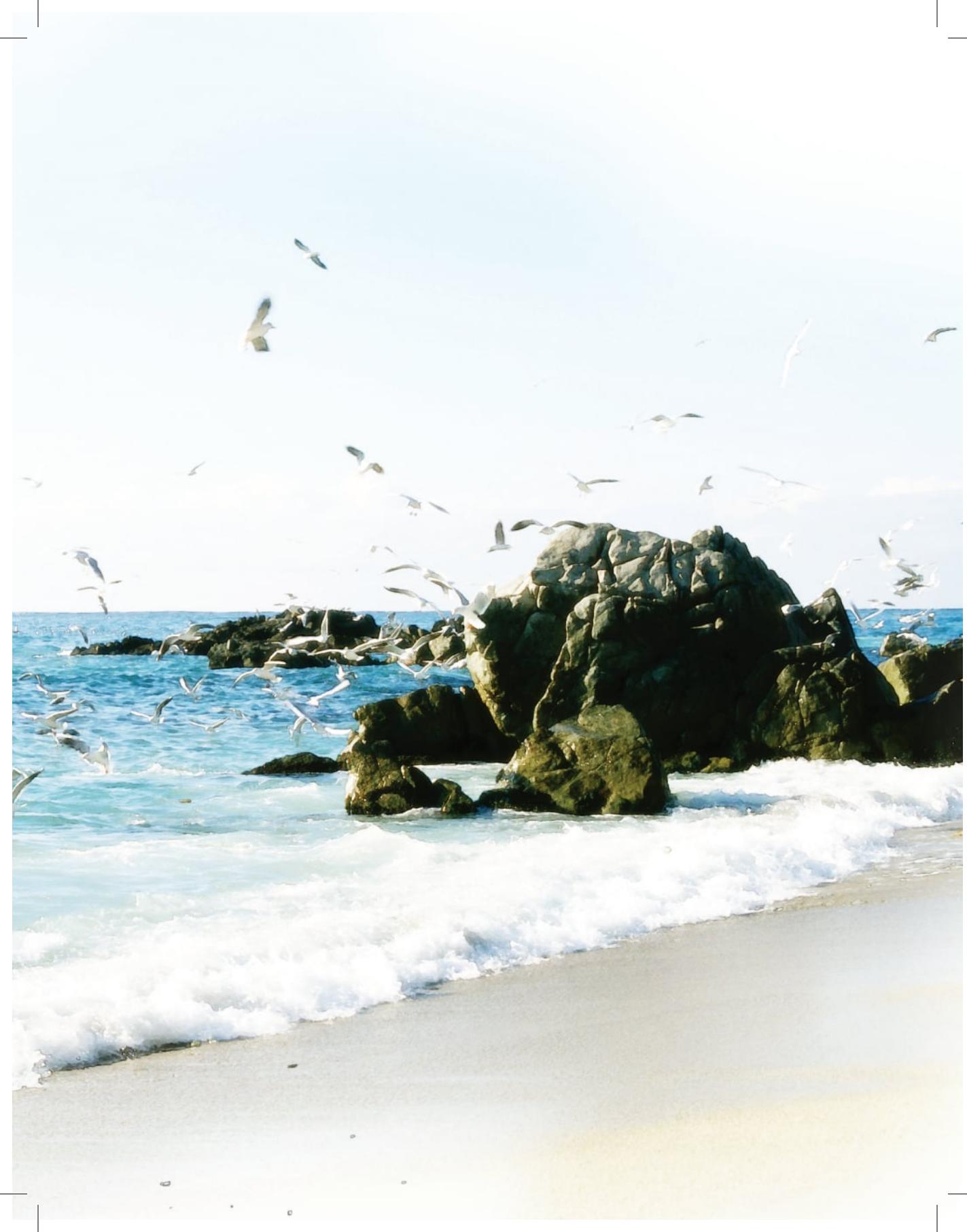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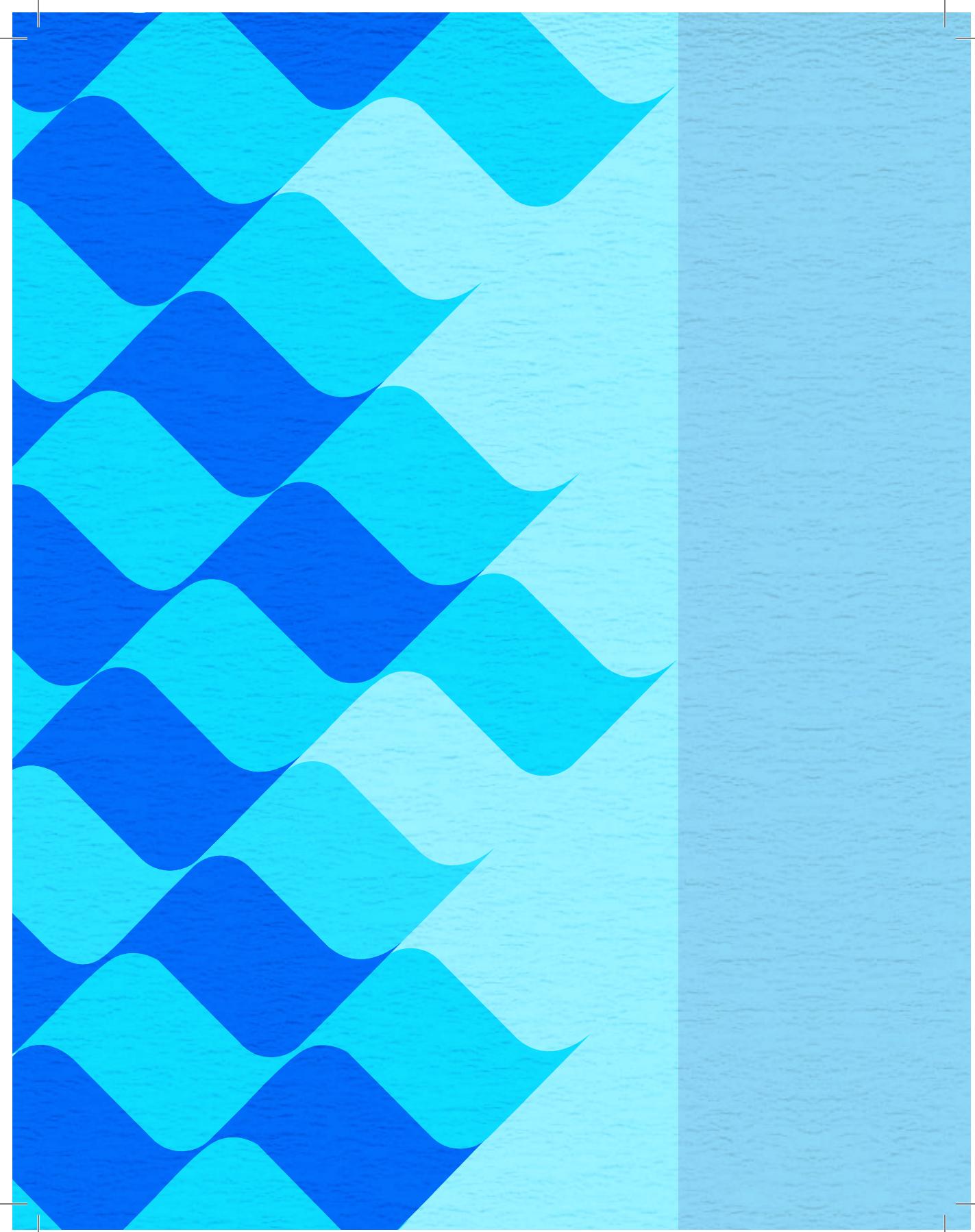
나라

50년을

후방 나라







바
다



한민족, 바다의 역사

우리가 살아온 터를 한반도라고 부르고, 우리는 반도민족이라고 말한다.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나 이탈리아처럼 해양활동이 활발하고 해외로 뻗어나가는 진취성을 지닌 반도가 아니라 거친 바다에 포위되어 있는 반도였다. 그래서 우리민족은 바다를 두려워해서 멀리하기만 했고, 진취성도 떨어지고, 모험정신이 부족하며, 그래서 항상 남의 나라의 침략을 받아왔다고 배워왔다.

그럴까?

우리민족이 선사시대부터 열심히 활동한 터는 한반도와 광활하고 다양한 자연 환경을 지닌 만주일대의 육지이고, 그 육지를 340만㎢에 달하는 바다가 둘러싸고 있다. 황해, 동중국해, 남해, 동해, 그리고 심지어는 연해주와 사할린 사이에 있는 타타르해협이다. 그리고 그 바다를 다시 여러 나라의 육지들이 이어지면서 동그랗게 둘러싸고 있다. 말 그대로 지중해의 모습을 띠고 있다. 그러니 바다는 아주 친숙한 공간일 뿐만 아니라 잘 살기 위해서, 나라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했고, 실제로 그러했다.

바다를 이용하면 동아시아의 모든 지역과 활발하게 교류할 수 있다. 그러다 보니

개방적이고, 문화가 다양하고, 모험을 즐기고,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진취적이고 역동적인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쉽게 생산물을 얻을 수 있으니 경제적으로도 풍요로웠다.

우리 민족의 어업은 발달하여 이미 신석기 시대에도 어업을 한 흔적들이 곳곳에서 발견된다. 패총은 물론이고, 생선뼈들이 발견되고 있다. 두만강 하구인 서포항에서는 기원전 5000년에서 4000년 사이에 어망추, 작살 등과 고래 뼈로 만든 노가 발견되었다. 해양활동, 즉 어업에 활발하게 종사했음을 알려준다. 양양군 오산리 유적은 기원전 6000년에서 4500년 사이의 것이다. 이곳에서 응기문 토기와 낚시바늘들이 다량으로 출토됐다. 청동기시대에는 먼 바다로 항해를 하며 고래 잡이를 했다. 고래잡이배를 비롯해서 곳곳에서 유물들이 발견되었고, 울산의 반구대 암각화에는 향유고래를 비롯한 여러 종류의 고래들이 새겨져 있다.

이동민들은 선사시대에는 뗏목이나 통나무배(丸木舟, 獨木舟) 등을 활용하였으며, 이러한 형태는 천전리 벽화나 반구대 벽화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강원도 해안에서 근래까지 사용된 '매생이'(1인용 소형 어선) 등이나 두만강에서 사용된 통나무배들, 흑룡강 중하류에서 나나이족 등이 사용한 카누형 배들, 울릉도를 비롯한 동해연안에서 사용된 뗏목들은 그 무렵에도 이용됐을 것이다. 최근에는 경상남도 창녕군 비봉리에서 8000년 전의 쪽배 유물이 발견되어서 어업을 한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 여수의 안도패총을 비롯하여 부산의 동삼동 패총 등에서는 7000년 정도 전부터 일본열도 간에 사람들이 오고가며 물건을 교환하여서 그 증거물들이 발견되고 있다. 그러니까 신석기 시대부터 모든 연안에서는 조개를 잡아먹었고, 먼 바다로 나가 명태, 고등어, 꽁치, 조기 등의 물고기를 잡았다.

고구려는 전기인 민중왕(閔中王) 때(47년)와 서천왕(西川王) 때(288년) 고래의 야광눈을 특별하게 왕에게 바친 기록을 남기고 있다. 포경업이 발달했다는 증거이다. 또한 동해안에 거주하는 옥저백성들로부터 물고기와 소금을 공급받았다. 동예 사람들은 반어피(斑魚皮)를 바쳤으며, 먼 바다까지 항해하였다.

이렇게 해양활동과 어업이 발달한 탓인지, 역사에서 뛰어난 인물들은 대부분 바다와 연관이 깊다. 백제의 시조인 온조는 남만주의 항구를 출항하여 서해를 타고 내려와 한강을 거슬러 올라 서울에 도착했다. 신라의 4번째 임금인 석탈해는 멀리 동해 너머 다파나국에서 궤짝에 실려 왔다. 가야를 세운 김수로왕의 부인인 허황옥은 배를 타고 아유타국에서 건너왔다. 뿐만 아니라 그 무렵에 이 땅에 살았던 술한 사람들은 남해와 동해를 건너가 일본열도의 여러 곳에 도착했다. 그들은 먼저 도착해서 정착한 사람들과 때로는 경쟁하고 때로는 협력을 하면서 땅을 개척하고 조그만 나라들을 세웠다. 신라에서 건너간 ‘연오랑과 세오녀’ 설화나 일본의 건국 신화들은 그러한 시대적인 상황을 반영한다. 가야인들도 남해안을 출항하여 규슈의 북부지역에 도착하였고, 백제인들은 4세기 들어서면서 전라도 해안을 출항하여 규슈에 도착한 후에 다시 세도 내해를 통과해 오늘날의 오사카, 나라, 아스카 등에 정착했다.

물론 고구려 사람들도 해양활동이 활발하였다. 광개토태왕은 해양활동을 국가 정책으로 장려하여 성공한 경우이다. 고구려인들은 동해를 건너 혼슈 중부 해안에 도착해서 일본이 고대국가로 발전하는 데도 큰 역할을 담당하였다. 후기에 이르러 동아지중해의 종주권과 교역권을 둘러싸고 중국 세력들과 70여 년 동안 국제대전을 벌였는데, 수록 양면전이 벌어졌으며, 여러 번의 대해전들이 있었다.

통일신라시대에는 당나라와 일본과 무역을 하면서 동남아시아는 물론 아라비아와도 간접적이지만 무역을 벌였고, 장보고는 그 무렵 동아시아에서 최대의 해양세력이었다. 이때 동아시아의 바다를 휘젓고 일본열도의 해안을 휩쓴 것은 신라의 해적선들이었다. 일본의 역사책에는 신라해적들이 활동하는 사실들이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장보고 선단을 능가하는 또 다른 해양활동이 있었다. 발해이다. 발해는 매우 뛰어난 조선술과 항해술을 보유한 나라이다. 220여 년 동안 일본국에 정식으로 사신을 파견한 것이 33번이고, 1번은 무려 1,100명의 민간인들이 건너간 적이 있었다. 이들은 동해라는 망망대해를, 그것도

한겨울에 북서풍과 파도를 맞아가며 황천항해를 한 것이다. 처음에는 정치적으로 자국의 위상을 높이려는 목적으로 있었지만, 나중에는 오로지 무역을 위해서였다. 호피, 표피, 웅피, 담비가죽, 인삼, 꿀 등을 수출하였는데, 특히 발해의 다시마(곤포)는 유명한 수출품이었다.

이때 무역역조현상이 너무나 심각해서 일본은 발해배들이 입국하는 횟수나 규모를 줄이기까지 하였다. 일본은 아직 바다를 이용해서 국제사회에 진입할 능력이 부족해서 신라배나 발해배, 심지어는 신라의 민간 배들을 용선하여 사신이 오고갔다.

그리고 왕건이 후삼국을 통일하고 고려를 세웠는데, 그는 선조 때부터 경기만에서 활약한 전형적인 해양세력이다. 고려는 해양능력이 워낙 뛰어나서 항로를 장악하면서 중국이 남북으로 분단 된 상태를 이용하여 등거리 외교를 추진하였다. 자연히 신라보다 더 적극적으로 동남아시아나 아라비아와 중계무역을 하여 국부를 창출하였다. 베트남, 태국, 인도, 아라비아의 상인들이 묵으며 거래하는 객관들이 수도인 개경에는 즐비하였다. 이렇게 풍요로웠던 고려도 결국에는 원나라의 침공에 굴복하였고, 이후 점차 해양능력을 상실하였다. 후기에 이르면 왜구의 침탈을 받아 나라의 살림이 피폐해졌고, 결국은 멸망하고 말았다. 조선은 처음부터 국가정책으로 바다를 멀리한 나라이다. 철저하게 쇄국정책을 추진하였고, 백성들이 바다로 나가는 것을 금하였으며, 바다를 통해서 외부세계와 교류하는 것도 허락하지 않았다. 조선정부는 임진왜란을 겪었으면서도 끝내 바다를 멀리하였고, 그 후 유종을 제대로 치유하지도 못한 채, 1875년 불과 3척의 작은 기관선에 굴복하여 강제로 개항 당하였다.

민족을 멸망에 이르게 한 조선이 멸망한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었을까를 곰곰이 생각해본다. 21세기, 지금 이 순간에도 바다로 뻗어나가는 대한민국과 바다로 막혀있는 북한의 실상은 해답을 제공해준다.

“바다를 멀리한 민족과 나라는 절대로 번영할 수 없다.”

(윤명철 / 역사학자)



바다가 들리는 풍경, 애환이 머무는 자리

영화 속에 등장했던 바다를 기억하는가. 때로 영화는 단 하나의 그림으로 기억될 때가 있다. 지중해의 따가운 햇살과 파란 하늘, 바닷바람에 하얀 빨래가 나부끼는 소리. 페데리코 펠리니의 〈길〉(1954)에 등장하는 이탈리아 남부 도시 나폴리의 마음이 평화로워지는 풍경은 한 번도 나폴리에 가본 적 없는 우리까지 그 보석 같은 도시로 데려다 준다.

순결하고 귀여운 소녀 젤소미나의 표정과 화면 구석까지 울려 퍼지는 트럼펫 소리, 소녀가 행복하게 춤추던 그곳은 하얀 빨래가 나부끼는 바닷가의 그림으로 관객의 가슴에 남는다. 이 영화에서 바닷가는 단순히 장소가 아니라, 주인공 소녀 젤소미나의 심상과 이미지 그 자체다.

이것이 소위 걸작으로 칭송받는 영화들이 바다를 기억하는 방식이다. 프랑스와 트뤼포의 〈400번의 구타〉(1959)에서 숨 가쁘게 내달린 소년의 발걸음이 결국 도달하는 바닷가 역시 마찬가지다. 영화사에 길이 남을 만한 이 명장면에서 소년의 등 뒤로 펼쳐지는 바다는 세계의 끝이자 끊임없이 밀려오는 새로운 물결의 상징으로서 전 세계 영화광들을 설레게 했다. 루키노 비스콘티의 〈흔들리는 대지〉(1948)는

또 어떠한가. 비토리오 데 시카 감독과 함께 40년대 네오리얼리즘 영화의 양대 산맥을 구축했던 비스콘티 감독은 당시 어부들의 애환을 고스란히 화면에 담아내 사실주의 영화의 걸작을 탄생시켰다. 배우가 아닌 실제 어촌 사람들을 기용하여 사실성을 극대화한 이 작품은 가난한 어민들의 척박한 삶이 어떤 것인지, 식탁에서 편하게 생선을 먹는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것이 무엇인지 다시금 생각하게 한다. 반면 한국영화 속에는 분명 바다가 있지만, 바다의 목소리를 들려주는 영화는 좀처럼 기억나지 않는다. 바다는 언제나 이야기를 시작하거나 끝맺는 장소였음에도 배경 그 이상의 역할을 담당하는 경우가 별로 없었다. 물론 간혹 몇몇 경우엔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의 무대가 되는 영화도 전혀 없진 않았다. 하지만 대부분 영화 속 바다는 온전히 배경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곳에 불과했다. 극단적으로 아름답거나, 빈곤한 이들의 피로가 묻어 있는 시골이거나. 〈파이란〉(2001)의 차가운 겨울바다는 아름다웠지만 그것은 우리가 기차 안 유리창 밖으로 바라본 겨울바다와 별반 다를 바 없다. 머릿속의 그림 같은 바다, 아니 사람은 없고 그림만 있는 액자 속 풍경.

〈마파도〉 시리즈나 〈어디선가...틀림없이 나타난다. 홍반장〉(2004) 같은 장르의 영화 속 바다의 한계와 지위 또한 명확하다. 낙후되고 지루한 시골. 그곳이 굳이 바다일 필요도 없는 도식적 연결. 말 그대로 어쩌다보니 바다였을 뿐이다. 이처럼 90년대 이후 소위 코리안 뉴웨이브영화 속에서 바다는 그저 병풍 역할에 머물 땐 세상과 격리된 아름다운 풍경이거나 낙후되고 어려운 전근대, 혹은 원시에 가까운 대상으로 매도되곤 하는 장소에 지나지 않았다. 그렇다면 한국영화 중 진짜 바다의 목소리를 들려준 영화는 없었을까. 우리는 스크린에서 한 번도 바다의 얼굴을 보지 못했을까.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보자.

한국영화 중 바다를 배경으로 한 작품을 하나만 꼽아보라 한다면 대부분 안철영 감독의 〈갯마을〉(1965)을 떠올릴 것이다. 오영수의 원작소설을 각색한 문예영화인 이 작품은 당시 각종 영화제의 상을 휩쓸었을 뿐만 아니라 한국영화 100선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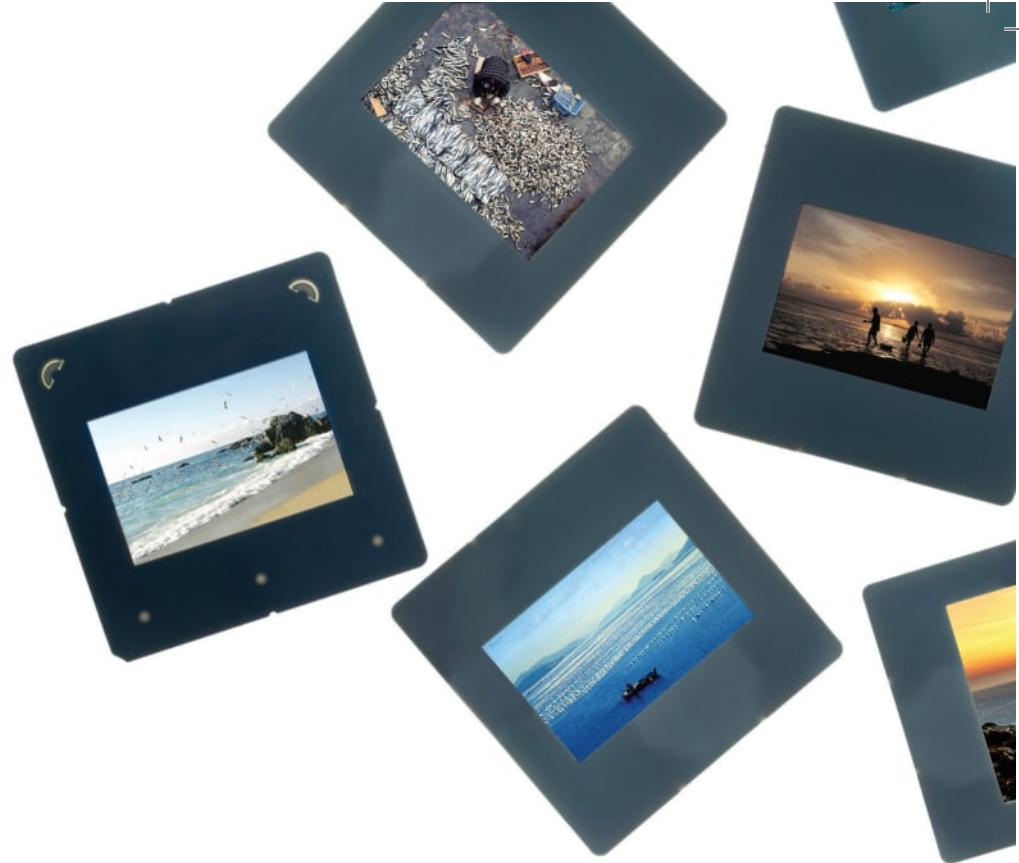
당당히 이름을 올리고 있는 명작 중 하나다. 남편을 잃고 갯마을에서 살아가는 여인들의 삶을 서정적으로 그린 이 작품은 당시 어촌의 아름다운 풍광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테다 그 속을 살아가는 민초들의 삶과 시대정신까지 절묘하게 포착해내고 있다.

몇십 년의 세월이 흘러도 은은하게 느껴지는 바다내음. 임권택 감독의 〈불의 땔〉(1982)이 전하는 바다내음도 이에 못지않게 강렬하다. 신내림을 받는 여인에 관한 영화인 이 작품은 비록 바다가 주요 소재는 아니지만, 어설프게 바다를 배경으로 삼은 여타 영화에 비해 훨씬 깊이 있는 시각으로 어촌의 모습을 조망하고 있다. 진도 해변포구에서 생존을 위해 구슬땀 흘리는 어민들의 모습은 안개 낀 포구의 풍경과 조화를 이루며, 데 시카의 〈흔들리는 대지〉 못지않은 현장감과 실제에 가까운 삶의 흔적을 남긴다.

좀 더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야말로 데 시카의 사실주의 영화와 비견될 만한 걸작도 발견된다. 최인규 감독의 〈파시〉(1949)가 그것이다. 물을 동경하면서도 끝내 섬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하는 어민들의 삶과 희로애락을 담은 이 작품은 당시에는 드물게 흑산도 현지에서 올로케이션으로 촬영되었을 뿐 아니라 당대 어민들의 삶을 투명하게 담아내고 있다. 여기에는 단지 '바다'라는 풍경을 뛰어넘어 그 속을 살아가는 '삶'이라는 실감이 묻어 있다.

이처럼 과거 작품들 속에서 유독 바다내음이 짙게 나는 것은 그것이 단순한 그림에 그치지 않고 바닷가에 머무는 사람들의 삶과 땀, 생의 열기와 섞여 있기 때문이다. 바다 짠 내와 땀의 짠 내. 바다냄새와 사람냄새. 바다는 그 속에 사람을 머물게 할 때 비로소 자신의 소리를 들려준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에서 바다가 있는 풍경이다. 슬프게도 한동안 한국영화에서는 이 짠 냄새를 맡을 수 없었지만, 파도와 부딪치며 그곳을 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한 그 짜릿한 삶의 향기는 언제든 다시 스크린 위에 피어날 것이다.

(송경원 / 영화평론가)



바다의 시간을 표현하고 싶다.
현재가 아니라 이전의 시간도 포함하고
싶다. 인간이 존재하는 시간만이
아니라, 전과 후의 무한대의 시간이다.

바다는 그 시간을 지탱해 왔다.



항구의 이별에서 관광지의 낭만까지

‘사공의 뱃노래 가물거리고 삼학도 파도 깊이 스며드는데’로 시작하는 1935년 〈목포의 눈물〉(이난영 노래)이 인기를 모은 아래, 한국 대중가요에서 바다는 늘 사랑받는 소재였다. 하지만 지금의 감각과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노래에서 바다가 다루어진다는 현상 자체가 매우 새로운 현상이었다. 왜냐하면 수백 년 동안 우리나라 사람들의 태반은 육지에서의 농사를 기반으로 살아왔기 때문이다. 배를 타고 수로를 가는 것도 주로 강을 통한 수로였으니, 바다는 어촌 사람들의 노래에서나 등장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19세기 말의 강제적 개항으로, ‘바다’를 통해 서양식 근대가 들어오기 시작했다. 이로부터 바다는 단순한 어업의 토대를 넘어서서, 문명화된 세상으로 나아가는 길, 희망적이고 광대한 세계의 의미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1930년대부터 시작된 대중가요에서, 목포, 인천, 부산, 홍남 등 온갖 항구를 다루게 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따라서 〈목포의 눈물〉 같은 항구에서의 이별을 다룬 노래는, 당시에는 조선의 호남지방과 일본을 연결하는 화려한 신도시 목포에서의 다소 멋진 이별의 느낌으로 다가왔을 가능성이 높다. 식민지시대 목포항

앞의 목포오거리는, 호남선의 마지막 철도와 바다가 맞닿아 있는 곳으로, 일본식 주택과 동양척식회사, 식산은행 등이 늘어서고 가로등 불빛이 친란한 죄신식 거리 였다. 그랬기 때문에 백년설의 <대지의 항구>에서와 같이 ‘벼들잎 외로운 이정표 밑에 말을 매는 나그네’에게 해가 졌다고 쉬지 말고 ‘눈에 어리는 항구 찾아 가거라’라고 신나게 노래할 수 있었던 것이다.

해방 후 1950년대까지도, ‘쌍고동이 울어대는 이별의 인천항구’로 시작하는 박 경원의 <이별의 인천항>이나 마도로스가 등장하는 노래가 간간이 유행하는 것으로 보아, 멋지고 화려한 항구, 특히 외항선이 드나드는 국제적 항구에 대한 동경은 어느 정도 지속된다. 1950년대까지는 여전히 우리나라 스스로의 산업으로 먹고 살 수 없는 경제상황이었고, 대중들의 눈은 우리보다 잘 사는 나라를 향한 동경을 바다를 통해 드러내고 있었던 셈이다.

하지만 경제개발 계획 등의 본격적인 산업화의 시대로 들어선 이후의 바다는 매우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다. 우선 경제개발 붐으로 대중의 시선이 국내로 집중되기 시작하여 항구나 바다로 향하는 시선을 압도하기 시작했고, 선진국으로 나가는 길이 바닷길이 아닌 하늘 길 중심으로 바뀌었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일 것이다. 그로써 항구에 대한 대중의 관심은 크게 떨어졌고, 1970년대 이후 항구에서의 이별을 노래하는 작품은 대개 ‘올드패션’의 트로트 곡이었다. 1970년대와 1980년대에 각각 히트한 조용필의 <돌아와요 부산항에>, 심수봉의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는 이러한 경향을 잘 보여준다.

이에 비해, 젊은이들이 바다에 대해 가지는 동경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었다. 바로 관광지로서의 바다이다. 즉 산업화시대에 들어서면서 젊은이들은, 바다를 변화한 항구로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넓은 백사장과 하얀 파도, 비치파라솔 등과 관련해서 체험하게 된 것이다. 이들에게 바다는 생활의 공간이 아니라, 휴식의 공간이 되었다.

‘조개껍질 묶어 그녀의 목에 걸고 불가에 마주 앉아 밤새 속삭이네’(윤형주

〈라라라〉), ‘별이 쓴아지는 해변으로 가요’(키보이스 〈해변으로 가요〉), ‘바닷가에서 우연히 만난 사람 바닷가에서 추억을 맺은 사람’(사월과오월 〈바다의 여인〉), ‘딩동댕 지난여름 바닷가서 만났던 여인’(송창식 〈딩동댕 지난여름〉) 등, 1970년대부터 쓴아진 바다에 대한 새로운 노래는 거의 대부분이 관광지로서의 바다이다. 이들은 여름 휴가지로 바닷가를 선택하고, 일상과 전혀 다른 공간에서 낯선 사람과 만나 사랑을 나눈다. 이즈음부터 ‘바캉스 베이비’란 말이 심심치 않게 신문에 오르내렸다.

이렇게 요란한 관광지는 아닐지라도, ‘자 떠나자 고래 잡으려 삼등 삼등 완행열차 기차를 타고’(송창식 〈고래사냥〉), ‘발길 따라서 걷다가 바닷가 마을 지날 때 착한 마음씨의 사람들과 밤새워 얘기하리라’(이정선 〈나들이〉), ‘떠나요 둘이서 모든 것 훌훌 버리고 (중략) 술집에 까페에 많은 사람에 도시의 침묵보다 바다의 속삭임이 좋아요’(최성원 〈제주도의 푸른 밤〉) 같은 노래 역시, 약간 색깔만 다를 뿐 결국 여가생활 속에서 만나는 바다를 노래한다. 도시의 번잡하고 일상에 지친 마음을 다스리고 치유하기 위한 공간으로서의 바다를 노래하는 것인데, 바다는 이렇게 일상을 벗어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 도시와는 다른 호흡을 해볼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이 시대부터 사람들은 바다를 바라보고 사색하고 바다에 상징적 의미를 부여하는 것도 본격화되었다. 식민지시대에도 이런 예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1970년대 이후부터는 훨씬 더 강화되었다. 김민기의 〈친구〉는 ‘검푸른 바닷가에 비가 내리면 어디가 하늘이고 어디가 물이요’라고 노래하며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놓은 경계의 무의미함을 사색하고, 조동진의 〈작은 배〉에서는



고래사냥(19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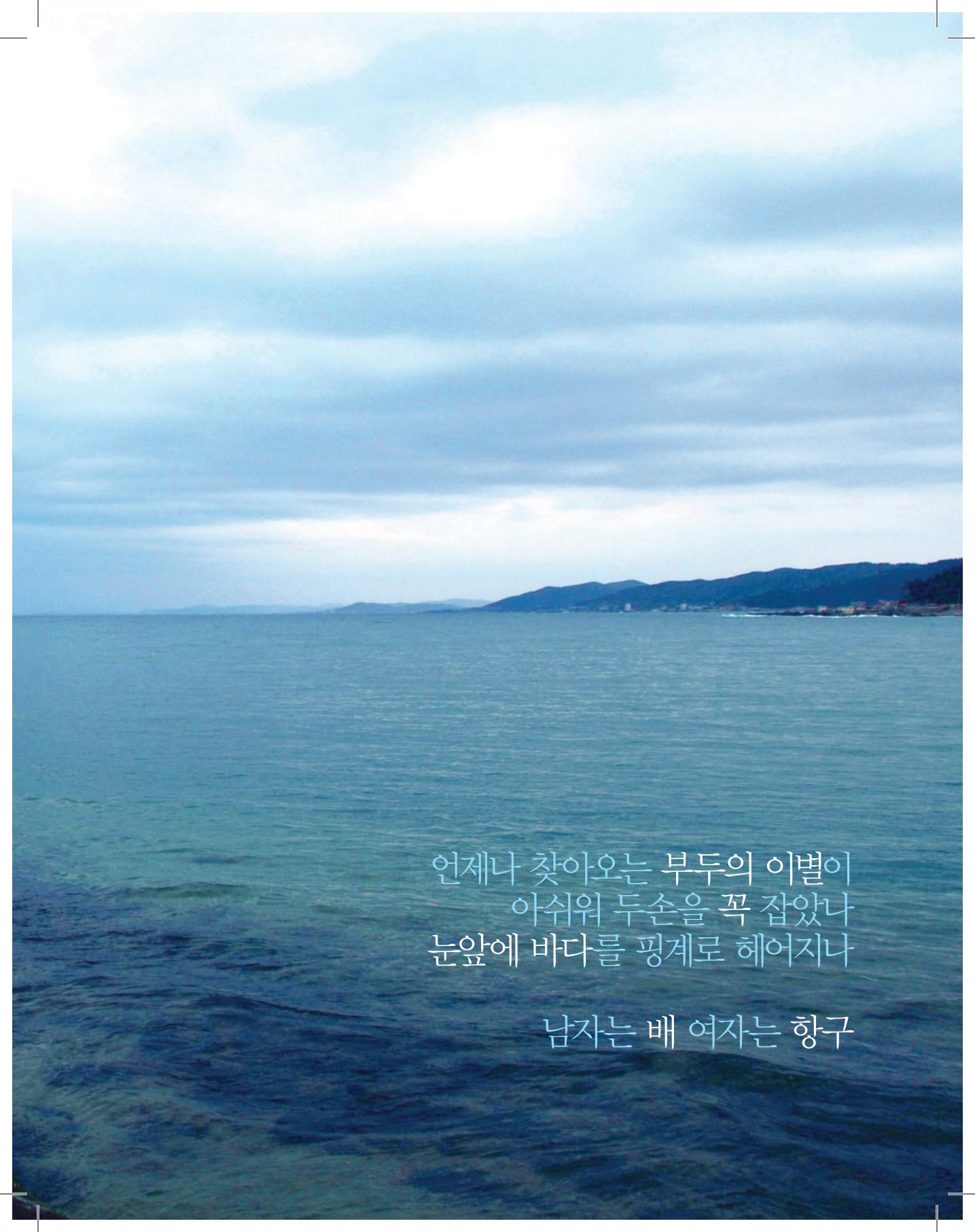
‘작은 배로는 떠날 수 없네’라고 노래하며 바다를 거칠고 험한 세상에 대한 상징으로 형상화한다. 1990년대의 패닉의 〈달팽이〉에서까지도, 좁은 자신의 방안에 용크리고 있던 달팽이 같은 자신이 결국 넓은 바다로 향할 것이라는 희망을 노래하는 것으로 보아, 바다에 대한 젊은이들의 의미부여는 이후에도 계속되었다고 볼 수 있다.

수십 년간의 대중가요 속의 바다 형상화를 살펴보면 유독 아쉬운 점이 있다. 대중가요에서는, 활기찬 어업의 현장이나 왁자한 어시장의 모습을 찾기가 매우 힘들다. 대중가요와 달리, 민요에서는 이런 어민들의 모습이 자주 나타난다. 제주도 해녀의 민요 〈이어도사나〉도 ‘먹으나 굽으나 물질을 허영(하여) 한 푼 두 푼 모은 돈도 서방님 술값에 모자라 간다’라고 노래하며 물질하며 먹고사는 해녀들의 이야기를 담았고, 황해도 어민들의 민요 〈배치기〉에서는 ‘연평 바다에 널린 조기 양주만 남기고 다 잡아디려라(잡아들여라)’라며 출어를 나가는 신명나는 느낌을 담았다.

그러나 대중가요에서는 이런 노래가 없다. 전혀 만들어지지 않았거나, 혹여 만들어졌다 할지라도 대중들에게 인기를 얻지 못했다는 의미이다. 항구이든 관광지나 휴양지이든, 대중가요 속의 바다는 여전히 바라보는 자의 시선으로만 그려질 뿐, 그곳에서 물에 몸을 적시고 비린내 묻혀가면서 사는 사람들의 시선은 나타나지 못한 것이다.

(이영미 / 대중예술평론가)





언제나 찾아오는 부두의 이별이
아쉬워 두손을 꼭 잡았나
눈앞에 바다를 핑계로 헤어지나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



바다를 바라보는 마음

어떤 화가를 알고 있다. 그는 동해바다 수평선을 바라보면 눈동자를 베일 것 같아 불편하다고 했다. 너무 심심하고 싱겁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바다는 건더기 많은 고깃국처럼 걸쭉하다고 했다.

처음엔 의아했지만 나중엔 그 얘기에 고개가 끄덕여졌다. 그의 고향은 여수였던 것이다. 태어나서 처음 본 바다도 그렇고 성장하며 줄곧 봄바운 바다는 작은 섬들이 등등 떠 있는 아기자기한 호수에 가까웠던 것이다. 그야말로 고깃국 같은 바다. 그러니 거칠 것 없이 하늘과 맞닿기만 한 동쪽 바다가 얼마나 허전하고 혈렁혈렁 했을까. 반대로 동쪽 바닷가가 고향인 누군가에게 남해는 답답할지도 모른다. 파도마저 잔잔하고 호쾌한 수평선마저 없으니 말이다.

산을 보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같은 산을 두고도 이쪽에서 바라본 사람과 저쪽에서 바라본 사람은 서로 다르게 설명한다. 자기가 본 것만이 진실이라고 굳게 믿기 때문이다. 이처럼 사람들은 어떤 대상을 보고 느끼는 감정이 다르기 마련인데, 이는 주관(主觀)에서 비롯된다. 물론 사람이라면 누구나 주관이 있기 마련이다. 그런데 특히 미술 분야에서 창작 활동을 하는 작가의 경우 범인(凡人)과 다르게 아주

뚜렷한 주관을 지닌 경우가 많다. 그만큼 자기의 세계관이 투철하다는 얘기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수많은 화가들이 이런 남다른 주관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예술세계를 추구해왔다. 그들은 남과 다른 자신만의 시선을 갖는 데 그치지 않고, 그것을 자신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표현해 왔다.

사람들은 흔히 손재주 있는 사람이 그림을 ‘잘 그린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손’보다 ‘눈’이 밝은 사람이 더 ‘좋은 그림’을 그리는 경우가 많다. 여기서 말하는 눈이 밝다는 말은 단순히 시력이 좋다는 얘기가 아니다. 어떤 대상의 특징이나 본질을 자기만의 시각으로 꿰뚫어보고 느끼는 능력, 곧 직관(直觀)이 뛰어남을 말한다. 이처럼 직관이 뛰어난 사람이 ‘좋은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좋은 그림’이란 어떤 그림일까. 선불리 정답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저 대상을 사실적으로 똑같이 묘사한 그림이 꼭 ‘좋은 그림’이 아니라는 것만은 분명하다. 물론 사실적인 묘사가 매우 뛰어난 하이퍼-리얼리즘(Hyper-Realism) 경향의 작품도 있다. 하지만 이런 그림은 현대미술의 수많은 장르 가운데 하나일 뿐이다. 예컨대 20세기 이후 현대미술이라고 불리는 최근 미술의 지향점은 사실적인 재현에만 있지 않다. 따라서 현대미술에서 ‘좋은 그림’이란 사실적이고 객관적인 그림이 아니라, 남과 다른 작가의 고유하고 차별화된 미의식이 담긴 그림을 말한다. 이 역시 직관에서 비롯된다.

한편 화가의 마음은 시인(詩人)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화가와 시인은 얼굴 다른 쌍둥이 일지도 모른다. 시인은 보통사람이 미처 느끼고 깨닫지 못한



무제(김지원)



바다. 빛을 탐하다(윤명숙)

세상을 자신만의 언어로 묘사한다. 예컨대 시인은 바다를 바라보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어머니를 떠올리고, 바람을 얘기하고, 시간의 의미를 노래한다. 화가도 마찬가지다.

여기 시인의 마음으로 바다를 그린 화가가 있다.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인 작가 김지원이 주인공이다. 그는 오래 전부터 한국의 섬을 여행했다. 제주도, 울릉도, 거제도, 흑산도, 백령도, 진도……. 멀리 에게해와 지중해의 바다도 다녀왔다. 육지에서 섬으로, 섬에서 다시 육지로 가는 길은 모두 바다 위에 있다.

거친 파도와 물결이 일렁이는 바다의 길 위에서 화가 김지원이 그린 것은 바다가 아니다. 바람이다. 부서지는 파도를 바라보며 화가는 바람을 먼저 생각했다고 한다. 바다를 보며 화가는, 초기 불교 경전 가운데 하나인 『수타니파타(Sutta-nipata)』의 한 구절에 나오는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처럼, 분명 존재하지만 보이지 않는 바람을 그리고 싶었던 것이다. 이런 김지원의 그림은 특유의 색감과 거친 듯 부드러운 붓 터치를 보여준다. 그의 그림은 바다의 존재감과 회화 자체의 물리적 실재감을 드러내며 바람의 결, 바람의 흔적을 보여준다.

여기 또 한사람. 구도자의 마음으로 10년 넘게 바다를 찍어온 사진가가 있다. 사진작가 윤명숙은 바다 사진으로만 네 번의 개인전을 열었다. 첫 개인전 제목은 그냥 ‘바다’였고, 두 번째는 ‘바다, 빛을 탐하다’, 세 번째는 ‘바다, 청색에 물들다’, 그리고 2010년에 열린 네 번째 개인전은 ‘시간의 비늘’이었다. 작가는 작업노트에서 이렇게 말한다. “바다의 시간을 표현하고 싶다. 현재가 아니라 이전의 시간도 포함하고 싶다. 인간이 존재하는 시간만이 아니라, 전과 후의 무한대의 시간이다. 바다는 그 시간을 지탱해 왔다. (...) 난 바다 바람을 쬐면 내가 존재한다는 사실에 놀라곤 한다. 지금 이 순간에 이 바다가 좋을 뿐이다. 이 바다를 바라보고 서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 만족한다”고. 윤명숙이 바다사진을 찍는 것은 스님이 선방에서 묵언수행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 바닷가 한 곳을 점찍으면, 짧게는 5~6개월, 길면 1년을 내내 그 곳 한자리에서 바다만 바라본다. 이렇게 수행하듯 찍은 사진은

바다의 껌데기뿐만 아니라 심연의 속살을 담고 있다.

결국 김지원의 그림이나 윤명숙의 사진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바다의 겉모습이 아니다. 바다를 바라보는 그들의 마음이다. 마음이란 언어와 문자로 정의 내릴 수 없다. 마음은 머릿속 뇌에 있지 않다. 그렇다고 가슴속 심장에 있지도 않다. 그것은 머리끝부터 발끝, 손끝까지 퍼져있는 실핏줄처럼 우리 온몸에 퍼져있다. 예술가의 마음을 헤아리는 일. 그것이야말로 그들의 작품을 제대로 이해하는 방법일 것이다.

(이준희 / <월간미술> 수석기자)





바다의 문학, 문학의 바다

아름다운 책 『삼국유사』에서, 삼국시대의 기이한 이야기를 기록한 부분에서 '바다'는 우리를 꿈꾸게 하는 '신화의 바다'다. 그 바다에서 나라의 근심을 다스리는 요술 피리인 '민파식적'이 나오고, 동해 용왕의 아들 '처용'이 나왔다. '연오랑과 세오녀'는 바위를 타고 바다를 건너 일본으로 가 왕과 왕비가 되었다. 바다가 있기에 우리에게 지금까지 전해지는 빛나는 민족의 신화다.

한국문학도 바다에게 신세를 지고 있다. 근대문학의 효시로는 최남선의 신체시 〈해(海)에게서 소년(少年)에게〉를 드는 일이 그렇다. 1908년 잡지 『소년』 창간호에 실린 이 시는 제대로 꿀을 갖춘 문학이 바다에서 나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한국문학이 바다에서 나온 '바다의 선물'인 것을 뜻한다.

원양으로 항해시대가 열리기 전까지 바다는 바라보는 동경의 대상이었다. '그리움이 길을 만들듯'이 바다에 대한 동경과 그리움이 근대부터 현대까지 많은 '바다문학'을 낳았다. 따라서 근대 이후 바다 문학의 대부분이 '육지에서 바다를 바라보는 시선'인 것이 증명한다.

소월은 〈바다〉라는 시에서 '뛰노는 흰 물결이 일고 또 잣는 / 붉은 풀이 자라는 바다

는 어디'냐며 그리움의 바다를 노래했고, 영랑은 〈바다로 가자〉는 시에서 '발 아래 쪽 깔린 산호라 진주요 / 우리 바다로 가자 큰 바다로 가자'며 동경의 바다를 노래했다.

위와 같은 정서는 60년 동안 한국문학 속의 바다문학으로 존재했다. 그러나 1969년 혼역 어선선장이었던 천금성이 한국일보 신춘문예에 단편소설 〈영해발부근〉이 당선되고, 1971년 상선의 항해사였던 김성식이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시 〈청진항〉이 당선되면서부터 바다문학의 시선이 서서히 이동하기 시작했다.

바다 위에서 바다를 바라보는, 작중화자의 이동은 바다문학의 바다를 한반도 연안에서 원양, 대양으로 확대시켰다. 이른바 해양 문학의 시대가 열린 것이다. 가까운 바다에서 먼 바다까지 바다문학의 살아 있는 무대가 되었다.

바다를 무대로 문학작품을 전문적으로 창작하는 사람들을 '해양문학가'라 부른다. 아직 우리 문학에서 해양문학은 낯선 장르지만 세계는 이미 해양문학의 시대를 열고 있다. 영국에서는 해양문학가의 수가 2만 명이 넘는다고 한다. 미국에서도 최고의 소설의 자리는 여전히 허먼 멜빌의 1851년에 창작한 『백경(白鯨)』이 차지하고 있다.

〈해(海)에게서 소년(少年)에게〉 이후 100년이 지난 21세기에 들어서야 바다의 문학은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 지난 2000년 '해양 수도'를 자처하는 부산에서 (사)한국해양문학가협회가 발족된 일이 기폭제였기 때문이다. 전·현직 선장과 항해사, 선원 출신의 작가들이 등장하고, 바다를 문학의 무대로 삼는 작가들이 속속 나타나기 시작했다.

어민들이 바다에서 얻은 건강한 수산물을 즐기고, 어촌에서 삶의 '어메니티' (amenity, 쾌적함)를 얻어 온 독자들에게 더 먼 바다의 이야기가 필요했고, 그 건 용기와 도전을 가르치는 일이기도 했다. 그러한 정서를 가진 독자들과 공감하기 위해 많은 문학인들이 바다에서 시와 에세이를 건지고 소설을 건져 출판 시장에 내놓기 시작했다.



고래문학제 '돌고래를 위한 시낭송의 밤'

해양문학의 생산자인 해양작가와 소비자인 독자 시장을 확대하는데 있어, 바다의 문학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기 위한 ‘해양문학상’의 제정과 시상이 지금도 큰 뜻을 하고 있다.

부산시와 부산문인협회가 만든 ‘한국해양문학상’과 부산일보의 ‘부일해양문학상’, 여수시와 여수문인협회가 만든 ‘여수해양문학상’, 해양문화재단(2011년 재단법인 해상왕장보고기념사업회와 통합)의 ‘해양문학상’, 경상북도와 포스코가 제정한 ‘동해문학상’ 등이 그것이다. 적지 않은 상금을 걸고 바다의 문학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바다의 문학’을 ‘문학의 바다’로 만들기 위해서는 해양문학을 전문적으로 육성하는 정부의 열린 정책과 지속적인 지원이 있어야 한다. 작가들에게 바다를 직접 체험하게 하는 프로그램도 절실하다. 많은 문학인들이 바다를 경험하고 그 기록을 문학작품으로 만들고 싶지만 그런 기회가 어느 바다, 어느 바닷가에도 없어 아쉽다.

좋은 바다를 가진 지방자치단체도 유명 관광지나 수산물 홍보에만 치중할 뿐이다. 이제 우리에게 문학의 바다가 만들어져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울산시 남구 장생포항 일대에서 열리는 ‘고래문학제’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1986년 국제포경위원회(IWC)의 포경 중단 이후 쇠락의 길을 걷고 있는 장생포항에서 2008년부터 ‘고래문학제’를 개최해 문학이 죽은 장생포항을 살려내는데 제 몫을 하고 있다. 떠난 고래를 울산 바다로 돌아오게 하고 있다. 고래문학제 기간 동안 장생포를 다녀간 문학인들이 장생포와 고래를 주제로 한 작품들을 쏟아내고 있다. 이제 고래는 한국 시인들에게 새로운 ‘키워드’가 되고 있을 정도며, 고래에 대한 시를 쓰지 않은 시인이 드물다.

이처럼 바다에서 만들어진 ‘바다의 문학’이 독자들에게는 ‘문학의 바다’를 선물하는 일인 동시에, 우리에게는 동·서·남해 외에 ‘영혼의 바다’를 가지게 되는 일이 될 것이다. 바다와 어촌과 어민이 함께 살아서 문학작품 속으로 투영되는 그 바다를 기대한다.

(정일근 / 시인)

바다에서 만들어진 ‘바다의 문학’이
독자들에게는 ‘문학의 바다’를
선물하는 일인 동시에,
우리에게는 동·서·남해 외에

‘영혼의 바다’를
가지게 되는 일이 될 것이다





자원의 곳간, 혹은 머나먼 미지로의 길

당진의 장고항은 서해의 작고 외진 포구였다. 이 포구의 선착장을 따라 가다 긴 방파제 끄에 올라서 보면 그 앞바다에 작은 섬 둘이 가로누워 있다. 누군가 소리쳐 부르면 이내 곧 대답이 돌아올 것 같은 그런 가까운 거리에 국화도는 자리하고 있었다. 나는 얼마 전 이 섬을 우연한 기회에 들렀다. 말이 우연이지 실은 이 섬에서 유학 온 한 학생의 소개를 받아 들르게 된 것이었다.

처음 장고항에서 여객선을 탔을 때 20여 분 남짓의 섬까지의 운항시간이 너무 짧고 아쉽다는 생각을 했다. 모처럼 뱃머리에서 시원한 바람을 쐬며 바다란 역시 좋은 것이구나 싶을 때 배는 이미 섬 선착장에 닿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선착장에서 마을을 통해 야트막한 산등성이를 넘어갔다. 섬 반대편 서쪽 해안에는 마치 안마당 같은, 활처럼 안쪽으로 흰 백사장이 바로 일행들 발밑에 펼쳐졌다. 나는 거기서 섬 주민들이 터았처럼 일궈놓은 톡 터진 서해바다를 만났다.

장고항 앞바다에 웬 덩치 큰 어미개가
게슴츠레 눈 감고 누웠다

뒷다리 사이 하복부에는 불어터진 젓통을 치받으며 빠는
 배냇눈 막 뜯 강아지 만한
 잡목들 새새의 펜션 서너 동(棟)
 때때로 어깨 죽지를 들썩이고.

방파제 돌아 나와 국화도는 그렇게 제 품안에 보듬었다
 녹슨 철선으로 터았 바다 몇 이랑씩 갈아엎어
 우럭이나 꽃게새끼 키우는
 1리, 2리 섬 동네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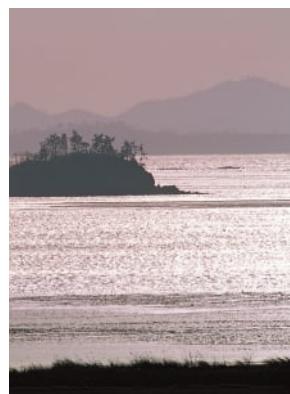
.....(중략).....

수수백년 쟁인 생계를 뒷박질로 밑바닥까지 퍼내주는
 바다는 평생 내 것이 없다.

– 〈국화도행〉의 부분

장고항 배편으로 국화도를 몇 차례 드나든 뒤 나는 이 섬 얘기를 작품으로 만들었다. 인용한 시는 그 작품의 한 대목이다. 내가 서쪽 앞바다에 나가 돌아본 국화도는, 시의 내용 그대로, 그 웅크린 모습이 새끼들에게 젖을 물린 어미개와 흡사했다. 큰 섬 옆으로 빼끗 떨어진 작은 섬도 섬이려니와 잡목들 새새로 보이는 민박집들은 꼭 어미 품에 안긴 강아지들 꼴이 아닌가. 나는 국화도에 그런 어미개의 영상을 겹쳐놓고 시를 써 나갔다. 마치 자식처럼 사람들을 안고 기르는 국화도의 모습이란 어김없는 어미개의 형국을 닮았던 것이다. 그랬다. 서해바다는, 여느 섬도 그렇겠지만, 그렇게 국화도 섬사람들을 긴 세월 품어 키우고 있었다. 여기 이 쯤서 나는 문득 어느 스님에게서 들은 얘기 한 토막을 떠올린다.

길고 오랜 세월을 외지로 떠돌던 아들이 돌아왔다. 그것도 세상 풍파에 깎일 대로



깎인 중년이나 되어서였다. 사연인즉, 고향집을 지키고 살던 늙은 아버지가 임종이 가깝단 연락을 받고서였다. 젊은 시절 가난이 싫어 궁벽한 어촌을 뛰쳐나간 아들은, 으레 가출한 청년이 그렇듯, 외지로 외지로 떠돌며 그동안 온갖 간난과 신난한 역경을 견뎌냈을 터이다. 그리곤 아비의 종신자식 노릇이나마 하기 위해 영락하고 추례한 모습으로 옛집에 들이 닥친 것.

“그래 왔구나. 지난 일은 말 안 해도 내 다 안다. 됐다, 애비 말이나 들어라. 내가 네게 물려줄 재산이란 별 것이 없구나. 대신 평생 내가 일군 저 마을 앞 넓디넓은 난바다 하나를 물려주마. 돈으로 따지면 아마 수백만 냥짜리는 될 게다.”

늙은 아버지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힘겨운 듯 유언삼아 몇 마디 당부를 했다. 그리곤 오랜만에 만난 자식의 손을 더듬어 잡았다. 누구보다 마르고 야원 아버지의



손보다 모처럼 잡은 아들의 손이 더 거칠었다. 그렇게 수백만 낭짜리 넓은 바다를 뜯하지 않게 상속받게 된 아들은 머지않아 아버지의 깊은 뜻을 깨닫게 되었다. 생전의 아버지가 했던 그대로 자식 역시 배를 탔고 누구보다 열심히 고기를 잡았다. 그렇게 터앗 일구듯 바다에서 새로 일구기 시작한 생계는 객지에서의 그동안 고생을 벌충하고도 남음이 있었던 것이다.

늘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에게 바다는 아낌없이 자신을 펴 준다. 말하자면 “수수백 년 쟁인 생계를 뒷박질로 밑바닥까지 퍼내주는 / 바다는 평생 내 것이 없”었던 것이다. 마치 가진 자가 기근 심한 시절이면 어김없이 곳간 문을 열어 어려운 이웃들에게 쌀독 밑바닥까지 쌍싹 긁어 양식을 퍼주었듯 말이다. 바다는 그래서 평생 내 것이 없다. 오로지 끊임없이 베풀고 있는 것들을 남김없이 내어줄 뿐이다.

그런데 바다는 그런 거대한 모성과 자원의 곳간 노릇만 하는 게 아니다. 다음의 시를 읽어보자.

애비를 잊어버려

애미를 잊어버려

형제와 친척과 동무를 잊어버려

마지막 네 계집을 잊어버려

알라스카로 가라 아니 아라비아로 가라 아니 아메리카로 가라

아니 아프리카로 가라 아니 침몰하라 침몰하라 침몰하라

오 – 어지러운 심장의 무게 위에 풀잎처럼 흘날리는 머리칼을 달고

이리도 괴로운 나는 어찌 끝끝내 바다에 그득해야 하는가

눈 떠라 사랑하는 눈을 떠라.....청년아

– 서정주(1915~2000)의 〈바다〉의 일부

과연 인간에게 젊음이란 무엇일까. 그 홍역처럼 열에 뜬 채 통과하는 우리네 삶의 한때란, 비유하자면, 쉴 새 없이 들끓고 설레며 뒤채는 저 바다와 같지 않던가. 위의 시 ‘바다’는 그런 젊음의 분방하고 다양한 속성을 단적으로 우리에게 일려 준다. 누구나 젊은 날에는 새롭고 알 수 없는 미지의 세계를 동경하고 그것 때문에 끝 모를 방황을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애비와 에미’로 흔히 상징되는 기성의 가치, 굳어진 기존의 고정관념들을 파괴하고 그 속박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 그렇게 ‘눈을 뜬 청년’들은 새로운 것, 미지의 세계를 지칠 줄 모르고 탐험한다. 그 탐험의 머나먼 길은 언제나 바다 위에 놓여있게 마련이었다. 이 세계의 도처로 뻗은 유사 아래 인간이 그어 놓은 무수한 항로들이 바로 그 탐험길이다.

일찍이 프랑스 소설가 앙드레 지드는 “탈출하라, 너의 가정에서 너의 학교에서”라고 『지상의 양식』이란 책에 적은 바 있다. 그런가 하면 누구는 부모와 친척, 친구는 말할 것도 없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조사(祖師)’를 만나면 조사를,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라고’까지 가르친 바 있다. 이 역시 기존의 체계나 가치들을 과감하게 타파하고 자기 정체성을 굳건히 확립하라는 소리였다. 아마 그런 다음 자리에 서정주 시인이 말하는 “알라스카로, 아라비아로, 아메리카로, 아프리카로 떠날 수 있는” 도처의 열린 세계를 만날 수 있을 터이다. 그렇다. 우리 앞에 길은 향시 어디에로나 열려있고 어디에로나 갈 수 있다. 동서남북 어디로나 길이 열려 있는 공간—그것이야말로 바로 바다가 아닐 것인가. 시인 서정주는 이 같은 바다의 속성을 누구보다도 일찌감치 깨달은 셈이다.

널리 알려진 대로 바다란 오늘날처럼 하늘길이 없던 고대로부터 낯선 미지의 세계로 나가는 통로였다. 그런가 하면 낯선 이국의 문물(文物)이 밀물인 듯 밀려들어 오는 관문이기도 했다. 지금도 지구촌의 다양한 문물과 숱한 사람들은 바다 길로 어김없이 들어오고 나간다. 이는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모든 것을 퍼주는 모성과 곳간으로서의 바다와는 또 다른 바다의 모습이 아닐 수 없다.

(홍신선 / 시인)

늘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에게
바다는 아낌없이 자신을 펴 준다.

말하자면 “수수백 년 쟁인 생계를
뒷박질로 밑바닥까지 펴내주는
바다는 평생 내 것이 없”었던 것이다.





‘내 밥상 위의 자산어보’ 그 뒷 이야기

나에게는 오래 전부터 손암 정약전 선생의 『자산어보』가 있었다. 수산동식물 155종에 대한 명칭, 분포, 형태, 습성을 정리해놓은 박물지이다. 그 책을 자주 들여다보았는데 보통사람들은 재미없어 했다. 그도 그럴 것이 사전(辭典)이 재미있을 리 없는 법 아닌가.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가 바다를 좋아한다고 생각한다. 일 년에 최소한 두 번은 바다를 찾아간다는 통계도 있다. 하지만 바닷가 조금 걷다가 회 먹고 돌아오기 일쑤이다. 좋아하는 것과 잘 아는 것은 별개이다.

나는 거문도에서 태어나 자랐고 유행 전 다시 돌아와 살고 있다. 바다는 늘 나의 배경이고 대상이었다. 지금도 그렇다. 어제 낚시를 다녀왔고 조만간 갯것도 나갈 생각이다. 소설도 대부분 바다와 거기에 입을 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사연을 써 왔다. 그러다보니 바다와 섬의 작가라는 말이 꼬리표처럼 따라다닌다. 내가 사는 거문도에 손님이 찾아올 때가 있다. 그들과 산책을 하다보면 이 꽃은 이름이 무엇인가, 저 나무는 어떤 종류인가 물어온다. 몇 개를 제외하고는 모르거나 헷갈린다.

“아, 섬에 왔으니 바다 것을 좀 물어봐.”

“보여야 말이지. 다 물속에 있잖아.”

나는 이상하게도 식물이나 곤충, 새 이름은 쉽게 잊어버린다. 어릴 때부터 그랬다. 하지만 바다 것은 잘 기억했다. 아이 때부터 산이나 들보다는 바닷가에서 노는 것을 훨씬 좋아했기 때문에 저절로 그렇게 되었다. 해녀였던 할머니를 자주 따라녔던 것도, 웃침을 지키며 몇 시간이고 혼자서 갯돌에 앉아있던 것도, 끝내 잠수하는 법을 배운 것도 그 때문이었다.

모 일간지에 『내 밥상위의 자산어보』 연재를 시작한 게 이 년 전이었다. 나는 그 코너에서 거문도 바다 이야기와 200년 전 흑산도의 『자산어보』를 이어보고자 했다. 바다를 더 깊고 디테일하게 느끼는 법과 『자산어보』의 묘미와 의미를 확인시키고 싶기도 했다. 그렇지만 본격적인 바다생물 관련 원고를 쓰려니 알고 있는 것으로는 부족했다. 일곱 살 부터 시작했던 낚시와 이십대의 선원 경험, 몇 권씩 가지고 있는 어류도감으로도 그랬다. 그때 발견한 것이 수협 기관지인 〈우리바다〉. 나는 잘 알고 있는 선배 (그의 부친이 수협조합원이셨다) 집에서 수십 권 되는 〈우리바다〉 과월호를 챙겨왔다. 그리고 물고기, 패류, 해조류, 바다동물류, 이렇게 자산어보처럼 분류를 했고 몇 년도 몇 월 호 몇 페이지에 그것과 관련된 것이 나오는 가를 정리했다.

그 작업을 하다보면 손바닥이 딱딱해지곤 했다. 아마도 〈우리바다〉를 나보다 더 꼼꼼하게 본 사람도 드물 것이다. 그 와중에 한국해양수산연구원의 명정구 선생도 알게 되었다. 『자산어보』에 나오는 해양생물 중에 설명이 모호하여 끝내 알기 어려운 것은 명정구 선생께 질문을 하곤 했다.

30가지 해양생물을 다룬 연재를 끝내고 『인생이 허기질 때는 바다로 가라 – 내 밥상 위의 자산어보』(문학동네)가 책으로 묶여 나왔다. 반향은 나쁘지 않았지만 더 좋았으면 했다. 독자가 이 책을 읽다가 오후, 바다를 좋아하는 내 친구에게 선물해 주면 좋아하겠군, 이러면서 또 한 권 사려가기를 희망했던 것이다. 하지만 내가 들어본 그들의 반응은 책을 읽다가 못 참고 횃집으로 달려갔다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내 덕분에 재미 본 동네 횃집 사장님들 여럿 계셨을 것이다.



원고를 쓰면서 가장 곤란했던 것은 사진이었다. 당장 연재를 하는 동안에도 사진을 한 장씩 올려야 했고 책으로 묶으려면 더 많은 사진이 필요했다. 문제는 매번 사진작가를 부를 수도 없거니와 해산물이 나의 일정에 맞춰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갈치를 찍기 위해 사진작가를 불렀지만 갈치가 잡히지 않으면 말짱 소용이 없는 것이다. 나는 결국 카메라를 샀다. 돈도 제법 들었다. 원래 사진에 취미도, 실력도 없으니 좀 비싼 것이면 좋은 사진이 나오는 줄 알았던 것이다. 그것을 들고 날마다 수협어판장과 어선, 갯바위를 돌아다녔다. 가장 난감한 것은 낚시 갈 때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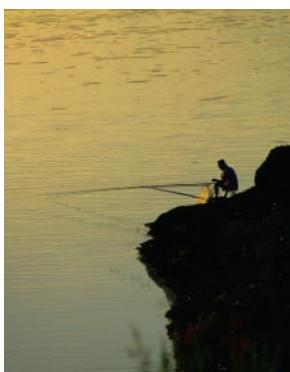
알 만한 사람은 다 알지만, 갯바위 낚시 한번 가려면 여러 장비가 필요하다. 도시락 까지 잔뜩 챙겨서 끄응 일어섰다가도 아차, 카메라, 하게 된다. 낚시에 무언가 물려 올라왔을 때도 보통 귀찮은 게 아니다. 수건으로 손 닦고 사진 찍어야 하니 말이다.

책이 나오고 많은 사람들이 섬엘 찾아왔다. 그들은 바닷가를 걷고 책에 나왔던 것들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낚아보고 먹어봤다. 넓고 깊은 바다의 기억을 그들은 그렇게 한 보따리씩 만들어가지고 되돌아갔다.

사람들은 바다를 막연히 생각한다. 관념적이다. 그들에게 구체적으로 바다를 가까워지게 하는 것, 몇 가지를 전해줌으로써 훨씬 생생하게 만날 수 있게 해주는 것. 그게 나의 목표였다. 그리고 그 일련의 작업은 나에게 저 깊고 푸른 바다를 알게 해준 사람들, 내 고향의 어부들과 해류와 물때와 물고기의 습성을 가르쳐준 선배들, 해녀였던 할머니, 바다의 정서와 언어를 가르쳐준 친지, 친구들의 삶을 기록하는 일기 같은 거였다. 사실 나는 그것 때문에 소설가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특히 이 책은 그들에게서 풍성하게 받은 것을 비로소 조금이라도 깊은 행위의 다름 아니다.

시간은 많이 갔지만 이곳 거문도 어부들은 오늘도 배를 몰고 바다로 나간다. 늙어버리기는 했지만 아직도 잠수를 하는 해녀들도 푸른 물을 뚝뚝 흘리며 새로운 자산어보를 몸으로 쓰고 있다. 그들은 여전히 나의 좋은 이웃들이다.

(한창훈 / 소설가)





갓바위 낚시 한번 가려면
여러 장비가 필요하다.

도시락까지 잔뜩 챙겨서 끄응
일어섰다가도 아차, 카메라, 하게 된다.
낚시에 무언가 물려 올라왔을 때도
보통 귀찮은 게 아니다. 수건으로
손 닦고 사진 찍어야 하니 말이다.



바다가 보여준 몸짓,

〈4색 여정 – Endless Voyage〉

노인은 무심코 바다 저편을 바라보았다. 순간 그는 자기가 지금 얼마나 외로운가를 깨닫게 되었다. 그러나 그는 깊고 어두운 물속에서 빛이 굴절하는 것을 볼 수 있었고, 팽팽하게 앞으로 뻗어나간 낚싯줄과 잔잔한 가운데서도 이상한 파동이 이는 현상을 볼 수가 있었다. 바람 때문에 어디선지 구름이 모여들고 있었다. 앞을 보니 한 폐의 물오리가 바로 위의 하늘을 배경으로 뚜렷이 나타났다가는 흐려지고 다시 또 뚜렷이 나타나곤 했다. 노인은 그런 모습들을 보며 어느 누구도 바다에서는 외롭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 어니스트 헤밍웨이 〈노인과 바다〉 中

수평선과도 같이 시작과 끝을 알 수 없는 ‘연속선상의 두 지점 사이의 간격’을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라고 말할 때 가끔씩 나에게 외치는 말이다. ‘거침없이 춤추고 거침없이 사랑하라…….’

사랑. 정의 내리기조차 매우 힘든 이것은 삶에서 유일하게 진실하고 오래 남는 경험이다. 그것은 두려움의 반대말이고 관계의 본질이며, 행복의 근원이라 생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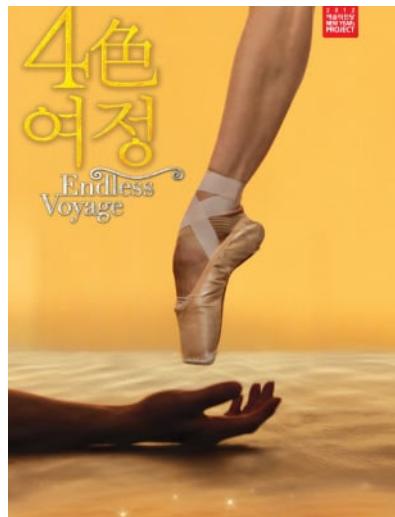
한다. 또한 우리 자신을 이루고 있는 가장 깊은 부분이고, 우리 안에 살면서 우리를 연결해주는 에너지다. 사랑은 모든 행위 너머에 있고 삶에서 결코 사라지지 않는 유일한 선물이며 환상과 꿈, 공허함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사랑은 진실의 근원이라 믿는다.

몇 해 전 나는 꽤 오랜 기간 동안 바다가 보이는 마을에 머무른 적이 있다. 바쁘고 힘든 일정 속에서도 신이 선물한 이곳에서 평소 하지 않던 아침운동과 저녁산책을 하는 호사를 누렸다. 이곳은

눈이 의심스러울 만큼 하늘과 바다가 맞닿아 있고 조작이라도 한 듯 계절의 변화를 느낄 수 없기에 흘러가는 시간을 내가 움켜쥘 수 있을 듯 했다. 며칠 동안 나는 바다 위로 반복되던 일출과 석양을 마주하면서 사랑이 가진 모든 힘과 위대함으로 흘러가는 술한 시간의 이야기들과 무수히 많은 계절의 이야기들을 잠시나마 가졌던 나의 오만함과 무심함으로 진정 아름답고 가슴 먹먹해지는 이야기들을 놓칠 뻔 했다. 만나고 사랑하고 헤어지고 기다리고……. 기억하고…….

그렇게 그들은 그 곳에서 그들만이 간직하고 추억하는 아름다운 날……. ‘눈물이 되는 날’이었다. 오늘도 내일도 두 팔 가득 벌려도 움켜쥐기가 힘든 해변의 태양은 나의 오감을 자극하고 유유히 사라져 갔다.

이처럼 인간의 삶과 그 속에서 피어나는 사랑의 이야기를 닮아 있던 대해에서의 감정, 사계의 향기들을 한국적 색채와 정서를 바탕으로 무용으로 무대 위에서 표현해 보고자 했다. 그동안 겪었던 아름다운 추억과 사랑, 그리고 이별과 눈물 등 누구나가 간직하고 있는 가슴 먹먹한 삶의 이야기를 담아내려고 했다. 이를 위해



〈4色여정〉 포스터

나와 함께 국내의 세 명의 무용수가 자신이 느끼는 ‘인간 감정의 바다’를 각자의 방식으로 그려내, 이를 지켜보는 관객들에게는 그들의 지나온 나날들과 앞으로의 또 다른 삶을 비춰보는 무대가 될 것이라 생각했다.

특히 나의 ‘눈물이 되는 날’을 비롯하여 여러 무용수들이 추억하고 간직한 날들의 이야기들을 형식과 틀을 벗어나 솔직하고 자연스러운 움직임으로 표현함으로써 감각적이고 새로운 춤 문화 콘텐츠가 탄생할 것을 기대하고 작품을 준비했다.

바다와 인간의 감정이 맞닿아 있는 안무 노트를 만들어 보는 데 애를 썼다. 이것은 삶의 성찰과 상처받은 영혼들을 위한 위무이다. 바다의 변화와 닮아 있는 인간의 다양한 감정들을 느끼고 이해하며 진정한 아름다움으로 조합한 영약으로 상처받고 지쳐있는 영혼들을 치유하는 것이다. 마치 잔잔한 파도가 인간을 달래는 것처럼. 하얀 피부 위로 도드라지는 푸른 정맥처럼 선연하고 우울해지면서도 내밀한 자기고백과 같은 춤은 사람들의 가슴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진다. 원래 춤이라는 근원에서 시작된 무용예술은 인간들의 삶에 자연스레 내재되어 있으면서 그들의 다양한 감정들과 함께해왔다. 아름다운 삶의 동반자로서 무용예술은 인간들의 풍요로운 삶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것이다.

극의 프롤로그인 ‘Twilights’. 잔잔한 바다 속으로 고요하게 스며드는 달빛 아래 또 다른 여정을 기다리는 둑대들은 추억속의 바람을 기억하고 시간 여행자의 고독한 몸의 소리와 함께 다시 시작되는 끝없는 항해를 위해 그들만의 전야제를 갖는다.

1장 ‘Emotion’에서는 감정을 들여다본다. 속내를 알 수 없는 해풍과 같아 때로는 거세게 때로는 고요하게 요동하며 우리를 이끄는 유람선은 가늠하기조차 힘들다. 하지만 그들이 있기에 허락된 여행이 아닐까. 희(喜), 노(怒), 애(哀), 락(樂), 애(愛), 오(惡), 욕(欲)…….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가슴 벅차오르는 인간의 감정들. 그들의 동행은 머나먼 여정을 떠나는 여행자들의 길잡이가 되어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아름다운 추억으로 물들게 하고 그들의 몸짓은 진정한 아름다움으로 빛



〈4色여정〉 공연

어낸 영약이 되어 상처받고 지쳐있는 영혼들을 치유해준다.

2장 ‘Presence’는 존재, 즉 ‘있음’이다. 사랑하는 사람이 웨딩마치를 올리듯 두 사람의 만남은 이젠 더 이상 둘이 아닌 하나가 되어 떠나는 하나의 여행이다. 당신과 나, 그리고 우리의 모습, 서로가 서로에게 존재의 이유가 아닐까. 풍랑을 넘어서는 그들에게 펼쳐질 아름다운 여정을 위해 이 장을 만들었다.

3장 ‘Solitude’, 고독이다. 먼 먼 망망대해로 홀로 떠나는 여정은 무엇을 위함인가. 남겨진 자의 슬픔이 눈물이 되는 날, 떠나는 가슴 아픈 여정을 담았다. 드러내지 않아도 홀려넘치는 진정한 여인의 아름다움. 여인의 사랑은 바람이 되고 눈물이 되고 노래가 되어 관객의 가슴을 적시게 된다. 그리움이 시작되는 눈물이 되는 날, 바다에 몸을 맡긴 여인은 세상의 어떠한 것보다 차가운 몸부림 속에서도 홀로 끝없는 사랑여정을 떠난다. 만나고, 사랑하고, 헤어지고, 기다리고, 기억하고…….

4장 ‘Serenity’는 평정과 평온이다. 거센 대해의 끝에서라도 언제인지도 알 수 없이 금세 잣아드는 파도. 인간의 여정, 그 끝없는 여정에서 찾아오는 평온함이 내 안의 또 다른 나를 발견할 기회를 준다. 새로운 사랑, 가슴 벅찬 희망과 설렘 안에서, 다시 조용해지고 ‘고요의 바다’가 찾아든다.

마지막 에필로그는 ‘Dawn’, 새벽이다. 동이 틀 무렵. 바다는 그 끝을 알 수 없는 영험함과 영원을 보여준다. 마치 창 너머로부터, 그리고 내 발끝부터 온몸으로 감싸오는 새벽이 시작과 끝의 경계를 알 수 없게 만든다.

그 날의 바다가 늘 눈앞에 어른거린다. 우리의 생애도 보이지 않는 바다 위를 떠도는 여정과도 같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시작되는 또 다른 여정을 따라 끝없는 항해를 떠나는 것이다. 먼 먼 생의 바다로.

(이정윤 / 국립무용단 수석무용수)



섬과 갯벌 생명이 숨 쉬는 바다

몇 년 전 장흥에 작은 섬과 육지를 연결한 방조제를 걷어내고 바닷물이 소통하도록 다리를 놓았다. 그 결과는 놀라웠다. 악취가 나고 조개와 갯벌생물들이 살지 않던 주변 갯벌에 바지락이 자라고 망둑어와 낙지가 나타났다. 오직 물길만 열었을 뿐인데 이렇게 큰 변화가 나타날 줄 누가 알았겠는가. 그런데 어민들은 알고 있었다. 옛날부터 그곳은 최고의 바지락 밭이었고 낙지들의 터전이었기 때문이다. 새만금과 시화호를 보면 가슴이 아프다. 갯벌을 잃고 섬이 사라진 땅에서 무엇을 얻을 것인가. 바닷물이 통하지 않는 갯벌과 갯벌이 없는 섬은 상상하기 어렵다. 그곳은 어민들과 섬사람, 도요새와 칠개들, 낙지와 숭어들이 기대어 사는 터전이다.

● 섬과 通하다.

UN해양법 협약에 ‘바닷물로 둘러싸여 있으며, 만조일 때에도 수면 위에 있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육지지역’을 섬이라 규정했다. 이 중 유인도는 두 세대 이상 거주하고 물과 나무가 있어야 한다. 지구상에 있는 섬은 50만 개가 넘는다. 남한

에는 3,000여개, 북한에는 1,000여개의 섬이 있다.

역사적으로 보면 섬을 크게 주목하지 않았다. 겨우 조선 세종 이후 『지리지』에 본격적으로 섬 이름이 등장하는 것을 보면 불과 몇백 년 되지 않는다. 당시에도 겨우 목장, 수군진 정도로 관심을 가졌을 뿐이다. 인구가 증가하면서 농사지을 땅을 일구고 마을이 형성되면서 본격적인 섬생활이 시작되었던 것이다. 물론 섬에서도 선사시대 유물들이 패총 등에서 확인되기도 하지만 현재 생활하는 사람들과 관련성을 찾기는 어렵다.

이제 바다와 섬은 단순히 어업자원을 넘어서 경제수역(EEZ), 해양자원, 해양산업 등으로 해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섬에 대해 새롭게 주목을 하고 있다. 섬 영유권 분쟁의 이면에는 계량할 수 없는 자원을 차지하려는 의도가 숨겨져 있다. 이뿐만 아니라 해양을 활용한 다양한 레저활동이 새로운 관광유형으로 주목받고 있다. 폭넓게 해양레저와 해양문화를 포괄하는 해양관광이 육지관광에 싫증을 느낀 사람들에게 새로운 활력소가 되고 있다.

이렇게 섬과 바다의 가치는 자꾸 올라가는데 섬사람들은 자꾸 밖으로 나오려 한다. 이상하지 않은가. 자꾸 섬을 사려는 사람은 늘어 가는데 정작 수백 년 동안 섬을 지켜온 섬사람들은 왜 그곳을 떠나려 하는 것일까. 허물없이 지내는 섬 친구들에게 이야기하면 “니가 섬에 살아봐”라는 말로 정리한다. 정말 어쩌다 섬에 들어가 풍랑주의보라도 내려 사나흘 간혀 있어 보면 그 심정 이해할 것 같기도 하다. 또 원하는 날에 들어갈 수 없을 때는 더 미칠 지경이다. 접근성과 생산기반이



갯벌과 생명



갯골 생명을 품다

열악하고 교육과 문화기회가 부족해 젊은 층의 이도현상이 심각하다.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지 오래되었다. 이러한 문제는 정책의 문제이고 정치의 영역이다. 섬과 육지를 동등 위치에 놓고 정책을 결정할 때 섬은 늘 소외된다. 또 섬을 개발할 때도 육지 시작으로 접근하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일본의 어느 섬에는 “기선도 도로다”라는 말이 있다. 도로는 SOC 영역이다. 국가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영역이다. 우리 뱃길은 어떤가.

● 갯벌과 通하다.

‘개’는 ‘바다’를 의미하고 ‘벌’이란 육지의 너른 벌판을 의미한다. 갯벌은 바닷물이 빠지면 공기 중에 드러나고 물이 들어오면 바다가 된다. 수천 년 파랑작용과 조석

신안 다도해 섬과 갯벌



차, 굴곡이 심한 해안, 강물 등으로 인한 퇴적현상으로 형성된다. 바람에 의해 형성된 해안가의 너울 '파랑'과 밀물과 썰물의 조석 차이가 만들어낸 것이다. 동해안은 파랑은 있지만 조석차가 적어 갯벌이 발달하지 못했다. 즉 좋은 갯벌은 바닷물이 들고 나면서 만들어 낸 소통의 결과이다. 바닷물이 막히면 섬이 사라지고 갯벌도 사라진다. 그러면 섬과 갯벌이 무슨 상관관계가 있느냐고 물을 것이다. 둘의 관계는 보통 사이가 아니다. 밀월관계다. 정확하게 가늠해 보지는 않았지만 우리나라 갯벌의 절반 이상은 내륙에 접해 있는 것이 아니라 섬 주변에 있다. 이를 두고 '섬갯벌'이라 정의하기도 한다.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서해와 남해는 리아스식 해안이 발달해 일찍부터 갯벌이 발달했다.

갯벌은 조류에 의해 운반된 작은 모래나 흙이 강 하구, 해안, 섬 주변, 바다 가운데 오랫동안 쌓여 생기는 평탄한 지형을 말한다. 바다의 너른 벌쯤으로 풀이하면 될 것 같다. 이를 두고 '간석지(干潟地)'라 한다. 사전에는 '밀물과 썰물이 드나드는 개펄'로 정의되어 있다. 갯벌과 개펄을 구분하기도 하지만 갯벌이 통용되고 있다. 이를 '연안습지'라고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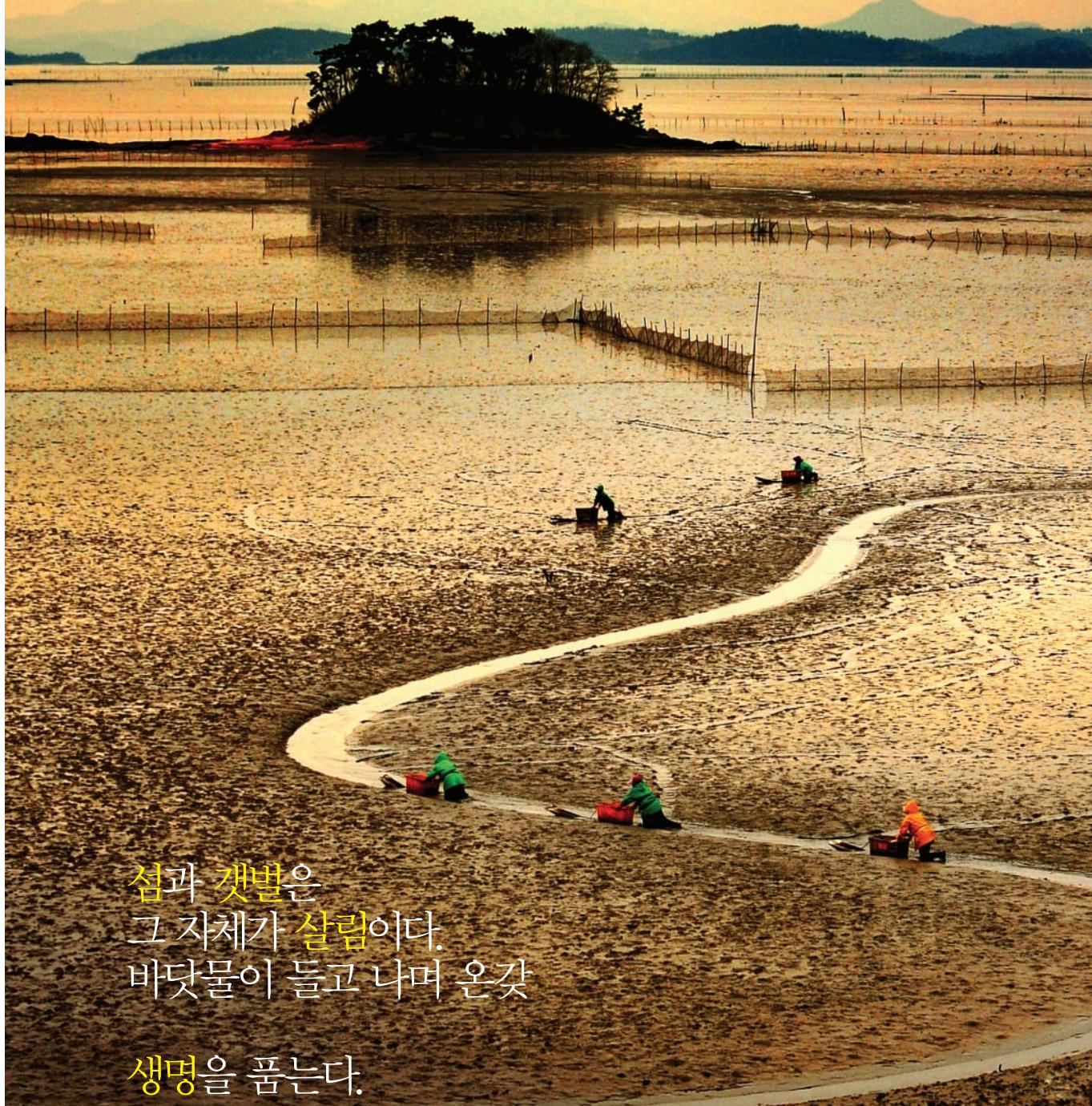
우리 갯벌은 강과 바다가 만나 만들어낸 영양 염류가 풍부하고 원시적인 생명성을 간직하고 있다. 다양한 서식 환경으로 생물 다양성이 높다. 한국의 서해 어류들은 70%가 서해갯벌에서 산란하고 자란다. 작은 규조류부터 인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생명들이 갯벌에 의존하며 살아가고 있다. 하천과 강과 갯벌과 섬과 바다로 이어지는 서해의 독특한 생태계는 다양한 문화를 만들어낸다. 최근에는 갯벌 축제와 생태관광의 자원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이외에도 수문학 및 수리학적 기능(자연댐, 수분조절), 기후 조절 기능, 수질오염 물질 제거 등의 기능을 한다.

갯벌이 가장 많은 곳은 전라남도와 인천이다. 왜 그럴까. 그곳에 큰 강이 있다. 그리고 다도해가 펼쳐져 있다. 서해안의 구불구불한 해안선이 직선으로 바뀌고 있다. 그 결과는 굴곡도에서 잘 드러났다. 서해안의 길이가 100년 전에 비해

40% 줄었다. 현재 서해안 굴곡도는 4.47이다. 1910년대에는 8.16이었다. 동해안의 0.97에 비하면 높지만 크게 줄었다. 간척으로 염습지와 갯벌, 사구와 하구, 좁은 만이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내륙 연안에 갯벌이 점점 사라지고 그나마 모양을 갖춘 갯벌은 섬 연안에 남아 있다. 그러니 섬과 갯벌은 뗄 수 없는 밀월관계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서해바다에서 서식하는 물고기 대부분은 갯벌에서 태어나고 자란다. 그래서 갯벌을 생물자원의 보고라고 한다. 지구상에 마지막 완전성을 갖춘 생태계다. 그래서 국제사회는 람사르협약에 의해 보전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습지보전법을 제정해 연안습지 보호지역을 지정했다. 또 세계유산에 등록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갯벌의 종류에 따라 서식하는 생물이 다르다. 인간들도 갯벌 생물처럼 그 곳에 기대어 살고 있다는 것이다. 갯벌을 어민의 저금통과 반찬통만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곳은 칠개와 도요새와 인간이 더불어 살아야하는 터전이다. 우리세대에 쓰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미래세대도 누려야할 자원이다.

섬과 갯벌은 그 자체가 살림이다. 바닷물이 들고 나며 온갖 생명을 품는다. 어민들은 물때에 맞춰 고기를 잡았다. 어린 조개가 자라는 곳에서는 호미질을 하지 않았다. 죽방렴이나 독살, 그러나 가래를 이용해 필요한 만큼만 잡았다. 정월이면 갯벌을 모시고 풍어에 감사하고 마을의 안녕을 빌었다. 그것이 '갯살림'이다. 인간도 갯벌 생물이다. 갯벌에 등장한 최후의 생물이다. 어민들은 공전의 유전자를 갖고 있었다. 나는 그들을 '어부'라고 부른다. 그들은 인간이기에 앞서 갯벌 생물이었다. '어업경영인'보다 어부가 더 좋은 이유다.

(김 준 / 전남발전연구원)



섬과 갯벌은
그 자체가 살림이다.
바닷물이 들고 나며 온갖
생명을 품는다.



독도의 해중림(海中林)

‘해중림(海中林)’이란 열대 밀림이 형성되듯 바닷물 속에 해조류가 막대한 번식을 하여 숲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해중림을 이루는 해조류는 생체량이 큰 갈조류이다. 이들은 영양 염류를 무제한적으로 공급받는 독특한 해양 환경 속에서 폭발적으로 증식하여 밀생하며, 그 해역의 일대를 점유한다. 이러한 대집단은 2~3종이 치열하게 경쟁하며 자리다툼을 한다. 이러한 밀생 속에서도 여러 종류의 해조류가 자생하며, 어류의 산란장소로 제공된다.

독도의 해중림의 특징은 무엇보다도 환상적으로 아름다운 해중경관을 펼치고 있다. 이곳의 해중림은 완전히 바다 속의 밀림이라고 할 수 있으며 천연 상태의 자연이다. 그 아름다운 경관은 어느 해역에서도 찾아보기 드물 만큼 수려하다.

독도의 해중림의 주역은 갈조류인 대황과 감태로 이 두 해조류가 빽빽하게 바다 숲을 이루고 있다. 다시 말해서 대황과 감태는 생태적으로 극상(climax)을 이루고 있으며, 절대적인 우점종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 해역이 서식의 최적지임을 보여 주고 있다.

독도 해역에서는 천연기념물인 대황과 감태 외에도 생체량이 크고 서식 환경이

광범위한 갈조류인 모자반, 미역, 다시마 등이 서식하고 있다.

독도 해역에는 해류의 흐름에 따라 모자반류가 대량으로 부유하고 있으며, 꽁치떼는 모자반의 엽체 위에 알을 낳아 번식한다. 그런데 이 시기는 공교롭게도 팽이갈매기의 번식기와 일치하고 있어서 꽁치의 알이 팽이갈매기 병아리의 먹이로 제공되고 있다.

독도 해역은 지극히 깨끗한 청정 해역으로서 최상의 해중림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자연보호의 측면에서 어로 활동으로 과도하게 저서생물을 채취해서는 안 되며, 또한 과도한 선박 운행이나 바닷물 속의 산업 활동, 관광목적의 생태계 교란도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독도 해역의 대황과 감태의 해중림은 세계적인 해중림의 명미라고 하겠다. 이러한 해중림과 더불어 자생하는 수많은 해양 생물군, 즉 각종 대소의 어류와 해조류는 서로 공조하여 해양 생태계의 자연 평형을 이루고 있다. 따라서 독도 해중림의 해역은 해양 생산성이 높고, 어군이 모여 들어 어장이 형성되는 소위 황금어장일 뿐만 아니라, 해양 생물학적으로도 독특한 해양 환경의 성격을 지니고 있어서 흥미로운 연구 대상이라고 하겠다.

(김기태 / 해동자연생태연구소)



독도의 해중림



세계의 바다로 뻗어나갈 전초기지, 이어도

2012년 3월 3일 중국의 한 고위 관계자가 중국 내 언론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어도에 대한 관할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이어도가 중국 관할 해역에 속해 있으며 감시선과 항공기 정기순찰 범위에 포함된다고 밀한 것이다. 이어도에 대한 중국의 야욕을 드러낸 이 인터뷰 내용이 국내에 알려지자 우리 정부는 즉각 이어도의 관할권 논란이 해양경계선 획정을 통해 해결해야 하는 문제임을 중국 측에 전달했다.

이어도는 마라도에서 남서쪽으로 149km 떨어진 곳에 있는 수중 암초다. 평균 해수면보다 4.6m 아래에 잠겨 있어 평소에는 눈으로 볼 수 없으며 높은 파도가 칠 때에나 그 모습을 드러내는 까닭에 ‘파랑도’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어도는 1900년 6월 5일, 제주도 남단 해역을 항해하던 영국 상선 소코트라호가 암초에 부딪히면서 그 존재를 세상에 드러냈다. 본격 탐사를 거쳐 해도에 ‘소코트라 암초(Socotra Rock)’라는 명칭으로 오르게 된 것이다.

우리나라는 1951년 국토규명사업의 일환으로 이어도 탐사를 시작하여 암초를 확인하고 ‘대한민국 영토 이어도’라고 쓰인 동판 표지를 바다 속에 가라앉혔다. 1987년에는 이어도 등부표를 설치하고 이를 국제적으로 공표했다. 그리고 16년



이어도종합해양과학기지

후인 2003년 마침내 첨단 해양과학기지를 완공했다. 1995년에 착공해 장장 8년에 걸친 대공사 끝에 완공한 이 기지는 이어도 정봉에서 남쪽으로 약 700m 떨어진 곳에 해수면으로부터 높이 36m로 구축된 사각형 철제 구조물이다.

최첨단 해양·기상·환경 관측체계를 갖추고 해양 및 기상예보, 어장예보, 지구환경 문제 및 해상교통 안전, 연안재해 방지와 기후변화 예측에 필요한 자료를 실시간으로 수집·제공하는 종합과학기지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이어도 주변 해역이 해저 자원의 보고이자 해양과학의 전초기지이며 해양안보의 요충지이기 때문이다. 전설과 신화로 알려져 있던 이상향 이어도가 이제는 각국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얹힌 현실로 떠오른 것이다.

구로시오 해류와 서해의 한류, 그리고 중국 대륙의 연안수가 서로 교차하는 이어도 주변 해역은 플랑크톤이 풍부한 황금어장이다. 이처럼 어장형성에 필요한 좋은 환경을 고루 갖춘 해역을 우리나라 주변에서는 찾아보기 힘들며 세계적으로도 흔치 않다. 또한 서해와 이어도 주변의 원유매장 추정량은 약 77억 톤으로 세계 3대 유전지대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어도 주변 해역은 한국이 설정한 제4광구

에 속하며 천연가스와 원유부존량이 풍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게다가 우리나라 총 수출입 물량의 90% 정도가 이어도 남쪽 해상을 통과하며 특히 천연가스와 석유 수입량의 99% 이상이 이어도 해역을 통과한다.

이어도 관할권을 놓고 중국이 억지 주장을 내세우면서까지 야욕을 숨기지 않는 것은 무엇보다도 해양 영토 확장에 대한 욕심 때문이다. 한국과 중국은 모두 이어도 관할권 문제가 양측의 배타적 경제수역 획정 문제라는 데에는 동의하고 있다. 이어도는 한국과 중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이 겹치는 해역에 위치하고 있지만 한국의 마라도에서 서남쪽으로 149km 떨어진 반면 중국에서는 서산다오(余山島)를 기점으로 하여 287km 떨어져 있다. 배타적 경제수역이 겹치는 해역은 협상을 통해 경계선을 획정할 필요가 있는데 이어도 해역은 한국에서 훨씬 가깝다. 또한, 배타적 경제수역이 중복되는 당사국들 간 협상에서는 양국 연안의 중간선을 적용하는 것이 국제법상 관례다. 이런 국제관례에 따라 이어도는 당연히 한국 해역에 속하는데도 불구하고 중국 측은 이를 무시한 채 대륙붕 퇴적물과 중국의 긴 해안선 등을 감안해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계를 이어도 동쪽에 그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2012년 4월, 독도와 이어도를 포함해 해양 영토 전체를 적극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 제정을 추진하고 나섰다. 해양경계가 정해지지 않아 발생하는 주변국과의 갈등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해양영토관리기본법’을 제정하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이 법이 제정되면 경계가 확정되지 않은 수역을 포함해 우리나라 관할 해역을 기능에 따라 분류하고 해역별 종합관리 기본계획도 수립하기로 했다.

이어도는 넓고 넓은 세계의 바다로 뻗어나갈 희망의 전초기지다. 전 세계 해양의 45%에 해당하는 태평양으로 향하는 길목에 위치한 이어도를 교두보 삼아 우리나라를 새로운 해양시대의 주역으로 발돋움해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 사단법인이어도연구회, 『이어도 바로알기』, 2011)



이어도는 넓고 넓은
세계의 바다로 뻗어나갈

희망의 전초기지다.



그 섬에 가고싶다

우리나라에는 섬이 참 많다. 정부의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섬 개수는 유인도 470개, 무인도 2,767개로 모두 3,237개라고 한다. 이들 중 제주도, 울릉도, 독도 등의 화산섬을 제외하면 대부분 해수의 침수작용으로 육지와 분리되면서 높은 부분이 남은 육도다.

강화도, 제주도, 진도 등과 같이 비교적 큰 섬에는 선사시대의 유적이 발굴되어 오래 전부터 인간이 거주해왔으며 문화전파의 통로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제주도, 보길도 등은 유배지로 많이 이용되었는데, 이곳으로 유배 온 김정희, 윤 선도 등의 활동으로 유배지 문화가 형성되기도 했다.

우리나라는 섬 주변 해양의 수심이 낮고 조류와 수온이 적당해 천혜의 어장을 이룬다. 또한 자연경관이 아름다워 관광지로도 더할 나위 없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 2008년 6월 행정안전부와 한국관광공사가 ‘휴양하기 좋은 섬 30곳’을 선정해 발표한 적이 있다. 풍광이 수려해 누구나 한번쯤 가고 싶어 하는 섬, 그곳은 어디일까?

충남 보령의 외연도는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연기에 가린 것 같다는 의미로

붙여졌으며 실제로 짙은 해무가 섬을 감쌀 때가 많다. 때문에 쉽사리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신비함을 간직하고 있다. 천연기념물 136호로 지정된 상록수림은 외연도의 자랑이다. 포구 뒤편에는 독수리바위, 병풍바위 등 각종 기암괴석이 장관을 이루며 훌륭한 갯바위 낚시 포인트이기도 하다.

전남 완도의 청산도는 황토 빛 길이 수놓인 보리밭과 유채꽃, 주변 산과 바다 등 수려한 자연 경관과 각종 지석묘, 초분, 구들장 등 인문자원이 풍부하다. 아시아 최초의 슬로시티로 지정되었으며, 드라마 〈여인의 향기〉, 〈봄의 월츠〉, 영화 〈서 편제〉 촬영장으로 푸른 바다, 푸른 산, 구들장 논, 돌담장, 슬로우길 등 느림의 풍경이 가득한 곳이다.



은상_등대섬(이은경)

경남 통영의 소매물도는 풍경이 아름다워 관광객뿐 아니라 사진작가들이 많이 찾기로 유명한 섬이다. 하루 두 번, 썰물 때만 나타나는 몽돌밭길을 건너면 등대섬을 만날 수 있다. 소매물도와 등대섬 사이의 해안암벽이 장관을 연출한다. 특히 등대섬은 푸른 초지로 이뤄진 섬 정상에 하얀 등대 하나가 외로이 서 있는 풍경이 수많은 사진과 영상에 담겼을 정도로 아름답다.

전남 신안의 가거도는 중국 상하이에서 우는 닭의 울음소리가 이 곳까지 들린다고 할 만큼 중국과 가까이 위치한 우리나라 최서남단 섬이다. 섬 전체가 후박나무 군락지이며 주변 해역은 수심이 깊고 해저가 대부분 암초지대로 이뤄져 있어 감성돔, 돌돔, 볼락의 낚시터로 각광받고 있다. 가거도란 이름은 '아름다운 섬'이라는 뜻의 가가도(嘉佳島, 可佳島)로 불리다가 1896년에 '가히 살만한 섬'이란 뜻의 가거도(可居島)로 불리게 됐다고 한다.

제주시 한림읍에 위치한 비양도는 비교적 덜 알려져 스쿠버다이빙이나 바다낚시를 즐기려는 사람들이 많이 찾는 작은 화산섬이다. 섬의 중앙 산봉우리에 약 3만 평 넓이의 분화구 두 개가 분지를 이루고 있다. 드라마 <봄날>의 촬영지로 한림공원, 협재해수욕장, 한림항 등과 연결되어 특이한 경관을 자랑하고 있다.

전남 신안의 홍도는 섬 전체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될 만큼 기암괴석과 노송, 동굴의 절경이 뛰어나 세계적으로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섬이다. 섬 주위에 펼쳐진 크고 작은 무인도와 절벽들은 오랜 세월의 풍파로 형언할 수 없는 절경을 이루고 있다. 눈이 시리도록 푸른 바다와 울창한 숲의 조화가 절묘해서 다도해의 진주로도 불리며, 물이 맑고 투명해 바람이 없는 날에는 10m가 넘게 들여다보이는 바다 속 풍경 또한 신비롭기 그지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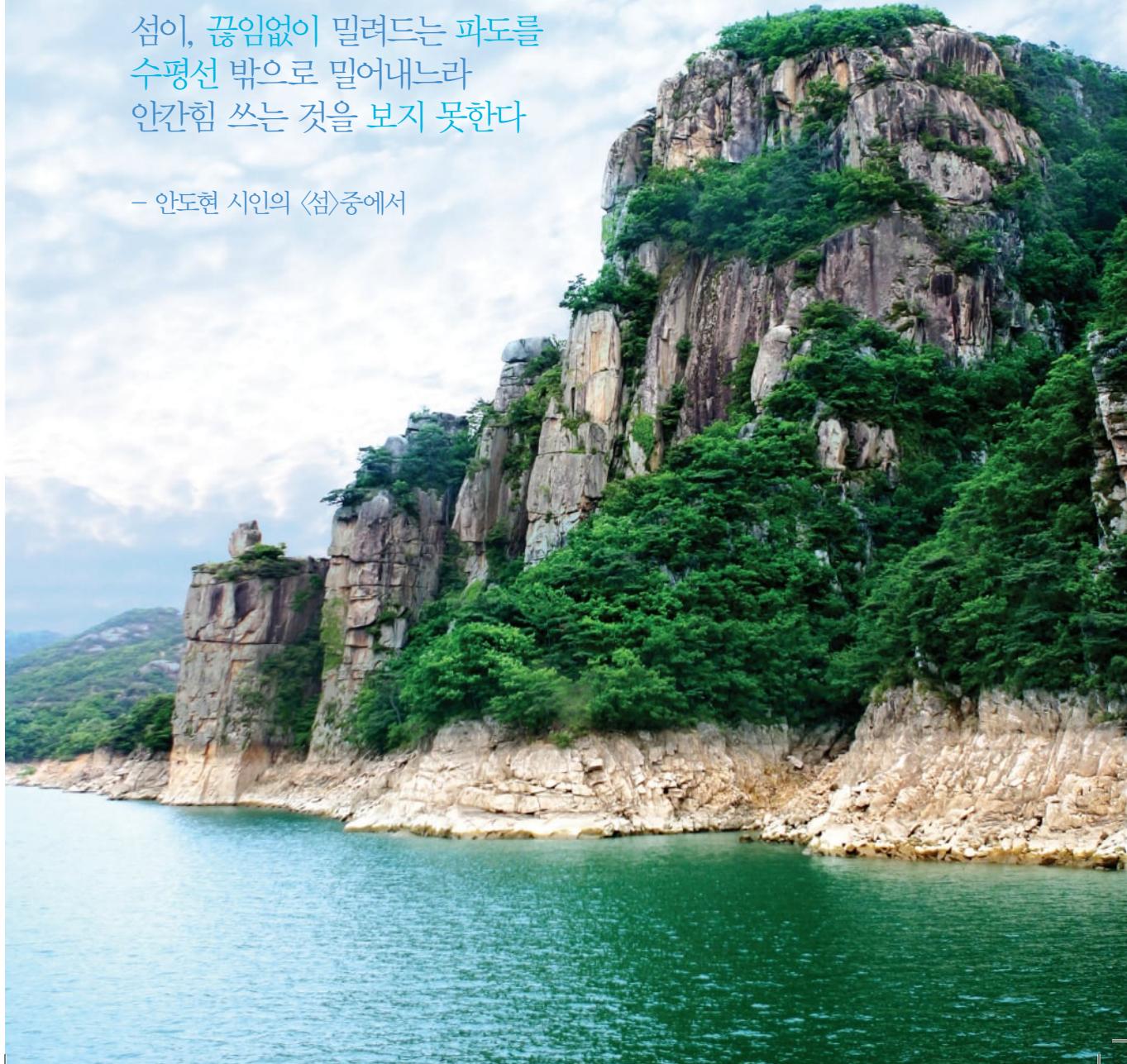
2008 휴양섬 베스트 30선

섬, 하면 가고 싶지만
섬에 가면 섬을 볼 수가 없다

지워지지 않으려고
바다를 꽉 붙잡고는

섬이, 끊임없이 밀려드는 파도를
수평선 밖으로 밀어내느라
안간힘 쓰는 것을 보지 못한다

– 안도현 시인의 〈섬〉중에서





배들의 이정표이자 삶의 길잡이

얼어붙은 달그림자 물결 위에 자고
한 겨울의 거센 파도 모으는 작은 섬
생각하라 저 등대를 지키는 사람을
거룩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마음을
– 양희은의 노래 <등대지기> –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린 바다는 고요하고 무섭다. 이정표 하나 없는 해상에서 목적지까지 가는 여정은 결코 만만치 않다. 섬, 곶, 암초, 여울, 항만의 출입구 등에 설치된 등대는 막막한 바다 위를 나아가는 배들에게 길을 알려주고, 선원들의 두려운 마음을 안심시켜주는 바다 지킴이다.

등대는 빛, 소리, 전파 등 세 가지 방법으로 배에게 항로를 알려준다. 등대의 빛은 일반적으로 5km 해역에서도 볼 수 있게 설계되어 있다. 배를 타고 입항하다가 유심히 보면 항구 입구에 위치한 두 개의 등대가 똑같은 색이 아니라 하나는 붉은색, 하나는 하얀색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등대에 사용되는 색은 적색, 녹색, 황색,

백색 등이 있다. 일반적으로 등대원이 등대에 상주하면서 각종 항로표지 및 기기의 관리와 운영을 도맡아 하는 유인등대는 백색을 사용하고, 독자적인 자동설비에 의하여 관리인 없이 운영되는 무인등대는 그 위치에 따라 백색, 적색, 녹색을 사용한다.

등대의 색깔은 미관상의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기능적인 측면에서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항해하는 선박이 바다에서 항구로 들어올 때 좌측에는 하얀 등대를, 우측에는 빨간 등대를 설치하고 있다. 야간에는 하얀 등대에 녹색등을, 빨간 등대에 적색등을 점등하여 선박이 녹색등과 적색등 사이로 들어오면 안전하게 입항할 수 있다.

흔히 등대지기라고 불리는 등대원은 정해진 시간에 등대의 불을 켜고 끄며, 일일이 손으로 불을 켜고 끄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불이 켜지고 꺼지는 자동 장치일 경우에는 그것을 조종한다. 등대원은 가족과 함께 등대원 숙소에서 생활하기도 하고, 근무지에 따라 외딴섬에서 가족과 떨어져 생활하기도 한다. 외딴섬의 등대에서 근무하는 등대원의 경우에는 매달 1회 등대업무용 배를 통해 정기적으로 생활필수품 등을 보급받는데, 대부분의 경우 식수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12년 1월 국토해양부는 우리나라에 있는 39개의 유인등대 중 해안경관이 수려하여 연간 10만 명 이상 방문하는 8개를 해양문화공간으로 지정했다. 인천 팔미도등대, 부산 영도등대, 제주 우도등대, 여수 오동도등대, 경남 소매물도등대, 강원 동해 묵호등대, 강원도 속초등대, 울산 간절곶등대 등이 그것이다.

인천 팔미도등대는 우리나라 최초의 등대다. 1901년 일본이 우리 정부와 체결한 ‘통상장정(通商章程)’에 “한국 정부는 통상 이후 각 항을 수리하고 등대와 초표(礁標)를 설치한다”고 한 조항을 들어 등대 건설을 강권함으로써 1903년 6월 1일 해발 71m의 팔미도 꼭대기에 최초의 등대로 세워졌다.

팔미도등대는 외압에 의해 세워졌지만 아픈 추억만 있는 것은 아니다. 한국전쟁 당시 인천상륙작전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했다. 2003년에

새 팔미도등대가 신축되었으며, 옛 팔미도등대는 인천시 지방문화재로 지정되어 원형 그대로 보존되고 있다. 100년 넘게 부산 태종대 해안 절벽에 서 있는 영도등대는 부산에 3개 남은 유인등대 가운데 하나다. 2004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해양문화공간으로 변신해 관광객의 발길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1906년 3월 처음으로 불을 밝힌 제주 우도등대는 우리나라 최초로 등대 테마공원을 조성해 해양관광 상품을 개발한 곳으로 잘 알려져 있다. 이곳에서는 등대의 역사와 역할, 빛의 근원인 등명기, 등대원의 생활 등 등대에서 일어나는 재미있는 얘기들을 접할 수 있다.

여수 오동도등대는 1952년 5월 최초로 점등되었으며, 2002년 높이 27m의 백색 팔각형 철근 콘크리트 등탑으로 개량했다. 등탑 내부에 8층 높이의 나선형 계단구조를 갖추고 있으며, 등대를 찾는 관광객들이 여수 앞바다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외부에 전망대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다.

경남 소매물도등대는 1917년 무인등대로 건립되었으나, 1940년 유인등대로 전환됐다. 16m 높이의 하얀색 원형 등탑은 등대섬의 수려한 풍광과 어우러져 이국적이고 고풍스러운 자태를 자랑한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등대로 손꼽는 이들이 많아 여행관련 잡지에도 자주 소개되며, 영화와 광고 촬영의 단골무대다.

1963년 6월 첫 불을 밝힌 묵호등대는 1968년 영화 <미워도 다시 한 번>의 촬영 무대이기도 하다. 2009년에는 등대 아래에 설치된 출렁다리가 TV드라마 <찬란한 유산>에 등장하면서 젊은 연인들의 순례지로 부상하기도 했다.

1957년 6월 처음으로 점등한 속초등대는 속초8경의 하나로 주변경관이 빼어나다. 속초 시가지와 동해바다, 설악산, 멀리 금강산 부근까지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조망할 수 있다.

울산 간절곶등대는 언덕 위에 있어 주변을 조망하기에 좋다. 1920년 3월에 점등되었으며 해맞이로 유명한 곳이다. 세계에서 가장 큰 우체통이 있고, 등대 홍보관 등이 있다.

그밖에 고정관념을 뒤집는 이색 등대들도 많다. 부산에서는 영도등대 이외에도 개성 있는 생김새를 자랑하는 조형 등대를 곳곳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야구에 열광하는 도시답게 2008년 베이징올림픽 우승을 기념해 세워진 야구 등대는 야구방망이, 야구공, 글러브를 형상화했다. 다산과 풍요의 메시지를 담은 젖병 등대도 있다. 등대 몸통에 어린아이 114명의 손과 발을 핸드프린팅한 도자가 장식돼 있다. 차전놀이 등대, 마징가제트 등대, 월드컵 등대도 있다.

울산 정자항에는 귀신고래등대가 있다. 남방파제는 흰색, 북방파제는 빨간색 귀신고래가 수면 위로 힘차게 솟구쳐 오르는 모습을 형상화한 등대로 고래 도시 울산을 상징화했다.

동해안을 따라 북쪽으로 올라가면 다양한 조형물 등대를 만날 수 있다. 양양군 강현면 물치항과 현북면 기사문항 방파제의 송이등대, 삼척시 원덕읍 갈남리 신남항 방파제의 남근등대, 동해 어달항의 횃불등대, 동해 대진항의 봉화대등대, 동해 북호항의 에펠탑등대, 강릉 주문진항의 오징어등대 등이다.

아무리 뛰어난 위성항법 장치가 생겨나도 등대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위성항법 장치를 장착하지 못하는 배도 있고, 기계가 갑자기 작동 불능 상태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등대는 앞으로도 예전처럼 말없이 임무를 완수할 것이다. 등대는 암흑 속을 항해하는 배들의 이정표이자 삶의 길잡이이기도 하다. 바다가 있고, 배가 있고, 인생이 있는 한 등대는 언제까지나 사람들과 애환을 함께 나눌 것이다.



제주 우도등대



혹부리 바닷물고기의 사랑이야기

우리나라의 제주 연안에는 제주 방언으로 어랭이(표준명 황놀래기)나 코생이(표준명 참놀래기)로 불리는 놀래기 종류가 많다. 흔히 우리들이 볼 수 있는 놀래기는 크기가 전장 20~25cm에 불과하며 사실 20cm 이상의 큰 놀래기는 보기가 매우 어렵다. 하지만 같은 놀래기과에 속하면서 크기가 전장 1m까지 성장하는 대형 놀래기가 한 종 있는데 그것이 바로 혹돔이다.

혹돔의 제주 방언은 웨이이며 학명은 *Semicossyphus reticulatus*이다. 혹돔의 영명은 Bulgyhead wrasse인데 여기서 bulgy라는 의미는 부풀어 올랐다는 뜻으로 머리가 부풀어 올랐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wrasse는 놀래기를 총칭한다.

대형 관람형 수족관을 가면 사람을 따라다니는 흥측하기도 하면서도 자꾸 보면 귀여운 물고기가 있는데 이 물고기는 대부분 혹돔이거나 혹돔의 유사종이다. 전체적으로 언뜻 보면 흥측하면서도 어딘지 조금 음탕한 듯한 모습, 톱 튀어 나온 이마, 반쯤 감은 듯하지만 자세히 보면 날카롭게 째려보는 푸른 눈, 둔탁하고 톱 튀어 나온 아래 턱 그리고 입 밖으로 살짝 드러내 보이는 무서운 송곳니……, 어느 누가 보아도 금방 정(情)이 들 수 있는 모습은 절대 아니다.

더군다나 이런 모습을 가진 흑돌은 격렬한 사랑을 한다. 암컷을 쟁취하기 위하여 매우 열렬한 사랑의 행동을 한다. 마치 번식기에 들어간 아프리카 초원의 사자 무리에서 모든 암컷을 쟁취하기 위하여 목숨 걸고 싸우는 수컷 사자들의 다툼처럼…….

제주바다에서 흑돌의 산란기는 6월부터 시작하여 여름이 끝날 때까지 이루어진다. 박진감 넘치는 산란행동은 그 광경을 지켜보는 연구자들을 무아지경으로 몰아부친다. 밖은 이미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고 주변이 깜깜하게 어두워진 것도 모를 정도로…….

흑돌의 나라에서 서열은 분명하다. 서열 1위, 그리고 2위와 3위가 있으며 2위와 3위는 언제든지 1위의 자리를 넘본다. 서열 1위가 되기 위하여 입을 크게 벌리고 자신을 과시하지만 거의 서열에는 변동이 없다. 서열 2위와 3위는 산란기가 끝나면 상처투성이가 되어 다음 기회를 노리면서 구석자리로 사라진다. 서열 싸움에서 승리한 수컷(등쪽이 노란색을 띠며 흑이 많이 나온 개체)은 암컷(전체적으로 붉은색을 띠는 크기가 비교적 작은 개체)을 독차지하고 수조 바닥에서 수면까지 화려한 춤을 선보이고 수면을 박차 오르면서 투쟁에서 승리의 쟁취물로서 산란을 독점한다. 승리를 쟁취하면 수컷은 반드시 암컷과 함께 짹짓기 행동을 하게 된다.



약간 으스스한 분위기를 느끼게 하는 흑부리 바닷물고기 흑돌의 성체(왼쪽)와 어미와 달리 아주 귀엽고 활달한 흑돌의 어린 새끼들(오른쪽)



짝짓기 계절이 다가오면 수컷이 암컷을 쫓아다니는 횟수가 점점 많아지며 (좌), 수컷의 서열이 정해지면 본격적인 짹짓기를 시도한다(우. 체색이 밝고 흑이 있는 것이 수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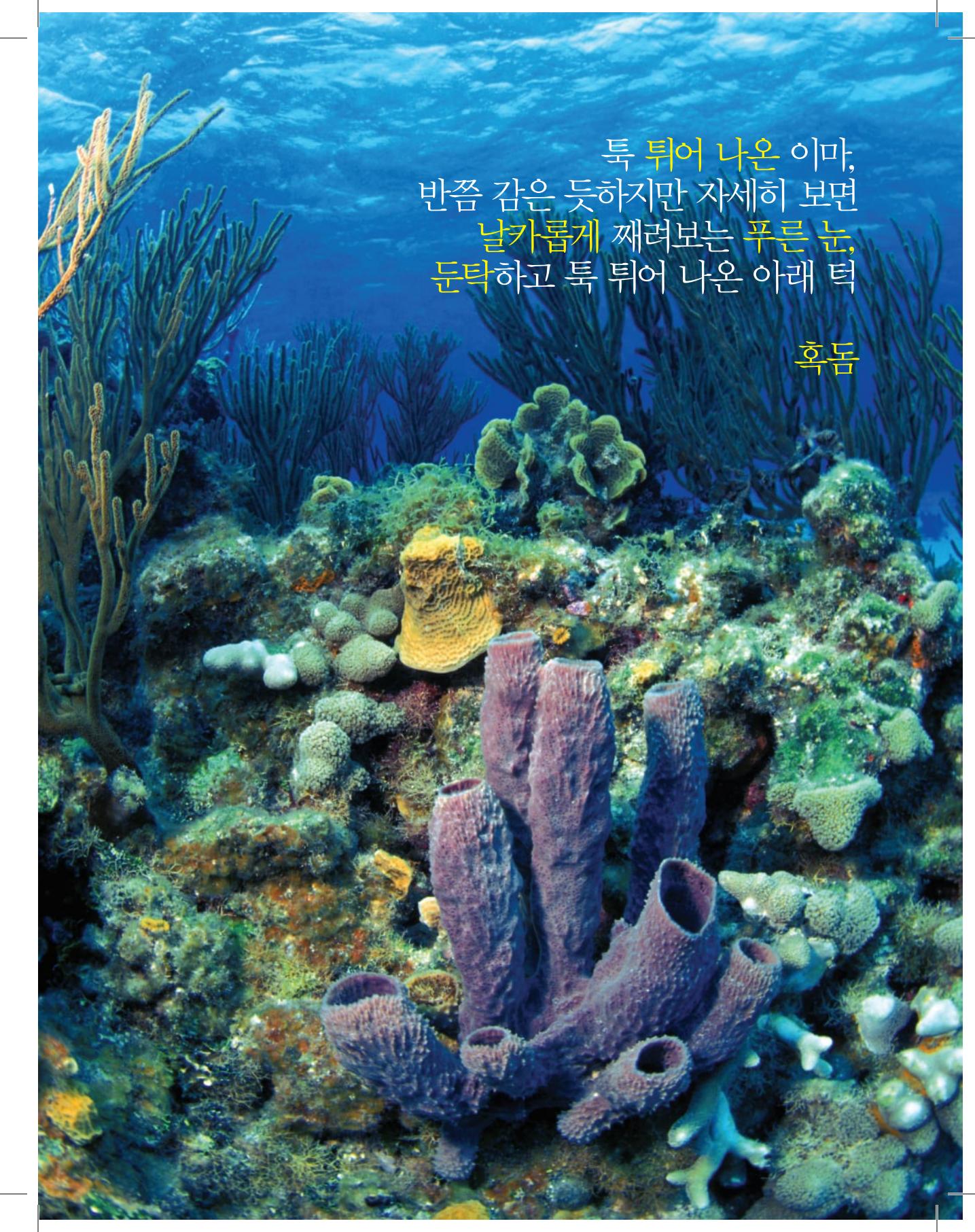
암컷과 짹짓기를 하는 결정적인 순간 (왼쪽). 수컷이 암컷의 뒷부분 또는 옆 부분을 스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수컷은 격렬한 몸부림과 함께 온힘을 다해 산란하게 된다.



격렬하고 감동적인 짹짓기 순간에 수컷은 몸을 수직으로 세워 모든 임무를 완수하고 암컷 곁을 떠나게 되지만 이러한 행동은 산란 기간 동안 계속 반복된다. 반복되는 산란행동으로 체력을 소진 할 경우, 서열 2위나 3위의 수컷으로 부터 공격을 받고 무리에서 퇴출당하기도 한다.

이렇게 태어난 흑돔의 어린 개체는 주황색을 띠는 갈색 몸에 가로로 흰색의 줄 무늬가 한 줄 있다. 어미와는 매우 다른 모습으로 아직 혹은 없다. 혹은 성장하면서 나타나는데 특히 수컷에서 눈에 띠며 그 무리에서 우두머리의 흑이 가장 크다. 이처럼 어린 흑돔과 다 자란 흑돔의 형태와 체색(體色)이 달라서 다른 어종으로 오인하기도 한다. 흑돔 성어의 최대 크기는 전장이 1m, 체중은 14.7kg까지 성장한다.

(정민민 / 미래양식연구센터)

A vibrant underwater photograph of a coral reef. The scene is filled with various types of coral, including large, textured barrel sponges in shades of purple and pink, and more delicate, branching corals in shades of green and yellow. Sunlight filters down from the surface in the background, creating a dappled light effect on the reef. The water is a clear, deep blue.

툭 튀어 나온 이마,
반쯤 감은 듯하지만 자세히 보면
날카롭게 째려보는 푸른 눈,
둔탁하고 툭 튀어 나온 아래 턱

흑돌



스토리가 있는 수산물 이야기

반도국의 특성상 우리나라는 어종이 다양하기로 손꼽히는 나라 중 하나다. 생선의 종류가 워낙 많다보니 이름마다 그 유래를 밝히기도 쉽지 않은 일이다. 임연수어, 균평선이, 도루묵처럼 특별한 유래가 있거나 꽁치, 갈치처럼 한자어에서 변용된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생김새나 특징을 빗대어 지어진 이름이 많다. 알고 보면 재미있는 생선 이름들을 살펴보자.

‘임연수어’는 사람 이름이 생선 이름으로 굳어졌다고 한다. 옛날 함경북도에 임연수(林延壽)라는 사람이 바다에 나가기만 하면 이 고기를 많이 잡아왔는데 비린 내가 나지 않고 소금구이를 하거나 튀기면 껍질 맛이 일품이었다. 그래서 주위 사람들에게 ‘임연수가 낚은 고기’라고 전해지다가 그 이름이 아예 생선명이 됐다는 것이다.

‘균평선이’라는 이름도 개성이 넘친다.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 직전 전라좌수사로 여수에 부임했을 때 어느 날 아침 이 생선이 상에 올라왔다고 한다. 너무 맛이 좋아 시중을 드는 이에게 고기의 이름을 물어보았더니 아무도 이 고기의 이름을 모른다고 했다. 이순신 장군은 시중을 드는 이의 이름이 ‘구평선’ 인지라 “그럼

이제부터 ‘평선이’라 불러라” 해서 ‘평선이’가 되었는데, 그 후로 구워서 먹으면 특히 맛이 좋았기에 ‘평선이’ 앞에 ‘군(구운)’자가 붙기 시작하면서 ‘군-평선이’라는 이름이 되었다고 한다. ‘임연수어’와 ‘군평선이’라는 이름은 둘 다 사람 이름에서 유래된 셈이다.

‘명태’도 마찬가지의 경우다. ‘명태’라는 이름은 “함경북도 명천에 ‘태’라는 성의 어부가 있어 어떤 물고기를 낚아 부엌살림을 맡아 보는 관리로 하여금 도백에게 바치게 했는데, 도백이 이를 아주 맛있게 먹고 그 이름을 물었으나 아무도 알지 못하였다. 그래서 도백이 그 지방의 ‘명’자와 어부의 성 ‘태’자를 붙여 ‘명태’라 부르게 하였다. 이로부터 이 물고기가 아주 많이 잡혀 전국에 넘쳤다”는 전설에서 비롯되었다. 이 이야기는 조재삼의 『송남잡지』와 조선 후기의 문신 이유원이 편찬한 『임하필기』에 전해져 내려온다.

가장 오래된 명태 기록은 조선 중기에 이행, 흥언필이 편찬한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여기에는 ‘무태어’라는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다. 조선 정조 때 학자 이만영이 쓴 『재물보(才物譜)』에는 “북해에서 나므로 ‘북어’라 한다”는 기록이 있다. 이규경의 『북어변증설(北魚辨證說)』에서는 봄명태는 춘태, 겨울명태는 동태라 하였으며, 서유구의 『난호어목지(蘭湖魚牧志)』에는 “생것을 ‘명태’, 건조한 것을 ‘북어’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오늘날에도 보통 이렇게 구분하여 부른다.

‘도루묵’이라는 이름은 정조 때 이의봉이 편찬한 『고금석립』과 조재삼의 『송남잡지』에 전한다. 『고금석립』에 의하면 “고려의 왕이 동천(東遷)하였을 때 목어를 드신 뒤 맛이 있다 하여 은어로 고쳐 부르라고 하였다. 환도 후 그 맛이 그리워 다시 먹었을 때 맛이 없어 다시 목어로 바꾸라 하여, ‘도루묵’이 되었다”고 한다. 한편으로는 조선시대에 선조가 함경도로 피난 갔을 때에 있었던 일이라고도 한다.

‘굴비’에 관해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도 있다. 고려시대 영광에 유배를 당한 이자겸이 왕에게 염장 조기를 진상하면서 “선물은 보내도 굴한 것은 아니다”고 ‘굴비’(屈非)라 적어 보낸 것이 이름의 유래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지역에서 전하는 이야기일 뿐이지 사실(史實)이 아니다. 굴비라는 이름은 조기를 짚으로 엮어 매달면 구부러지게 되는데 그 모양새를 따서 구비(仇非) 조기라고 하던 것이 굴비로 변한 것이다. ‘구비(仇非)’는 우리 말의 산굽이, 강굽이처럼 구부러져 있는 모양새를 일컫는 ‘굽이’를 한자 어로 표기한 것이다.

‘가자미’라는 이름의 어원은 전래설화에 잘 나타나 있다. 가자미는 전처 자식을 몹시 미워하던 계모가 죽어서 태어난 것으로서, 생전에 하도 전처 자식에게 눈을 훌긴 까닭에 그 죄로 눈이 한 쪽으로 몰려 붙었다는 것이다. 이 전설로 유추해 볼 때 가자미는 계모를 뜻하는 ‘갓(가죽-겉-거짓)’과 ‘어미’의 합성어로 된 말로 실 어미가 아니라 겉 어미, 형식적인 거짓 어미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갈치’는 칼같이 길고 날카롭게 생긴 모양에서 붙여진 한자어 이름 ‘도어(刀魚)’가 ‘칼치’, ‘갈치’ 등으로 바뀐 것으로 보인다. ‘꽃게’라는 이름도 생김새 때문에 붙여진 것이다. 우리말 중에 ‘꽃’이 있다. 바다로 가늘게 뻗어있는 육지의 끝 부분을 이르는 말이다. 등딱지의 양옆이 가시처럼 빼죽 튀어나온 꽃게는 꽃과 게가 합쳐진 말이라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낙지’라는 이름은 8개의 발이 얹혀 있다는 뜻에서 ‘얽을 락(絡)’과 ‘발 제(蹄)’자의 ‘낙제’인데 ‘낙지’로 변음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북한에서는 낙지가 오징어로, 오징어가 낙지로 불린다. 북한의 조선말대사전에 낙지가 “다리가 10개로 머리 부위 양쪽에 발달한 눈을 갖고 있다”고 서술하고 있듯이 북한의 수출용 낙지의 포장에는 다리가 10개 달린, 우리가 말하는 오징어가 들어있다.

또 ‘곰치’나 ‘물곰’은 크기가 1m 가량인 거무스레한 물고기가 바다 속을 휘젓는

명탁 [명탁] myeong-tag 国	萬 <small>まん</small> ならないよ うに 辣辛をこした 潤酒 <small>だく・じょく</small> .
명탁 【命濁】 myeong-tag 国	【佛】命濁 【えい】；末世 <small>まつ</small> に 到 <small>いた</small> なつて 人間 <small>じんげん</small> の 寿命 <small>じゅめい</small> が 短 <small>たん</small> くなること。
명태 [명태] myeong-tae 国	【魚】明太 <small>めいだ</small> ； 助宗鰐 <small>すけむね</small> ； —deog 国 明太を干す棚。
명토 【名一】 myeong-to 国	わざわざ指摘 <small>てき</small> して 言 <small>い</small> う 名前 <small>なまえ</small> や 説明 <small>せつめい</small> 等など。— 박 다—bag-dda 国 指名 <small>てきめい</small> する；指摘 <small>てき</small> す る。¶～ 박아 말하다 指摘 <small>てき</small> して 言 <small>い</small> う。
명토 【冥土】 myeong-to 国	【佛】冥土 <small>めいど</small> [冥途] <small>めいと</small> ¶

일본에서도 명태는 ‘명태(멘타이)’로 불린다.

모양이 마치 곰 같다고 해서 붙여졌다고 한다.

민물과 바닷물을 오가며 생활하는 송어는 이름이 많기로 유명하다. 평북 어용도에서 경남 봉암도까지 각 지방별로 부르는 방언 이름이 대충 잡아도 100개나 넘는다고 하니 이름수만으로 따지면 으뜸이다. 평북지방에서는 3월초 꽃샘추위 때문에 무리에서 떨어져 길을 잃고 해매다가 잡힌 놈을 ‘굴목승어’, 늙은 송어는 ‘나머렉’이라고 부른다. 한강 하류 지방 사람들은 7월 송어를 ‘게걸승어’라고 하는데 이는 산란 직후 뼈 밭에서 게걸스럽게 먹이를 먹는 모습에서 비롯됐다. 전라도의 경우 영산강변 명산에서는 성장과정에 따라 ‘모쟁이→모치→무글모치→댕기리→목시락→승어’라 부르며, 강진에서는 ‘모치→동어→모쟁이→준거리→승어’라고 부른다. 우리 선조들은 송어(崇魚)나 수어(水魚, 首魚, 秀魚)라고 불렀는데 그 모양이 길고 빼어난 때문이다.

매운탕이 일품인 ‘삼식이’는 표준어로는 ‘삼세기’지만 전라도 방언인 삼식이가 훨씬 귀에 익숙하다. 강원도에서는 ‘삼숙이’, 경남에서는 ‘탱수’로 통하는 이 생선은 ‘아귀’와 더불어 가장 못생긴 생선으로도 꼽힌다. 전라도에서 ‘겉은 좀 어벙하고 거시기 해도 속은 꽉 찬 사람’을 가리켜 ‘삼식이’라 부르는 데서 생선 이름이 그렇게 붙여졌다 한다.



바다에서 건져올린 속담 이야기

지금도 시장에 가면 생선가게 아주머니들이 목청껏 호객을 하는 가락 속에서 ‘봄 도다리, 가을 전어’, ‘봄 조개, 가을 낙지’ 등을 흔하게 들을 수 있다. 계절에 따라 달이 차고 지면서 찾아오는 생선을 잡아 요기를 하고, 곡식과 옷감으로 바꾸는 등 바다에 의지해 삶을 꾸려온 바닷가 어부들은 일찍이 어느 달에 어떤 생선이 맛이 좋은지를 알고 있었던 것이다. 매달마다 생선과 관련된 속담이 있으니 말이다.

낚시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생선으로 손꼽히는 도미는 “5월 도미는 소 깁질 씹는 맛보다 못하다”, “2월 가자미 놀던 뻘 맛이 정월 도미 맛보다 낫다”는 등의 속담처럼 다른 생선의 맛과 비교할 때 인용되는 기준으로 많이 쓰였다.

회무침 맛이 일품인 가자미는 “가자미 놀던 뻘 맛이 도미 맛보다 좋다”는 속담으로 그 맛을 기대하게 한다. 또 “상제가 울어도 세상에 가자미 물어 가는 것은 안다”는 속담은 정신없어 보이는 사람도 제 속셈은 다 있다는 뜻이다.

조기에 관한 속담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3월 거문도 조기는 7월 칠산장어와 안 바꾼다”는 속담은 남해에서 잡히는 조기도 맛이 뛰어남을 강조하기 위해 7월 칠산 바다(서해안 영광 앞바다) 장어와 비교한 것이다. 이밖에 몹시 소란스럽다는 뜻의

“강경장에 조깃배 들어왔나”라는 속담도 있다. 승어의 맛과 포만감은 “태산보다 높은 보릿고개에도 송어 비늘국 한 사발 마시면 정승보고 이놈한다”는 속담을 통해 해학적으로 표현됐다.

“8월 그믐개는 꿀맛이지만 보름 밀월개는 개도 눈물 흘리며 먹는다”는 속담을 보면 조상들의 관찰력이 놀랍기 그지없다. 게는 달이 밝으면 먹이를 노리는 천적들 때문에 활동을 못한다. 달 밝은 밤에 게는 며칠을 굶으며 활동을 못하다보니 껍데기만 남아 너무 맛이 없어 견공도 눈물 흘리며 먹는다는 표현이 해학적이다.

속담이 많은 생선에는 전어도 있다. “전어 한 마리가 햅쌀밥 열그릇 죽인다”, “전어 머릿속에 깨가 서말”, “전어 굽는 냄새에 집나간 며느리가 돌아온다” 등의 속담이 있다. ‘썩어도 준치’라는 속담은 원래 본바탕이 좋은 것은 시간이 지나 낡고 헐어도 그 본 품을 잊지 않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좋은 일에는 방해하는 사건이나 귀찮은 일거리도 많아 무슨 일이나 다 좋을 수 없다는 뜻으로 “맛 좋은 준치가 가시도 많다”는 말도 있다.

애쓰던 일이 수포로 돌아가 혀고생을 했을 때에는 ‘말짱 도루묵’이란 말을 흔하게 사용한다. 열심히 했지만 결국에 모두 혀일이 됐다는 의미다. 명태에 얹힌 속담도 많다. 몹시 인색한 사람의 행동을 조롱할 때 “명태 만진 손 씻은 물로는 사흘 동안 국을 끓인다”는 말을 쓰고, 변변치 못한 것을 주면서 큰 손해를 입힌다는 의미로 “복어 한 마리 주고 제사상 엎는다”고 했다.

좋은 기회란 원한다고 해서 매번 오지도 않고 언제나 자기 마음에 드는 일만 생기는 것도 아니라는 의미로 “장마다 망동이 날까”라는 속담도 있다. 속이 좁고 너그럽지 못한 사람을 두고는 ‘저 벤댕이 소갈머리(소갈딱지)’라며 혀를 찬다.

원통한 일을 당하거나 원한을 가지고 이를 갈 때 “복어 이 갈 듯한다”는 말이 있다.



기을 전어

복어는 그물에 걸려 올라오면 이빨을 빠득빠득 갈며 성을 내고 배를 잔뜩 부풀리는 것에서 유래된 속담이다. ‘복어 한 마리에 물 서 말’이라는 속담은 복어가 가지고 있는 사람을 죽게 할 수도 있는 맹독을 없애기 위해 복어요리를 할 때는 많은 양의 물로 피를 충분히 씻어 버리라는 의미다.

‘메기 잔등에 뱀장어 넘어가듯’이라는 속담도 있다. 미끄러운 메기 잔등을 미끄러운 뱀장어가 넘어가니 오죽 잘 넘어 가겠는가. 이는 슬그머니 얼버무려 넘어가는 것을 빗댄 표현이다. “뱀장어 눈은 작아도 저 먹을 것은 다 본다”는 속담은 아무리 식견이 좁은 자라도 저 살 길은 다 마련하고 있음을 비유해 이르는 말이다.

“오뉴월 낙지는 개도 안 먹는다”는 속담은 산란기인 오뉴월의 낙지는 영양가가 다 떨어져 맛이 없어 쳐다보지도 않는다는 뜻이다. 덕분에 산란기를 맞은 낙지의 포획을 막을 수 있어 낙지 자원이 풍부해지므로 선조들의 지혜가 돋보이는 대목이다.

“멸치도 창자는 있다”는 속담은 아무리 하찮은 존재라도 나름대로의 개성을 갖고 있다는 말이다. 작다고 무시하지 말 것을 경고할 때 쓰는 말이다.

임연수어는 두꺼운 껌질이 맛있는 물고기로 유명한데 강릉 지역에서는 임연수어의 껌질을 벗겨 밥을 싸 먹는다. 그 맛이 워낙 좋아 “서해안 사람들은 숭어껌질에 밥 싸먹다가 가산을 탕진했고, 강원도 남정네는 임연수어 껌질 쌈밥만 먹다가 배까지 팔아먹는다”거나 “임연수어 쌈 싸먹다가 천석꾼이 망했다”, “임연수어 쌈밥은 애첩도 모르게 먹는다”는 속담까지 있을 정도다.

“청어 굽는 데 된장 칠하듯 한다”는 말은 조금 생소할지도 모르겠다. 청어는 된장을 칠해 구워먹으면 고소한 맛이 더하는데 다만 칠한 된장이 어떤 데는 붙어 있고 어떤 데는 떨어지게 마련이어서 아무래도 볼품이 없다. 화장이 서투르거나 연지나 분을 너무 많이 빌라 애써 치장한 얼굴이 엉망이 된 처녀들의 얼굴이 이와 비슷하다고 해서 이런 속담을 들기도 한다.

“흑돔 비늘 한 장 보고 30리를 간다”는 속담이 있다. 10kg이 넘는 대형 흑돔은 우악스런 뚝심만큼이나 인기 있는 물고기로, 겨울철의 흑돔회는 맛도 뛰어나

지만, 무엇보다도 푸짐해서 더욱 좋다. 그래서 어업인들이 끝까지 쫓아가서 잡는다는 뜻이다.

이처럼 생활 속에서 흔하게 사용하는 속담 속에 숨은 풍자적 의미와 생선의 유래 등에 관한 이야기를 알고 나면 밥상에 오른 생선음식 맛이 더 각별할 듯싶다. 속담에 나타난 생선 이야기를 통해 생선의 의미와 조상들의 지혜를 엿보고 생활의 지침을 삼아보는 것은 어떨까.



은상_멸치털이(박익진)



해삼과 전복 이야기



해삼 • 임신 중 몸을 보(補)하는 식품

멍게와 함께 횟집이나 일식집의 서비스 안주로 자주 등장하는 해삼은 어류가 아닌 극피동물이다. 가시 극(棘) 껍질 피(皮), 즉 껍질에 가시 같은 게 돋은 동물을 극피동물이라 하는데 불가사리, 성게 등이 여기에 속한다.

해삼(海蔴)이란 이름은 그 효능이 인삼에 필적한다고 해서 '바다의 인삼'이란 뜻을 갖고 있다. 길쭉하고 울퉁불퉁하게 생긴 모양이 오이와 닮아 영어권에서는 '바다 오이'라 부르고, 한자 문화권에서는 밤에 활동하는 야행성이 쥐를 닮았다 하여 '해서(海鼠)'라고도 부른다.

해삼은 색깔에 따라 홍해삼, 흑해삼, 청해삼 등으로 구분해 부르기도 하는데 이들은 거의 대부분 같은 종이다. 다만 선호하는 먹이와 서식처에 따라 표면의 색깔이 달라졌을 뿐이다. 깊은 바다의 바위에 부착된 홍조류를 주로 먹고 사는 해삼은 붉은 색을 띠지만 내만에서 펄 속의 유기물을 주로 먹고 사는 해삼은 암녹색이나 암흑색을 띤다.

해삼은 수온이 19도 이하에서 성장이 왕성하고 20도 이상에서는 성장이 정지된다. 24도 이상이 되면 활동을 하지 않고 ‘여름잠’을 잔다. 그래서 해삼의 성장기는 해역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12월에서 다음해 4월까지로 가을부터 맛이 좋아지기 시작해 동지 전후가 가장 맛이 좋은 시기로 알려져 있다.

해삼은 남자들에게 정력을 강화시키고 정기를 길러 주며, 여자들에게 임신 증몸을 보(補)하는 좋은 식품이다. 그래서 선천적으로 허약한 여자나 태반이 약한 임산부에게 인삼 대신 해삼을 쓰는 경우가 많다.

그런 연유로 예로부터 시골 장터에서는 이 해삼이 임산부에게 좋다는 말을 듣고 시골 할아버지가 해삼 서너 마리를 사 벗짚에 꽁꽁 묶어 뒷짐에 들고 집에 와 보니 해삼은 온데간데없고 벗짚만 남았더라는 이야기가 있다.

조선시대 사주당 이씨가 지은 『태교신기』에는 “자식이 단정하기를 바라거든 잉어를 먹고, 충명하기를 바라거든 해삼을 먹고, 해산에 임해서는 새우와 미역을 먹으라”면서 해삼의 효능을 강조하기도 했다.

해삼을 이용한 요리로는 ‘해삼미역냉국’이 있다. 내장을 제거한 해삼을 최대한 얇게 썰고 미역은 데쳐서 썰고 오이는 채 썰어 둔다. 고춧가루, 다진 마늘, 설탕, 깨소금 등을 식초에 넣어 양념해 둔다. 준비된 각 재료에 차갑게 식힌 멸치 육수를 붓고 소금과 국간장으로 간을 맞추면 된다. 새콤달콤하며 오독오독 씹히는 해삼 맛이 일품으로 봄철 나른하고 입맛 없을 때 그만이다.

전복 ● 바다에서 나는 최고의 진미식품(珍味食品)

패류(貝類) 가운데서 가장 귀하고 값이 비싸 ‘패류의 황제’로 불리는 전복은 조류 소통이 좋은 연안 암초 지대에서 미역, 다시마, 감태, 대황 등의 해초를 먹고사는 고급 패류이다.

이름난 먹을거리의 대부분이 그러하듯 어물전에서 행세끼나 한다는 놈들은



임금님의 수라상에 올랐다는 걸 최고의 영예로 치는데, 전복도 그 옛날 진상품 가운데 하나로 귀한 대접을 받았다.

전복은 선사시대의 패총(貝塚)에서 전복 껌데기가 출토되리만치 먹을거리로 이용된 역사는 유구하다. 따라서 전복은 단순한 먹을거리에 그치지 않고 우리의 문화 속에 응화되어 다양한 흔적을 남기고 있다.

전복을 한자로는 포(鮑) 또는 복(鰐)이라 하고 『자산어보』에서는 복어(鰐魚)라 하였다. 우리 문화재 가운데 통일신라시대에 축조되어 사적 1호로도 유명한 포석정(鮑石亭)이 있다. 포석정은 돌에 홈을 파서 낸 구불구불한 물길로 그 형태가 전복 껌데기를 닮아 붙여진 이름이다. 전복은 고려시대만 해도 서민들도 즐겼던 식품으로서 부산물인 전복 껌데기를 이용한 나전칠기(螺鈿漆器) 공예가 성행하였다. 우리의 나전공예는 삼국시대 당나라로부터 전래된 것으로 고려 때 눈부시게 발전하여 도자기와 더불어 고려의 대표적인 공예로 발전했다.

당시의 이러한 상황은 송나라의 사신 일행으로 고려에 왔던 서궁(徐兢)의 고려도경(高麗圖經)에 잘 나타나 있는데 “세민(細民)이 많이 먹는 해산물로는 미꾸라지, 전복(鰐), 새우, 대합, 굴, 게 등이 있다”고 하였고, “고려의 나전은 그 기법이 매우 세밀하여 귀히 여길 만하며 나전이 장식된 말안장도 매우 정교하다”고 소개하고 있다.

전복은 조선시대에 이르러 점차 귀한 대접을 받기 시작하였다. 조선시대에 간행된 공선정례(貢膳定例)나 탐라지(耽羅誌)에는 전복이 임금께 진상되는 공물로 기록돼 있다. 세종 때 제주 목사 기건(奇度)은 해녀들이 전복을 따는 모습이 너무 애처롭게 느껴져 목사로 부임해 있는 동안 전복을 먹지 않았다고 한다.

제주목사 이건(李健)이 펴낸 『제주풍토기』에는 “해녀들이 갖은 고생을 하면서 전복을 따지만 탐관오리의 등살에 거의 뜯기고 굽주림에 허덕인다”고 쓰여 있다. 지금은 대량 양식으로 다소 나아졌지만 그 당시 전복은 귀하고 값도 만만치 않았던 것이다.

전복은 우리와 일본, 중국 등지에서는 귀하게 여기는 수산물이다. 중국에서는 전복(鮑魚), 상어 지느러미(翅), 물고기 부레(魚鱠), 해삼(海蔘)을 사대해미(四大海味)로 귀하게 여겼으며, 그 중에서도 전복을 으뜸으로 쳤다.

따라서 우리 조상들은 전복의 내장은 말할 것도 없고 껍데기 하나도 버리지 않고 생활에 활용했다. 전복 껍데기는 나전칠기의 재료로뿐만 아니라 한방에서는 석결명(石決明)이라 부르며 눈의 밝음을 결정하는 약재로서, 같은 효능을 가진 식물성 약재인 결명자(決明子) 못지않게 귀하게 여겼다.

전복 살 100g에는 피로 회복이나 눈에 좋은 타우린이 1,799mg이나 함유되어 있다. 전복을 말리면 오징어처럼 표면에 흰 가루가 생기는데 이것이 타우린이다. 그러나 서양 사람들은 이상한 터부가 있어 전복을 잘 먹지 않는다. 전복은 껍데기가 두 짹인 다른 조개 종류와 달리 외짜이어서 먹으면 사랑에 실패한다는 말이 있기 때문이다.

(이두석 / 국립수산과학원)



바다 때문에? 바다 덕분에!

3면이 바다에 둘러싸인 한반도, 4계절이 있어 아름다운 우리나라. 방송쟁이들인 우리에겐 실로 하늘이 내린 축복이 아닐 수 없다. 방송 아이템 찾느라 느는 것은 출담배요 줄어드는 것은 평균수명에 머리카락이니…….

4계절의 변화에 바다와 산이 어우러진 국토는 철마다 적당히 차고 넘치는 아이템들로 고달픈 우리들을 구제해주곤 한다.

바다! 언제든 꿈꾸는 멋진 여행코스라 방송 출장지로도 선호도가 아주 높다. 그렇지만 세상에 어찌 좋은 일만 있으리오. 바다로의 출장, 섬으로의 촬영은 항상 적당하게 짜릿한 긴장감을 우리들에게 보너스로 준다. 어머니의 품 같은 너그러운 바다가 살짝 심술이 나서 변덕이라도 부릴라치면 제 일정에 촬영을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섬에서 발이 묶여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되기도 다반사다.

〈6시 내고향〉 섬섬옥수 촬영으로 울릉도에 들어갔던 텔런트 박칠용 형님도 한 사흘은 더 계셔야만 했고 역사스페셜 한상권 아나운서도 독도 촬영을 갔다가 역시 제 일정에 귀사를 못할지도 모른다는 연락을 해와 KBS 본사에서 아나운서 TV 배정 담당 팀장인 필자가 월요일 〈굿모닝 대한민국〉 대타를 구하느라 주말 밤을 뜯눈

으로 지새운 적도 있다. 거참 얄밉고도 얄밉도다. 바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것은 그 개고생을 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하나같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있다는 것이다. 발이 묶여 초조했을 그 기간 동안 바다의 변덕을 탓하고 고개를 절래 절래 좌우로 흔들며 하소연을 해야 보통의 사람일진대 요상하게도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점이다. 오히려 그 기간 동안 물 좋고 공기 좋은 곳에서 일상의 피로를 푸는 멋진 휴식을 즐겼다는 둥, 넉넉한 섬마을 동네 주민들 인심에 명절에 고향집 다녀온 것 같다는 등…….

거참 이상타? 바다 때문에? 가 아니라 바다 덕분에! 멋진 추억거리를 하나 이상 더 맛보았다니 그 경험이 없는 우리들로서는 당최 이해가 안 갈 뿐이다. 이게 뻬이야? 진심이야? 정말로 촬영비사를 하나 알려드린다면 〈6시 내고향〉 섬섬옥수울릉도 편에서 박칠용 형님이 그 맛있게 드셨던 따개비 칼국수는 발이 묶여 우연찮게 얻은 수확이었단다.

참 맛있기는 맛있었겠다는 생각이 생방송 내내 내 머리 속을 떠나지 않았다. 정말 바다 덕분에, 더 정확히 말하면 얄미운 바다의 변덕 덕분에 얻어낸 멋진 선물 쯤? 이라고나 할까? 촬영을 다녀온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나 역시 바다 예찬론자가 되어가고 있었다. 바다의 넉넉함은 물론이고 그 심술까지도 칭찬하는 상태가 되어버렸으니 진정 바다는 가히 모든 것을 포용하고 감싸 안는 모태요, 우리 지구상 모든 생명체들의 근원이라 할 만하지 않은가?

지금 글을 쓰며 강릉 출장길 위에 있는 이 순간에도 내 머릿속은 바다로 여행을 떠나는 즐거운 상상에 마냥 행복하기만 하다. 팀장으로서 대타 걱정하느라 노심초사 뜬눈으로 밤을 새운 기억은 벌써 저만치 멀리 사라져버렸으니 진짜 바다의 힘은 대단하다 할 것이다.

만약 그게 아니라면 내 머리가 무지하게 나쁜 탓이리라. 이 글 때문에 내 머리가 나쁜 것이 만천하에 알려지더라도 그 역시 ‘바다 덕분에!’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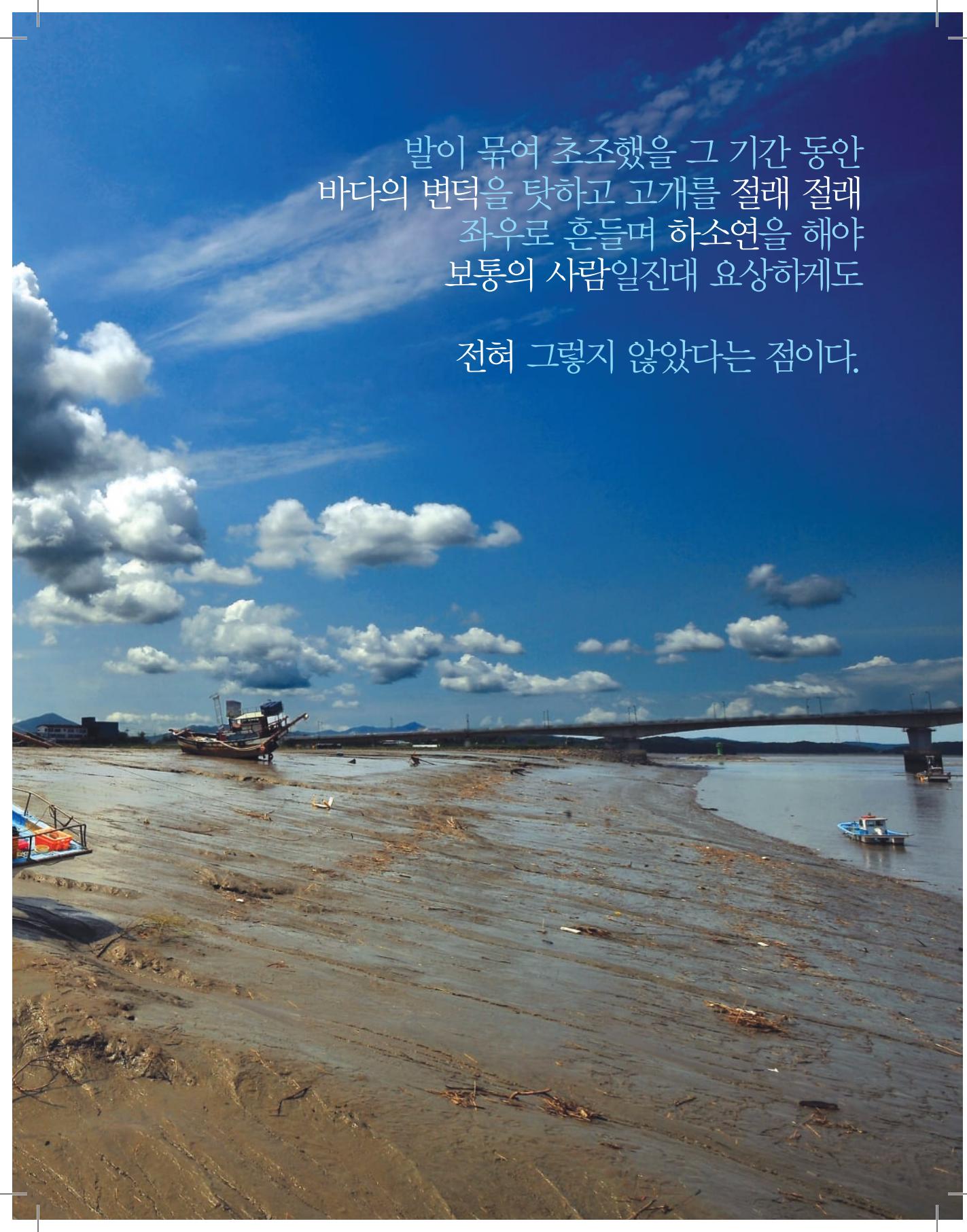
(성세정 / KBS아나운서)



동상_황산도의 오후(최동화)

발이 묶여 초조했을 그 기간 동안
바다의 변덕을 탓하고 고개를 절래 절래
좌우로 흔들며 하소연을 해야
보통의 사람일진대 요상하게도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점이다.





수 산



조선왕조실록에 투영된 조선시대 수산업

1931년 경성제대 요코아마(横山將三郎) 교수가 발굴한 영도 동삼동 패총(貝塚)에서 갖가지 어로도구와 함께 도미나 상어 뼈도 함께 발견되어 석기시대부터 우리 선인들이 고기잡이에 종사하였음이 분명하다. 또 최근(1972년) 발견된 울산 언양 면 대곡리의 반구대암각화(盤龜臺岩刻畫)에 작살잡이가 새겨진 것으로 보아 청동기시대에 고래를 잡았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그럼에도 그로부터 수천 년도 더 지난 삼국시대를 통틀어 어느 기록에서도 고기 잡이와 관련한 언급이 없다. 미루어 짐작컨대 무슨 알지 못할 연유로 어민들의 어로 행위가 극히 제한을 받았을 것이라는 추측을 하기에 충분하다. 그 까닭은 곧 밝혀졌다. 즉, 서기 372년 고구려를 시작으로 전국에 불교가 전래되면서 불법의 첫째 덕목인 금살생(禁殺生) 계율의 여파로 새를 비롯한 뭍 짐승은 물론 심지어 물고기 까지 포획이 금지되는 바람에 어민들이 그만 생업(生業)을 박탈당하는 날벼락을 맞은 결과였다. 따라서 자고로 어자원이 풍부한 한반도에 정착한 우리 선인들은 세상 어느 나라 못지않게 수산강국으로 도약할 여건을 두루 갖추고 있었음에도 근대에 이르기까지 반해양사상(反海洋思想)의 올가미에 묶여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이씨조선 들어 그간 흘어졌던 어민들이 되돌아오면서 전국 각 어촌은 금방 활기를 되찾았을까. 그 상황을 유추할 몇 가지 역사적 사례를 『조선왕조실록』에서 살고해 보기로 한다.

조선왕조 4대 임금인 세종(世宗) 19년(1416년)에 편찬된 『세종실록』에 다음과 같은 구절이 나온다.

忠清道都巡間使安純啓……船軍爲國藩籬 漁梁之役甚苦 須令停罷 以減其苦…….

이를 풀이하면 대략 다음과 같다.

충청도에 파견된 도순간사 안순계의 보고에 의하면, (지방관리들이) 막중한 국토 방위 임무를 띤 선군(해군)을 엉뚱하게도 어로작업에 투입함으로써 그 고통이 극심하여…….

다 알다시피 이조시대의 산업체계는 대지주(농민)들의 우월적 지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기타 산업은 농업에 종속된 것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따라서 어업 역시 대지주의 경영(兼營)에 의한 부속적 생산수단으로 전락해 있었고, 어장 경영이나 관리도 농민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형편이었다. 그 결과 대지주 소유인 어량(漁梁)이나 어전(漁箭)에서 잡은 고기는 전적으로 그들 몫이었지, 정작 고기를 잡은 어부는 살점 하나 얻어먹지 못 하는 황당한 사회적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니 어업을 본업으로 삼는 어민이 존재할 까닭이 없었고, 어로 기술자를 구하지 못한 지방호족들이 엉뚱하게도 국방임무에 투입된 병사들을 동원하는 월권을 자행함으로써 민원을 야기하는 결과를 낳았던 것이다.

이보다 앞선 2대 정종(定宗) 원년(1357년)에 편찬된 기록에 중앙정부가 이미 병사들을 어로작업이나 염전 노역에 동원하지 말라는 '면선군 어염지역(免船軍 漁鹽之役)'의령(令)이 하달되었음에도 지방호족들의 월권적 행위는 근절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된다.

어민들이 어촌을 떠나면서 어업이 존재할 수 없었던 배경에는 또 하나 관리들의 횡포가 크게 작용하고 있었다.

조선 11대 임금 중종(中宗) 때의 기록.

非貧民所能爲也 豪強者清濁於權門獨專其利.

이를 풀이하면, 빈한한 어민은 자력으로 어장을 경영할 수 없었고, 그에 편승한 호족이 개입, 어민과 이익을 반반씩 나누는 것으로 하였으나 종당에는 수익의 대부분을 가로채고 말았다는 뜻이다.

그 같은 어민에 대한 차별적 홀대는 고래잡이에서도 예외가 아니었다. 그와 관련하여 조선조 3대 태종(太宗) 때 다음과 같은 고래 이야기가 나온다.

有大魚六尾 自海乘潮入陽川浦 浦傍民殺之 聲如牛吼 無鱗甲色正黑 口在目邊 鼻在頂上…….

큰 고기 여섯 마리가 만조 때 양천포 해안으로 올라온 것을 포구 주민들이 잡았는데, 울음소리는 황소와 같았고, 비늘은 없이 몸체는 새까맸으며, 입은 눈 가에, 코는 정수리에 붙어 있더라…….

선조(宣祖) 때 학자 이수광(李晦光)이 쓴 『지봉유설(芝峰類說)』에 “갑자년(1564년)에 큰 물고기 한 마리가 한강에 출현하였는데, 길이는 6미터나 되고, 몸통은 돼지와 같았으며, 머리 꼭대기에 구멍이 나 있고 그곳에서 수직으로 분수가 솟아났으며……”라는 식으로 한강에 거슬러 올라온 고래의 형상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다. 그만큼 한반도 인근 해역에는 고래 무리가 상당수 회유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조선 시대를 통틀어 어민이 포경업에 나섰다는 기록은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는다.

17세기 중엽, 네덜란드 선원 하멜(H. Harmel)이 쓴 『표류기(漂流記)』에 “제주 앞 바다에서 작살이 꽂힌 고래를 보았다”는 구절이 나오지만, 그것은 러시아나 일본인 선원들의 것이지 조선인 어부가 던진 작살은 아니었다.

조선 순조(純祖) 때 정약전(丁若銓)의 어류학서(魚類學書)인 『자산어보(玆山魚譜)』를 보면 “돌고래 일종인 상광어 떼가 흑산도 연해에서 다수 목격되었으나 잡을 줄을 몰랐다”는 대목만으로도 조선인이 포경업과 무관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또 조선 시대 서유구(徐有集)가 지은 『임원경제십육지(林園經濟十六志)』에 “일본인 어부들은 모(矛 : 창)를 던져 고래를 잡고 있었으나, 우리 어부들은 그런 재주가 없었고, 그저 죽어 해안에 떠밀려온 놈을 획득하는 게 고작이었다”고 기술하고 있는 것도 그 한 예다.

우리 선인들이 이미 선사 시대에 포경을 한 경력을 갖고 있음에도 이후 줄기차게 고래사냥을 외면한 데는 또 하나 그럴 만한 사유가 있었다. 즉, 설령 죽어 해안으로 떠밀려온 고래를 발견했더라도 고귀한 그 어획물은 일체 관가(官街) 뜻이라는 인식이 그것. 가령 어느 누군가가 “저쪽 해안에 고래가 떠밀려 왔다!”고 소리치는 즉시 지방관리들이 내달아 와서는 오히려 인근 주민들로 하여금 고래 몸통을 해체하는 일에서부터 관가로 운반하는 일까지 노역에 동원하는 것으로 끝이지, 실컷 고생한 주민들에게 살 한 점 나누어주지 않았으니 일반 하층민들로서는 요즈음 말로 설령 ‘바다의 로또’가 굴러 들어왔다 한들 하나도 반가울 게 없었던 것이다.

그 같은 관리들의 횡포는 어부들이 바다로 나가 목숨을 걸고 잡아온 고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 그 결과 오죽하면 모처럼 표착한 고래를 보고는 그것을 수습하기는커녕 오히려 사력을 다하여 바다로 되돌려 보내기까지 하였을까.

그런 반면, 기록에 나타나고 있는 제주 해녀들의 생사를 건 바다와의 싸움은 눈물겹기까지 하다. 다음 글은 실록에 실린 난해한 한자표기를 독자들의 이해를 돋기 위해 필자가 소설식으로 재구성한 것임을 밝힌다.

조선조 20대 임금 고종(高宗) 22년(1885년).

그 해 초봄 어느 날, 제주도 남서단 모슬포(摹瑟浦) 자갈밭으로 수백 명이나 되는 주민들이 운집하고 있었다. 그 포구에는 가호(家戶)라야 20여에 기껏 기십 명의 주민이 살고 있었는데, 운집한 사람은 그 몇 배나 될 만큼 엄청났다. 그것은 모슬포 말고도 서귀포나 멀리 성산포 주민들까지 합세한 결과임이 분명했다.

– 물러가라! 요 도둑놈 쪽발이 왜구 놈들아!

– 네놈들 노략질에 우리 비바리 다 죽는다!

구호가 터질 때마다 사물놀이에 쓰던 징과 꽹과리 소리도 함께 들렸는데, 그 중 흥분한 몇몇은 자신들의 귀중한 생업 수단인 테왁을 돌로 쳐서 깨트리는 극단적 행동도 마다하지 않았다.

제주 주민들의 시위는 전적으로 그곳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불법적으로 해산물을 채취하는 일본 나가사키 소속 잠수기선을 목표로 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일본인들은 성난 해녀들의 구호를 귓가로 흘린 채 눈 한 번 깜박이지 않고 태연히 잠수질을 계속했다.

자고로 제주 해역은 전복이나 해삼 등 해산물이 풍부한 황금어장이었다. 그리하여 여자라면 모두 바다로 뛰어들어 전복이나 해삼 말고도 톳이며 우뭇가사리 등을 채취, 그것을 곡식과 교환하는 식으로 근근이 살아가고 있었다. 그런데 몇 해 전부터 일본 잠수기선이 나타나서는 불법적인 도둑조업을 감행하는 바람에 어자원이 고갈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당시 나가사키 현청이 정리한 보고서에 의하면 그 무렵 일본 잠수기선이 제주도를 비롯한 남해안 일대에서 얼마나 많은 해산물을 불법적으로 도둑질해 갔는지가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우리 현으로 들어온 조선 어선은 한 척도 없다”는 전제 하에,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이어지고 있다.

– ……반면 우리 잠수기선은 도합 30여 척에 400여 명의 어부가 (제주도로)

출어한 가운데 8월 하순 현재까지 채취한 전복 양은 말린 것으로 6,000근에 달하고, 금액으로는 1,800원에 이르렀다. 이에 반해 조선인들의 채취량은 그 10분의 1에 불과하였다.

그 날 해거름 되어서야 일본 잠수기선은 물러갔지만, 그 며칠 후에도 불법조업은 중단되지 않아 급기야 성난 해녀들이 아주 은밀히 접근하여 불을 지르는 극단적 보복을 가하고 나서야 일본 어부들이 물러갔다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다.

일본인들의 대(對) 조선 침탈은 그 연원이 깊고도 오래된다. 그들은 유럽인들의 지리상 대발견 시대보다 두 세기나 더 앞서서 조선 땅을 기웃거리며 온갖 노략질과 분탕질을 일삼아 왔는데, 그 등살을 못 이긴 조선인들이 피난길에 올라 서남해안 포구는 그야말로 황폐하기 그지없게 되었다. 왜구는 식량과 재물 약탈에만 그치지 않고 심지어 부녀자 겁탈도 마다하지 않았는데, 그 같은 노략질에도 불구하고 불법조업은 자행하지 않았다.

왜구의 조선 땅 침탈 행위가 본격화된 것은 연이은 국내 정치의 혼란으로 에도 바쿠후(江戸幕府) 체제가 붕괴되고 중앙집권제 통일국가로 변신한 메이지유신(明治維新) 개막 이후가 된다. 즉, 일본인 어부들의 도둑조업에 이어, 무장(武將)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가 중국대륙 침략의 야망을 달성하기 위해 조선을 공략함으로써 임진왜란(壬辰倭亂)의 참화로 이어졌던 것이다.

이상으로 『조선왕조실록』을 비롯한 갖가지 기록에 투영된 조선 시대 어업 내지는 수산업의 현황을 살펴보았지만, 그 용어(用語)조차 찾아내기 불가능할 만큼 산업적 지위를 인정받지 못 하였고, 그 뒤 일제 식민지 시대의 암흑기를 거쳐 해방이 되고 나서야 비로소 신예(新銳) 수산·해양강국으로 우뚝 선 것은 3면이 바다와 면한 한반도의 정치·지리적 호조건에다 해양진출만이 살길이라는 몇몇 선각자들의 도전정신과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그 원동력이었을 것이다.

(천금성 / 해양작가)



조선시대 3대 수산학서

『자산어보(茲山魚譜)』는 1814년(순조 14년) 정약전(丁若銓)이 신유사옥으로 전라도 흑산도에서 유배생활을 하던 중 흑산도 연해의 수산생물을 실지로 조사하고 채집해 기록한 책이다. 그런데 책의 제목이 왜 ‘흑산어보’가 아니고 ‘자산어보’일까. 김훈의 소설 『흑산』에서 정약전은 글을 읽을 줄 아는 창대에게 이렇게 말한다. ‘흑산(黑山)’을 ‘자산(茲山)’으로 바꾸어 부르는 상황을 묘사한 대목에서다.

“茲는 흐리고 어둡고 깊다는 뜻이다. 黑은 너무 캄캄하다. 茲는 또 지금, 이제, 여기라는 뜻도 있으니 좋지 않느냐, 너와 내가 지금 여기에서 사는 섬이 자산이다.”

실제로 정약전은 책의 서두에서 ‘자(茲)’는 ‘흑(黑)’이라는 뜻도 지니고 있으므로 자산은 곧 흑산과 같은 말이나, 흑산이라는 이름은 음침하고 어두워 두려운 데다가 가족에게 편지를 보낼 때마다 흑산 대신에 자산이라고 일컬었기 때문에 자산이라는 말을 제명에 사용하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자산어보』에 대해 일부에서는 ‘현산어보’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한다. 아래의 내용은 안소영의 소설 『다산의 아버님께』 중 일부다.

“아버님은 암울한 검은 빛이라는 뜻의 흑산이란 이름이 싫다며 ‘현산(茲山)’이라

부르셨다. ‘현’은 첫새벽에 여명을 맞을 준비를 하는 하늘의 색과 같은 감청빛을 말한다. 새벽이 밝아오는 그곳에 둘째 아버님이 계신 것이라 여기고 싶으셨을 것이다. 소내 집에서도 모두 그리 불렀다. 다산의 아버님, 현산의 둘째 아버님, 그러다 보니 다산과 현산은 자연스레 두 분을 일컫는 별호가 되었다.”

정약전은 『자산어보』를 쓰게 된 경위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흑산도 해중에는 어족이 극히 많으나 이름이 알려져 있는 것은 적어 박물자(博物者)가 마땅히 살펴야 할 바이다. 내가 섬사람들을 널리 심방하였다. 어보를 만들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사람들이 제각기 다른 말을 하기 때문에 이를 죽을 수가 없었다. 섬 안에 장덕순(張德順, 일명 昌大)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두문사객(杜門謝客)하고 고서를 탐독하나 집안이 가난하여 서적이 많지 않은 탓으로 식견이 넓지 못하였다. 그러나 성품이 차분하고 정밀하여 초목과 조어(鳥魚)를 이목에 접하는 대로 모두 세찰(細察)하고 침사(沈思)하여 그 성리(性理)를 터득하고 있었으므로 그의 말은 믿을 만하였다. 그리하여 나는 드디어 그를 맞아들여 연구하고 서차(序次)를 강구하여 책을 완성하였는데, 이름 지어 ‘자산어보’라고 하였다. 곁들여 해금(海禽)과 해채(海菜)도 다루어 후인의 고험(考驗)에 도움이 되게 하였다.”

이러한 『자산어보』는 수산 동식물 155종에 대한 각 종류의 명칭, 분포, 형태, 습성 및 이용 등에 관한 사실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으며, 총3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권에는 인류(鱗類) 73종, 제2권에는 무인류(無鱗類) 43종, 제3권에는 잡류(雜類)로서 해충(海蟲) 4종, 해금수(海禽獸) 1종, 해초(海草) 35종 등이 비교적 세밀히 분류·기재되어 있다.

이 중에서 특히 주목되는 것은 첫째로 청어와 고등어의 회유(回游)와 분포에 관한 기록이다. 현재 동해와 서해에 회유하는 청어와 고등어의 실태를 그 당시와 비교하는 데 유일한 자료이다. 둘째로 각종 수산 동식물의 방언을 조사하여 기록한 것이며, 셋째는 의약상의 효능을 기록하여 이 분야의 연구에 많은 참고가 되고 있다.



자산어보

그러나 각종 수산 동식물의 도해와 그 형태에 있어서는 설명이 상세하지 않은 점이 있다. 또한 물고기의 이름을 한글이 아닌 한자로 기입했고, 물고기의 크기를 나타낼 때 주척(周尺)을 사용한 점이 지적되고 있다. 현재 전하는 사본 중에는 완사본(完寫本)이 하나도 없는데, 1943년 여러 사본을 대조하고 보충하여 새로 편성한 한글본과 일본어 번역본이 있다.

유배지에서 직접 관찰하고 들은 바를 옮겨 정리해 수산 연구의 지침이 되는 책으로 1803년에 담정(潭庭) 김려(金鑑)가 지은 『우해이어보(牛海異魚譜)』도 있다. 경남 창원시 진동면 고현리에 귀양하여 1801년 신유년 겨울에 시작해 만 2년 만에 탄생의 결실을 보게 된 『우해이어보』의 선문에서 김려는 “계해년(1803) 늦은 가을 한고의 한유내객은 진해 우소현(雨篠軒)에서 이 책을 쓴다”고 하였다. 김려 역시 『자산어보』를 쓴 정약전과 같이 신유사옥에 연류되어 함경도 경원·부령을 거쳐 신유년(1801) 겨울에는 경상도 진해로 내려와 10여 년간 유배생활을 하며 여러 가지 책을 저술했다. ‘우해(牛海)’는 진해의 별명이다. 그러나 이 진해는 지금의 경남 진해시가 아니라 진동(鎮東)을 가리키며, 이 진동은 조선 초기에 진해현이 설치된 곳이다. 따라서 이 책은 저자가 지금의 동면 고현리에 유배되어 있을 때 저술한 것이다. 고현리는 고성과 거제도를 바라보는 진해만의 바닷가 마을이며, 그 뒷산의 이름이 우산(牛山)이다. 또 이어보(異魚譜)라고 한 것은 잉어처럼 사람들이 알고 있는 고기 외에도 온갖 수충(水蟲)과 해수들도 다루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우해이어보』에는 총 100여 종의 어종이 수록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방어, 꽁치 등 어류 53종(연체동물 포함)과 갑각류 8종, 패류 10여 종 등이 자세히 소개되어 있고, 어종별로는 그 근연종으로 생각되는 것을 첨가하여 설명한 것이 많다. 설명에 있어서는 각 동물마다 정도의 차이가 심하기는 하지만, 각종 이명(異名), 형태, 습성, 맛 등을 비롯하여 이용법, 어획법, 유통 등의 문제도 언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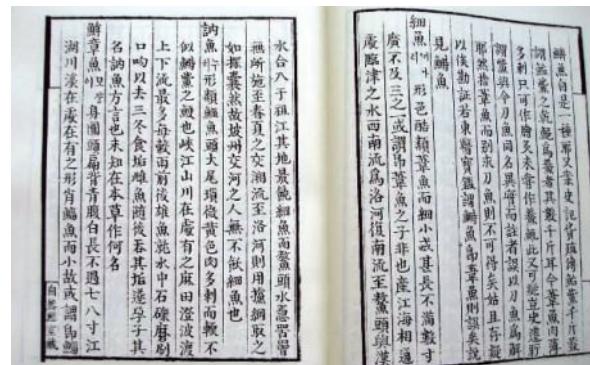
『자산어보』, 『우해이어보』와 함께 조선시대 3대 수산학서로 꼽히는 책은 19세기

조선 실학의 대표적 인물인 풍석 서유구(徐有榘)가 지은 『난호어목지(蘭湖漁牧志)』다. 홍문관 부제학이었던 서유구는 1815년경에 임진강 북단에 위치한 난호라는 마을에 정착했다. 이 마을은 옛 문현에 파주시 진동면 고랑포리와 동파리 사이쯤에 위치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지금으로서는 오리무중이다. 6·25전쟁 후에 이 마을이 휴전선 북쪽으로 편입된 까닭이다. 서유구는 이곳에 집을 짓고 이름을 난호초당이라 하였으며, 여기에서 조선시대 3대 수산학서의 하나인 『난호어목지』를 집필하고 『소화총서(小華叢書)』와 『임원경제지(林園經濟志)』 같은 불후의 역작을 남겼다. 그중 『임원경제지』 16권(1843)의 제4권으로 편제된 「전어지(佃漁志)」는 『난호어목지』를 저본으로 하여 쓴 책이다.

난호에서 서유구는 아들 우보(宇輔)와 함께 농사와 어업을 직접 경영하고 10년 가까이 임원경제를 몸소 체험하면서 실학연구에 몰두했다. 『난호어목지』는 이 시기에 집필했는데 대략 1820년경으로 알려진다. 『우해이어보』보다 23년, 『자산어보』보다는 7년 뒤에 나오 것이다.

『난호어목지』에는 총 126종의 어종이 수록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서유구는 강어와 해어 및 잡어로 3대별하고, 강어와 해어에 대해서는 다시 인류(鱗類)와 무인류(無鱗類) 및 개류(介類)로 세분하여 서식장소, 크기, 성격 및 맛을 분석하였다.

『자산어보』는 서해안의 해안어를 대상으로 하고, 『우해이어보』는 남해연안 해안어를 대상으로 하며, 『난호어목지』는 서해안의 해안어와 내수면어족을 대상으로 한 어보라는 점에 각각 그 특색이 있다.



난호어목지



우해이어보



우리나라 고래 이야기

지금 울산은 고래박물관과 고래생태체험관이 있는 한반도 고래 관광의 중심지다. 하루에 두어 차례씩 고래를 보러 나가는 ‘고래 관찰선’도 여기서 출발한다. 하지만 장생포항을 떠난 고래 관찰선 가운데 고래를 보고 돌아오는 배는 절반도 되지 않는 형편이다.

고래가 사라졌다. 울산 사람들은 한국 고래의 아이콘 ‘귀신고래’를 기다리지만 기척이 없다. 그 많던 고래는 어디로 갔을까?

● 최초의 기록, 반구대암각화

과거 한반도 주변에는 고래가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고래와 관련한 유적이나 기록이 많다.

신석기에서 청동기 시대 사이에 제작된 울산 반구대암각화는 우리 선조들과 고래와의 관계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유산이다. 옛날 사람들이 직접 돌에 새긴 이 대형 암각화가 1971년 울산 대곡리에서 발견됐을 때, 과학자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높이 3m, 너비 10m의 거대한 절벽 암반에 새겨졌다는 점은 둘째 치고, 호랑이, 멧돼지, 사슴 등 새겨진 동물만 무려 75종 200여 점이다.

특이한 점은 유난히 고래가 많다는 점이다. 암각화에 펼쳐진 해양동물만 75점인데 48점이 고래 혹은 고래와 비슷한 동물이다. 대왕고래, 귀신고래, 향고래 등 새겨진 고래의 종류도 다양했다. 심지어 어떤 장면에서는 뗏목을 타고 있는 고대인들이 고래를 잡아끌고 가는 장면도 나온다.

고대인들은 왜 고래를 그렸을까? 자신들의 포경 경험을 형성화해 그린 것일까, 아니면 해안가에 좌초한 고래에 영감을 얻어 새긴 것일까? 어쨌든 반구대암각화에 나타난 고래들은 대부분 가까운 바다에서는 보기 힘든 것들이다. 반구대암각화를 볼 때, 우리 선조들이 만약 ‘의도적인 포경’을 했다면 배를 타고 먼 바다로 나가 했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우리들은 어떻게 조상들이 포경을 했는지 알 수 있을까? 가장 확실한 증거는 각종 고문헌에 포경 기록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방법이다. 두 번째는 여러 곳에서 출토되는 유적에서 포경도구를 찾아보는 일이다. 그게 아니면 고래 뼈나 고래 수염 등 고래 부산물로 만들어진 물건을 통해 포경 여부를 유추할 수 있다.

하지만 반구대암각화를 제외하곤 삼국, 고려, 조선 시대에 거쳐 포경에 대한 기록은 거의 없는 편이다. 실제로 암구대반각화 그림을 포경의 증거로 상정한다면, 직접적인 포경 기록은 구한말까지 약 3,000년 넘게 빈 공간으로 존재한다.

다만 부산 동삼동 신석기 유적 등 여러 해안가 유적지에서는 고래 뼈로 만든 토기가 출토되는 등 고래 부산물로 만들어진 유물은 자주 발견됐다. 동물 뼈로 만든 작살도 발견됐다. 작살에는 고정식 작살과 회전식 작살이 있는데, 고래를 잡는 작살은 회전식 작살이다. 작살이 고래의 몸통에 꽂힌 뒤, 작살 쪽이 몸통 안에서 돌아가면서 고래를 결박해 해안가로 끌고 와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발견된 회전식 작살은 10cm 이하에 불과했다. 그 정도의 크기라면 고래를 잡기엔 너무 작다.

아직 직접적인 포경 증거는 발견되지 않고 있지만, 우리 조상들이 고래와 친숙

한 생활을 해 온 점은 분명하다. 『삼국사기』 등 여러 문헌을 보면, 조상들이 먼 바다로 나가 의도적인 포경을 하진 않았지만 해안가에 좌초한 고래를 이용하거나 가까운 바다에서 돌고래 등을 소극적으로 잡았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고래의 눈은 옛부터 ‘명월주’라고 불렸다. 『삼국사기』에는 왕에게 고래를 바쳤는데, 그 눈에서 빛이 났다는 기록이 있다. 아마도 고래 기름에 고래의 눈을 담가 등불로 이용했음을 추정할 수 있다. 고래 기름은 지방질이기 때문에 유럽에서도 등불로 이용되곤 했다.

고려시대 원종 14년에는 원나라 사신이 함경도와 경상도에 와서 신루지(고래 기름)를 가져갔다는 기록도 나온다. 학계 일각에서는 원나라에 고래 기름을 공물로 바칠 정도이니, 상시적인 포경이 이뤄졌다는 근거로 볼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일본에서 근대적인 포경은 16~17세기에 시작됐다. 하지만 그때까지도 조선에서는 의도적인 포경이 없었던 것 같다. 연산군은 1505년 전라도 고을에 고래를 잡아오라고 명령했는데, 부안 현감 원근례가 두어 달 시도했는데도 잡지 못했다. 서유구는 1820년 『임원십육지』에서 다음과 같이 전한다.

“살피건대 우리나라 어민들은 포경을 할 수가 없다. 다만 혼자 죽어 모래밭에 떠 오른 것이 있으면 관에서 많은 사람을 동원해 칼과 도끼로 수염과 피육을 베어낸다. 이익은 관에 돌아가고 어민은 얻는 게 없으므로 고래 잡는 범을 배운지 않는다.”

울산대학교 국어연구원의 김서주 박사는 흥미로운 연구를 했는데 고문헌에서



‘포경’과 ‘득경’이라는 단어를 세어봤다. 19세기 중반까지 모두 21차례의 고래 기록이 나오는데, 이 가운데 ‘포경’이라고 표현된 건 단 2건으로, 1820년 처음 나타났다. 득경은 좌초한 고래를 얻는 행위라면, 포경은 바다에 나가 적극적인 고래 잡는 행위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게 김 박사의 설명이다.

● 근대포경의 시작

한반도 연안에서 본격적인 포경은 구한말에 이르러 시작된다. 작살은 조선 사람이 아니라 제국주의 열강의 손이 쥐고 있었다. 당시 ‘이양선’이라고 불렸던 배들의 상당수는 러시아와 미국의 포경선이었다. 이들은 고래를 해체하기 위해 조선 땅에 정박했다가 지방관리와 마찰을 빚기도 했다.

러시아의 태평양포경회사는 함경도와 강원도 연안에서 참고래를 잡아 러시아, 일본의 포경항으로 가져가 해체해서 팔았다. 1899년 러시아는 조선과 협정을 맺고 울산 장생포의 일부 땅을 조차해 포경항으로 썼다. 장생포가 처음 ‘포경항’이 된 순간이다. 한반도를 상대로 고래 전쟁에 뛰어든 일본도 1900년 장생포 등 8곳을 포경기지로 확보했다.

일제강점기가 되면서 일본 포경선들은 한반도 삼면의 바다를 들쑤시며 고래를 잡았다. 일본 포경선들은 한 지역의 고래를 몰살하면 다른 지역으로 고래를 찾아다녔다. 포경장은 동해 장생포에서 남해의 흑산도, 서해의 어청도까지 퍼져갔다. 지금 한반도 연근해에서 동해를 제외하곤 대형 고래를 보는 건 매우 희귀한 사례가 됐는데, 그때만 해도 서·남해에서는 고래가 많았다.

일본은 귀신고래와 참고래를 주로 잡았다. 귀신고래는 1910년대만 해도 100마리 이상이 잡혔지만, 1920년대 들어 50마리 이하로 줄어들더니, 1930년대에 이르러선 아예 잡히지 않는 해가 더 많았다. 울산 사람들이 ‘장수경’이라고 부르는 참고래는 워낙 자원량이 많았다. 하지만 이 고래조차 1910년대 매해 500~1000마리

잡히던 게 1920년대 들어선 500마리 이하로 포획량이 급격히 줄어들었다.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고래의 개체 수는 급격하게 줄어들게 된다. 특히 귀신고래는 일제강점기에 이미 지역적 멸종 단계로 접어들었다.

해방 이후 비로소 한국인들에 의한 포경이 시작됐다. 1946년 4월 16일 제7정해호가 해방 뒤 처음으로 포경에 나섰다. 김옥창의 조선포경주식회사와 이영조의 대동포경이 설립되는 등 국내 자본에 의한 포경이 본격화됐다. 전쟁 중에도 포경업은 전성기를 이뤘다. 6·25 때 부산으로 내려온 피난민들에게 고래 고기는 좋은 단백질 보충원이었다. 김치찌개에 돼지 비계 대신 고래 조각을 넣었고, 소주 안주로 고래 고기를 나누었다. 1965년 한일어업협정이 발효되면서 한국은 일본에 고래 고기를 수출하기 시작했다. 장생포는 다시 국내의 대표적인 포경 항구로 떠올랐다.

1960년대 초기 기록을 보면, 연간 20척쯤 되는 포경선이 바다로 나갔다. 주 어장은 울산 연안에서 경북 울진의 죽변 연안에 이르는 해역이었다. 약 93%의 고래가 여기에서 잡혔다. 서해안에서는 전북 어정도와 전남 흑산도, 경기 백령도에 포경장이 섰으나, 잡히는 수는 그리 많지 않았다.

해가 갈수록 주요 포획종은 맹크고래로 바뀌었다. 귀신고래는 씨가 마른 상태였고, 흔하게 잡히던 참고래도 좀체 보이지 않았다. 일제강점기만 해도 한해 100~500마리의 참고래를 건졌는데, 1960년대 들어 수십 마리대로 떨어지더니, 10마리도 채 못 채우는 해가 많아졌다. 1980년대에 이르러선 참고래는 아예 종적을 감췄다.

맹크고래는 대형 고래 가운데 가장 몸집이 작은 고래다. 고래 고기로 이용할 양이 적으나 그간 포경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맹크고래는 길이 7~10m, 무게 5~15톤으로 과거 주요 포획종인 참고래의 길이 18~20m의 절반 밖에 되지 않는다. 다른 대형 고래가 관찰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포경은 이런 맹크고래에 집중됐다. 맹크고래는 1960년대 연간 300~400마리가 잡혔고, 1977년에는 1,033마리가 잡히는 등 포경이 절정으로 치달았다. 특히 포경선이 최신식 기술과 기계로 무장하면서, 1970년대 말에는 매년 1,000마리 안팎의 맹크고래가 장생포에 실려 들어왔다.

전 세계에서 포경으로 인한 고래 자원량이 고갈되고 있었기 때문에 1970년대부터 국제포경위원회(IWC)에서는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고래 자원을 보전 관리하는 방안이 논의되기 시작했다. 한국은 1978년 국제포경위원회에 가입했고 이듬해부터 링크고래와 브라이드고래만 잡을 수 있게 됐다. 링크고래는 연간 쿼터 1,000마리 정도를 받았고, 브라이드고래는 사실상 한반도 연근해에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쿼터 부여의 의미가 없었다.

1986년 국제포경위원회 회원국들은 대형 고래의 상업적 포획을 금지하는 포경 금지협약에 합의했다. 우리나라 동해와 서해, 남해 등 한반도 연근해에서도 이 협약이 발효된 1987년부터 링크고래를 포함한 모든 고래의 포획이 중단됐다. 2000년대 들어 일본과 노르웨이 등 일부에서는 포경 재개를 요구하고 있지만, 국제포경 위원회가 이 제안을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우리나라 동해에 귀신고래가 다시 찾아왔다는 소식도 아직 들리지 않고 있다. 1977년 1월 3일 울산 방어진 앞 5마일 해상에서 귀신고래 두 마리가 남하하고 있는 것을 대양호의 선원들이 목격한 것이 마지막이었다. 1981년 11월 월간잡지 〈마당〉은 귀신고래에 현상금을 내걸기도 했다.

“마당은 한국 귀신고래의 사진을 찍어 오시는 분에게 100만 원의 현상금을 드리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물론 그 사진의 진실성과 한국 귀신고래가 틀림없다는 판정을 전문가들로부터 받은 다음에 상금을 지불할 것입니다.”

2010년 7월, 20년 동안 포경선 선원 생활을 했던 김모(61) 씨 등 선원들이 경주 앞바다에서 귀신고래 2마리를 봤다는 신고를 하기도 했지만, 사진을 찍는 데는 실패해 귀신고래의 도래 여부는 확실치 않다. 아직 귀신고래 현상금을 타 간 사람은 없다. 귀신고래는 언제쯤 돌아올까.

(남종영 / 한겨레신문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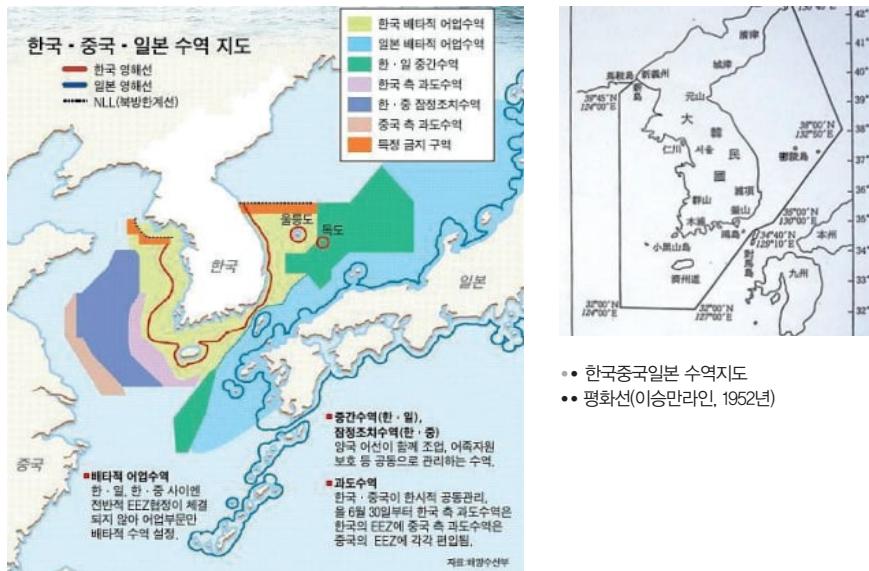


해양영토 확보 위한 총성 없는 전쟁

바다를 지배하는 자, 무역을 지배하고,
세계의 무역을 지배하는 자가 세계의 부를 지배하며
결과적으로 세계 그 자체를 지배한다.
– 16세기 영국의 탐험가 월터 롤리

역사는 바다를 지배하는 나라가 세계를 지배했음을 확실하게 알려주고 있다. 로마는 지중해를 장악한 뒤에야 대제국을 이룰 수 있었고, 중세 이후에는 해양 패권을 장악했던 포르투갈, 스페인, 네덜란드, 영국 등이 차례로 세계를 지배했다. 우리나라도 마찬 가지다. 신라의 장보고는 청해진에서 동북아의 해상 패권을 장악하며 번영을 누렸다.

지구 면적의 3분의 2가 넘는 해양을 활용하는 것은 국가발전의 필수요소이며, 해양은 이제 지구상에 남아 있는 마지막 자원의 보고다. 세계 각국이 바다로 눈을 돌리고 있는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삶의 터전이자 미래의 희망인 해양 영토를 조금이라도 더 확보해 새로운 국부를 창출하기 위해 세계 각국이 사활을 걸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해양 영토에 대해 주권을 행사한 것은 1952년부터였다. 그해 1월 18일 이승만 대통령이 한국 주변의 영해 외에 미치는 해역을 구획하는 선을 그어 주권 행사를 시작했다. 당시 대륙붕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미국 대통령 트루먼 선언과 유사한 것으로 '이승만라인'이라고도 한다.

해안에서부터 평균 60마일에 달한 이 평화선은 이 수역에 포함된 광물과 수산자원을 보존하기 위하여 설정한 것이었다. 한편으로는 일본과의 어업 분쟁 가능성 을 미리 봉쇄하고 세계 각국의 영해 확장 추세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기도 했다.

일본은 그 국제법상의 타당성을 부인했지만 우리나라는 이 선언에 기초해 일본 어선을 나포함으로써 양국 간에 분쟁이 발생했다. 1965년에 체결한 한일어업협정에 의해 양국의 어업수역, 한일공동규제수역이 설정되면서 이승만라인은 사실상 철폐되었다.

1970년대부터 세계 각국은 앞 다투어 배타적 경제수역을 선포하고 나섰다. 이는

연안국이 자국해안으로부터 200해리 안에 있는 해양 자원의 탐사, 개발 및 보존, 해양환경의 보존과 과학적 조사활동 등 모든 주권적 권리를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배타적 경제수역이 최초로 국제법화된 것은 1982년 5월이다. 연안국들이 200해리 어업수역을 선포하면서 국제관습화되었고, 이것이 마침내 1982년 「유엔해양법 협약」의 배타적 경제수역으로 성문화된 것이다. 우리나라는 1995년 12월 「유엔해양법 협약」의 발효에 비준을 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한국은 1996년 8월에 「배타적 경제수역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같은 해 9월부터 이를 선포해 시행했다. 또 같은 시점에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이듬해에 이를 시행했다.

이처럼 배타적 경제수역 제도가 확산됨에 따라 한국, 중국, 일본 등 3국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바다에서는 조업 충돌이 부쩍 늘게 되었다. 특히 중국어선의 경우 1980년대 중반부터 한국 영해를 침범해 대량 어획해 가는 일이 잦았다. 이에 두나라는 해상에서의 조업 충돌을 막기 위해 우선 민간 차원의 어업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최초의 한중민간어업 회담은 1988년 12월 15일에서 16일까지 양일간 열린 도쿄 회담이었다. 이때 우리 측에서는 당시 수협중앙회 이종휘 부회장과 대형기선저인 망수협 이수인 조합장이 대표로 참석했다. 이후 한국의 수협과 중국의 황해어업협회는 베이징과 서울에서 연이어 한중민간어업회담을 개최했으며, 그 결과 1989년 12월 수협중앙회와 중국의 황해어업협회 간에 「어선 해상사고 처리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하게 되었다.

1992년 8월 한중수교로 1995년 10월부터는 수협과 중국어업협회 간에 한중어선사고 실무조정협의를 위한 실무회의가 실시되었다. 이 회의에서 중국은 중국어업협회에 이어 중국 농업부, 동해구어항감독관리국, 중국어정지휘센터 등이 대표로 참여했지만 한국 측 대표는 처음부터 일관되게 수협이 이끌어나갔다.

이러한 수협의 노력이 뒷받침되어 2001년 4월 5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

수산당국 간 고위급 회담에서 최종 합의가 이뤄짐으로써 2001년 6월 30일을 기해 한국과 중국 사이에 정식으로 한중어업협정이 체결되었다. 수협이 한중민간어업 교류의 활성화는 물론 한중어업협정의 체결에 크게 기여한 것이다.

한중어업협정이 체결되기는 했지만 두 나라 사이에 있는 서해는 배타적 경제수역으로 볼 때 양국 수역의 거리가 최대 280해리에 불과해 수역 획정에 문제가 많았다. 따라서 한중어업협정에서는 잠정조치수역 설정, 발효 후 4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양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으로 편입되는 과도수역 설정과 긴급피난 시 상호 협조, 어업공동위원회 설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채택하였다.

이에 따라 중국이 한국 측 연근해 조업에 제한을 받게 되었고 한국 역시 황금어장으로 불리는 양쯔강 수역에서 조업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 협정으로 한중 양국 모두에게 ‘자국 쪽 바다’라는 개념이 확실해짐으로써 새로운 어업질서를 형성하게 되었다.

이 협정을 두 나라가 잘 지키면서 어로 행위를 한다면 갈등이나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없을 것이다. 하지만 한국 영해에서 수시로 발생하고 있는 중국어선의 ‘싹쓸이 불법 조업’이 이제는 분쟁을 넘어 해적 행위로 치닫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한 정부의 단속이 다소 미온적인 데에는 한중어업협정의 ‘자동파기 조항’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2001년 협정을 체결한 지 5년이 지나면 한중어업협정 제6조에 의거 언제라도 1년 전에 서로 통보해 협정을 종료할 수 있다”는 규정 때문이다. 협정이 폐기되면 한국 배타적 경제수역 내 중국어선의 불법 조업이 더욱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중국이 마음대로 배타적 경제수역 협정을 파기한다면 국제사회로부터 거센 비난에 직면할 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보다 적극적인 대처에 나서야 할 것이다.

한편, 한국과 일본 사이에 체결된 어업협정 역시 순탄치 않은 길을 걸어왔다. 1979년 홋카이도 주변 수역에서 조업하는 한국 트롤어선단에 일본어선이 돌과 화염병을 던져 조업을 저지한 이른바 ‘무로랑사건’ 이후 분쟁이 격화되자 두 나라는

1980년 10월 합의를 통해 자율적 규제라는 일종의 신사협정을 맺었다. 그러나 1994년 11월부터 「유엔해양법 협약」이 공식적으로 효력이 발생하면서 1965년의 한 일어업협정도 새로운 국제어업환경에 맞게 정비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러한 가운데 일본은 1998년 1월 한일어업협정의 일방적인 파기를 선언하고 연안국주의를 적용, 일본 근해에서 조업하는 우리 어선들을 나포해 법정에 세우기 시작했다. 이에 분쟁 해결을 위해 양국은 일본의 구 협정 파기 선언 10개월 후인 1998년 11월 28일 신한일어업협정을 체결하게 되었으며 이듬해 1월부터 발효되었다. 협상 당시 최대 걸림돌은 동쪽 한계선으로 오징어잡이로 유명한 대화퇴어장을 우리가 어느 정도 확보하느냐였다. 동경 135도선을 고집하던 일본과 오징어 어장을 뺏기지 않으려는 한국 측의 136도 주장이 맞섰지만 결국 그 중간선인 135.5도선으로 절충하여 결정되었다.

그러나 독도 문제는 양측이 '영유권'의 소속을 명시적으로 거론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일본은 협상과정에서 독도를 잠정수역에 둬야 한다고 주장하며 독도문제가 유보된 사안임을 강조했다. 한국은 이 같은 일본 측의 주장에 맞서 동해수역을 중간수역으로 규정했으며, 한국의 실질적인 지배가 계속된다는 점에서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못 박지 않기로 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신한일어업협정이 국제법상 영해를 설정하는 협정이 아니라 어업에 관한 협정이기 때문에 영유권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할 필요가 없고, 이에 대한 언급은 오히려 독도의 영유권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표출하는 결과만 낳는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이 협정이 한일 양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범위에 관한 구체적이고 중대한 합의로서, 어업에 관한 합의라기보다는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의 적용 범위에 관한 합의라고 주장했다. 즉, 협정에서 중간수역을 합의하기 위해 한국 영토인 독도로부터 전속적 관할범위로 합의되어 있는 35해리를 적용하지 않았는데, 이는 “독도에서는 배타적 경제수역을 주장하지 않는다”는 정부의 방침이 극히 모호하다는 것이다.

결국 한국 영토의 일부인 독도를 기선으로 한 배타적 경제수역을 확보하지 못하고, 독도가 한국 전관수역에서 배제된 채 중간수역에 포함시킴으로써 막대한 국가적 손실을 초래하였기 때문에 신한일어업협정을 파기하고 재협상에 임해야 한다는 주장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국가 간의 어업협정만으로 상대국과의 어업 관계를 원만히 조성해 나갈 수는 없는 일이다. 특히 어업은 조업 장소가 사고 위험이 높은 해상이며, 조업 과정에서 자원에 따라 상대국의 수역을 침범하는 사례도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민간 어업 관계이다.

이에 1965년 12월 17일 한국의 수협과 일본의 대일본수산회는 최초로 한일민간 어업협정을 체결하였다. 한일민간어업위원회는 1966년부터 1990년까지 조업 중의 어선 충돌사고, 어구 피해사고, 생산물 피해사고 등 총 480건의 어선사고를 해결하는 등 민간 어업 교류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 그러나 1998년 신한일어업 협정이 체결되면서 한일민간어업협정은 그 효력을 잃게 되었다. 신한일어업협정 제11조의 “양국 어선의 항행과 조업안전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라는 내용에 따라 2003년 한국수산회는 대일본수산회와 ‘양국어선 간 조업질서 유지에 관한 민간약정’을 체결하여 현재까지 한일 어선 간 조업질서 유지에 힘쓰고 있다.

글로벌 경쟁시대를 헤쳐 나가기 위해서는 바다를 포함한 국토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높여나갈 수밖에 없다. 바다의 자원을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따라 국가의 운명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해양패권을 둘러싼 총성 없는 전쟁이 그치질 않고 있는 것이다.



한일어업협정 체결(1998)



부산공동어시장, 그 안에 녹아 있는 어업인의 삶

부산의 하루는 공동어시장이 연다. 새벽 3시 잠자듯이 누워있던 남항도 물안개를 걷어내고 부스스 눈을 뜬다. 조는 듯 가물거리는 해안등도 서서히 잠을 깨고, 마주 보고 있는 등대도 밤새도록 남항 안내로 피로한 듯 힘없이 감실거린다. 어시장 안 벽에 붙어 있던 배들도 숨을 쉬기 시작한다. 안벽의 가장 중앙에 버티고 있는 집 채만 한 선망 운반선이나 이 배의 앞뒤에 붙어 있는 고래 등 같은 트롤선이나 저인 망선들도, 한쪽 귀퉁이에 기죽어 웅크리고 있는 연안 소형어선들도 이때가 되면 다 같이 숨을 쉬기 시작한다. 기중기 돌아가는 소리, 고기상자 나르는 소리. 선잠에서 깬 어업인들도 눈을 비비며 잔뜩 기대에 부풀어 비늘 묻은 투박한 손으로 어창을 연다.

고기들은 아직도 바다를 닮은 파란 눈들을 반들거린다. 그러나 어업인들은 오늘도 한숨이다. 며칠을 작업했는데도 어창 한쪽 바닥을 겨우 채웠을 뿐이다. 그 옛 날 어창마다 넘치는 고기를 싣고 만선기를 휘날리며 귀향하던 그때를 생각한다. 그 많던 고기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 서해안은 중국 배들이, 남해안은 일본 배들이 다 쓸어 가고……, 정치판에서는 너도 나도 복지니 뭐니 자기 돈처럼 난리를 치지



새벽의 위판장



새벽 조업을 마치고 그물 정리에 여념이 없는 어업인

만 그 돈으로 경비정이라도 몇 척 더 만들어 중국이나 일본 배들을 이 바다에서 짹 쓸어낸다면 그것이 바로 복지가 아니고 뭐겠는가.

정성스럽게 어창에서 들어 올린 고기 상자들을 곱게 키운 딸을 시집보내듯이 좋은 값을 받기 빌며 운반 노조원들의 리어카에 올린다. 좀 조심스럽게 다뤘으면 좋으련만 찌러기 같은 우악스런 손놀림이 불안하다. 가다가 혹시라도 고기가 흘러 리어카 바퀴에라도 깔리면 여지없이 뭉개져버리는 그 비참함은 고기를 직접 잡아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것이다. 그러나 이들한테 항의 한 번 못한다. 따지고 보면 이들도 어업인한테는 막강한 권력이다. 이들에게 밍보이면 고기들의 배열을 엉망으로 만들 어 버린다. 고기의 크기별로, 선도별로 구분해서 배열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고 뒤죽박죽으로 배열을 해 놓으면 어가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래도 지금은 양반이다. 간혹 반찬 한접시고 갈고리로 고급 고기 한 두 마리 찍어내는 수는 있지만 옛날에는 째마리 같은 놈들이 많아 이들에게 바칠 고기를 아예 바다에서 눈볼대나 참돔 등의 고급어종으로 별도로 한 상자씩 만들어 갖다 바치기도 했었다.

연안 어선들의 고기 하역은 단시간에 끝난다. 그러나 선망에서 하역하는 고등어나 트롤에서 하역하는 오징어, 그리고 저인망에서 하역하는 갈치 등은 넓은 판장 전체를 차지하고서도 아직 우물에서 물을 퍼내듯 끝없이 퍼내고 있다. 연안 어업

인들은 부러움에 명하니 보다가 결국 기가 죽고 만다.

‘딸랑딸랑’ 경매가 시작된다. 학교에서도 교회에서도 벌써 사라진 종소리가 여기 만은 아직 남아 고기 깔린 판장 바닥을 테굴데굴 굴러간다. 역시 경매도 빈익빈 부익부다. 고기가 많은 곳부터 시작된다. 고유 번호가 붙은 모자를 쓴 중도매인들이 경매대 위에 꽉 어울러 선다. 꼭 야구 선수들 같다. 중도매인들의 눈들은 먹이를 앞에 둔 매의 눈 같이 불꽃이 튈다. 경매안내원은 경매할 고기들을 하나하나 들어 보이며 안내한다. 안내원의 안내에 따라 경매사의 호가 최저단위가 결정된다. 이에 따라 중도매인들의 손가락이 나온다. 처음 경매사의 최저호가가 적절해야 경매가 빨리 진행되고 경매사도 편하다.

경매안내원의 안내가 끝나고 경매사의 걸걸하고 굵은 긴 목소리가 뽑혀 나온다. 경매사의 목소리가 길면 길수록 중도매인들의 손가락들은 분주히 움직이고 가격은 올라간다. 그래서 고기를 많이 잡은 선주들은 경매 전에 경매실을 들락거린다. 봉투 보시가 안 되면 말 보시라도 해야 한다. 경매는 수지호가제다. 손가락 하나가 천원이 되기도 하고 만원이 되기도 한다. 엄지손가락은 열배다. 다섯 손가락 전체를 펴다 오므리면 배다. 손가락을 흔들기도 하고 온 몸을 흔들며 자기를 봐달라는 아양을 띠는 중도매인도 있다. 이런 것들은 베테랑 중도매인들의 자기 멋이다. 이런 속에서도 경매사는 최고 가격의 손가락을 결코 놓치지 않는다. 어업인들은 자기가 잡은 고기의 값이 얼마나 나가는지 궁금해 쳐다보지만 눈만 어지러울 뿐이다.

어떤 날은 안내원과 경매사의 손발이 척척 맞고 어떤 날은 찌그럭거린다. 어업인을 위한 최대의 봉사를 위한 것에서인가 아니면 아직도 부도덕한 어업인들의 봉투나 말 보시 때문에선가. 경매사도 인간이기 때문에 때론 흔들리기도 하는 법. 그러나 그들도 항상 어업인들과 중도매인들과의 중간에 서야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연안 어선들의 어획물 경매는 초라하다. 온 판장을 가득 채울 듯한 고등어나 오징어



부산공동어시장의 고등어 경매

의 경매를 보다보면 더욱 그렇다. 중도매인들도 다 빠져나가고 몇 명만 어정거린다.

안내원이나 경매사의 목소리도 짧고 지쳐 있다. 그래서 그런지 생각보다는 어가
낮다. 누구나 남의 밥의 콩이 굽어 보이고 자기 자식이 좋아 보이기 마련이다.

어업인들은 마음속으로 계산을 해본다. 이번 어대금으로 배의 기름 값을 하고
출어 시 빌려 쓴 영어자금을 얼마나 갚고 애들 학자금이라도 낼 수 있을지, 그
러나 어림없다.

어대금을 찾기 위해 기다리는 동안 핫김에 어시장 앞에 줄줄이 늘어 선 선술집
에서 해장술이라도 한잔 하고 싶지만 아직 해장술을 파는 집은 없고 식당으로 들
어가 한숨으로 술 한 병을 비운다.

(김상곤 / 작가)



우리나라 어선현대화 변천사

1960년대 우리나라 수산업은 삼면이 바다로 어자원은 풍부하였으나 생산수단인 어선과 어로시설이 열악하여 영세성을 면치 못하였다. 당시 어선 실태는 무동력선과 소형 동력선으로 목선이었으며 동력선의 기관은 저효율 기관인 소구기관(燒球機關)이 대부분이었다. 어로시설 장비는 원시적인 수동식으로 조업하였다.

우리나라 수산업은 어선현대화 과정을 거치면서 오늘에 이르렀다. 어선현대화 변천과정은 무동력선의 동력화, 소형선의 대형화, 동력개량, 목선의 강선 또는 FRP선화, 어로장비개량, 선형개량 등 다양하게 이루어졌다.

지금은 어업구조조정, 어선감척 등에 의한 일정수준의 어선세력을 유지하고 있지만 과거에는 수산업법상 정한 수가 있거나 아예 정한 수가 없는 업종이 많았기 때문에 신규건조가 많았다. 또한 어업허가가 가능한 경우 증тон건조가 가능하여 소형선을 대형선으로 대체 건조하는 경우가 많았다. 가령 근해어업인 8톤급 노후어선을 60톤급까지 대체 건조가 가능하였다. 이로 인한 어선세력증가로 지금은 선복량(船腹量)을 제한하고 있다. 예를 들면 8톤급을 60톤급으로 대체 건조하려면 소형 기존어선(노후선 등)을 여러 척 폐선하여야 증トン건조가 가능하다.

어선을 개량하고 현대화하는 과정에서 애로와 시행착오도 많았다. 무엇보다 예산확보, 건조자재 수급, 조선소 건조능력이다.

당시 어민의 경제적 능력으로는 새 어선 건조는 생각할 수도 없었으며 주로 보조 및 응자 등 정부지원으로 어선을 건조하였다.

어선건조지원사업은 1962년도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수산발전 계획, 대일청구권 자금 등에 의하여 지원되었고 이후 근해채낚기, 근해안강망, 대형기선저인망, 선망 어선 등은 계획조선건조자금인 국민투자기금(응자 80%)을 지원받아 건조하였다.

예산 확보 시 어려웠던 점은 어민의 자담능력 부족에 따라 건조비의 보조율을 높여야 하는데 보조비율을 높일 사유가 적절치 않아 기획예산처 담당사무관에게 어선은 군함과 같은 기능이므로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되어야 한다고 했다. 그랬더니 무슨 말이냐고 하기에 어선은 먼 바다로 출어하여 며칠 동안 적(敵)을 찾아다니다가 적을 만나 섬멸한 뒤 귀항 도중 태풍을 만나거나 기관고장, 유류소진 등 표류로 예상치 않는 재산과 인명 손실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 즉 어선에 적재하는 무기는 어구, 유류, 식량, 식수, 장비 등이며 선원들은 비좁은 공간에서 새우잠을 자면서 열악한 환경에서 조업을 한다. 즉, “적(敵)은 고기이다”라고 해서 수산업 특성의 어려움을 설명, 설득하여 보조비율을 30%, 응자 50~60%의 지원 비율을 상당기간 유지하였다.

뿐만 아니라 어선건조비가 규모에 비하여 너무 높다. 화물선, 운반선 등 일반선 밖에 비하여 톤당 건조비가 2~3배 높다. 어선은 규모는 작지만 어로 작업에 필요한 구조와 어로시설, 장비 등 시설로 건조비 차이가 크며, 또한 같은 어선이라도 선질이 목선에 비하여 강선은 2배, FRP선은 3배 정도 건조비가 높다.

또한 업종에 따른 어구, 어로 설비 등 건조비 차이가 많다. 예산확보 못지않게 어선건조용 자재를 수급하는 데도 문제가 많았다. 목선 건조 당시 소형선에 쓰이는 자연곡재(曲材)는 당시 산림녹화정책이 강화되던 때라 소나무의 곡재를 선주가 구해서 조선소에 공급하거나 조선소가 구입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

또한 외판재인 삼재(森材)는 대일청구권자금으로 조달청 입찰을 통하여 일본으로부터 조달하게 되었으나 당시 일본 측 공급 상사의 부도로 전체 1만 2,000m³ 중 3,000m³만 들어오게 되고 잔여 7,000m³는 조달이 지연되던 중 결국 정부의 국고(예비비)에 의한 조달청 구매로 조달이 되는 등 어선 건조사업 추진에 애로가 많았다. 목선건조에 소요되는 자재수급이 어렵고 주요자재를 외국으로부터 수입 해야 하는 등 문제점이 많아 결국 목선의 선질을 수명이 반영구적인 FRP선이나 강선으로 개량하기로 하여 50톤급 이하는 FRP선, 50톤 이상은 강선으로 선질을 개량했다. 지금은 모든 어선이 FRP와 강선으로 보수해 수리비 등 관리비 절감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선질을 FRP로 개량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우선 어민들의 인식이 FRP선은 중량이 가벼워 바다에서 작업 중 흔들림이나 이동이 심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호수나 내수면에서의 레저용 보트가 아닌 어선으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해서 FRP선 보급화가 상당기간 지연되었다. FRP선은 서울대학교(공대)와 합동으로 연구 개발했고, 시제선을 당시 수산청 청사 입구에 상당기간 전시하여 방문 어민들에게 FRP선의 장점을 설명하기도 했다. FRP조선소 현장을 방문토록 하여 건조(적층) 과정을 견학하는 등 어민들의 이해를 구하는 데 애로가 많았다. 이런 노력 끝에 주로 서남해안의 양식 관리선부터 대체하기 시작하여 점차 전국의 연안 어선으로 FRP선이 확대 보급되었다.

어선기관대체사업은 저효율기관인 소구기관(燒球機關)을 디젤기관으로 대체 개량하는 사업인데, 소구기관은 중량이 무겁기 때문에 바다에서 힘이 좋은데 반해 디젤기관은 고속에다 중량이 가벼워 어로작업에 적합하지 않다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던 어민들을 설득, 이해시켜 사업을 원만히 수행하였다.

또한 어로장비현대화 사업으로 자동조상기, 어군탐지기, 구명장비, 레이더, 방향탐지기, 무전기 등 장비개량과 기존 선박에 냉동기 설치 등 어선의 현대화를 추진하였으며, 선원실과 선내 화장실 설치 등 어선원 후생, 복지를 위한 선내 환경

개선 등을 설계 시 반영하여 어로시설의 생력화·자동화로 승선인원 감축, 어로작업의 효율화와 어획생산증대에 기여하였다.

정부예산 지원으로 건조된 어선은 연안 소형 어선, 근해어선인 채낚기, 안강망, 대형기저, 선망어선을 비롯하여 포경어선까지 건조 지원하였으며 원양참치연승 어선의 국내 첫 건조 시 일부 보조도 지원되었다.

지금은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조선강국이 되었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조선 사업은 어선건조 기술이 효시가 되어 지금의 세계 제1의 조선국이 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만큼 어선은 구조상 다양한 용도의 복합 건조물이기 때문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다. 오랫동안 어선 현대화 과정을 추진해오면서 어려운 일도 많았지만 어선관련 예산확보 과정에서 예산당국과 논쟁을 벌인 때가 많았다.

한 예로, 노후어선대체사업 업무와 어선감척사업 업무를 동시에 담당하면서 필요 예산을 기획예산처에 요구하였더니, 담당사무관이 “어선을 없애는 데에 예산을 요구하고, 어선을 새로 건조하는 데에 필요한 예산을 요구하니 논리에 맞지 않고, 예산도 지원할 수 없다”고 했다. 이에 자원의 적정관리와 어업구조조정상 어선감척의 필요성과 어선 기술개발 및 현대화를 통한 어선의 생력화, 기계화, 자동화 등 인력감축과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기존의 노후 어선을 폐선하고 대체 건조의 필요성을 설명하여 어렵게 예산을 확보하기도 하였다.

지금은 어업협정 및 자원관리를 위하여 적정수준의 어선세력을 조정, 유지하고 있으나 승선인력 부족, 고유가 수입 수산물 증가 등 수산업 여건의 많은 변화에 따라 어선어업에도 인력절감 및 유류절감형 어선의 계속적인 연구개발로 어업인의 경영부담을 줄여가야 할 것이다.

(이광수 / 전국수산물중도매인협회 전무이사)



TAC제도

TAC제도란 총허용어획량 제도를 말하는 Total Allowable Catches의 두문자이다. 어업자원 관리를 위해 개별어종별로 연간 총허용어획량을 먼저 책정하고, 그 한도 내에서 어업자들에게 일정한 배분 기준을 정하여 할당한 다음 이 할당된 어획량 범위 안에서 어업자들이 실제로 어획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전체 어업자원을 관리해 나가는 방식이다.

우리나라가 전통적으로 실시해온 어업자원 관리방식은 어업면허, 어업허가, 어선 톤수와 크기, 그물코의 제한, 어업시기와 어류의 크기별로 제한하여 과잉 어획을 막는 간접적 어업규제 방식이었다. 그러나 TAC는 총어획량 자체의 허용범위를 정하여 관리하는 직접적 어업규제 방식이다. 이러한 TAC제도는 1994년 유엔해양법의 발효로 연안국의 어업자원 관할권이 강화됨에 따라 전통적인 어업관리 제도만으로는 합리적인 자원관리와 지속적인 자원확보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이를 보완하기위해 1999년부터 도입된 새로운 어업자원관리제도이다.

정부는 이 제도의 도입을 위해 1995년 12월 30일 제16차 수산업법 개정을 통해 제54조의2를 신설하여 TAC제도를 처음으로 규정하였으며, 1996년 12월 31일에는

수산자원보호령을 개정하여 제2조와 제3조에 TAC 대상과 범위를 규정하고 제27조의2와 제27조의3을 신설하여 TAC 시행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이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총허용어획량의 관리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1999년부터 실시하였다. 그리하여 2001년 까지 3년간은 시범적으로 운영하였으며 2002년부터는 본격적인 실시에 들어갔다. 시범실시 기간의 대상 어종은 고등어, 전갱이, 붉은대게 등 4종이 선정되었으며, 이어 소라, 키조개, 개조개 및 오징어 등으로 확대되었다. 그리고 여기에 참여 업종은 초기의 대형 선망, 근해통발의 2개 업종에서 이후 근해자망, 잠수기, 근해채낚기, 대형트롤, 동해구트롤 등이 추가되었다.

예를 들어 TAC 초기의 총허용어획량과 이의 소진실태를 보면, 고등어는 1999년 13만 3,000톤, 2000년 17만톤, 2001년 16만 5,000톤, 2002년 16만톤, 2003년 15만 8,000톤을 각 TAC로 책정했는데 여기에 참여한 대형선망의 소진율은 1999년 15만 2,000톤, 2000년 8만 3,000톤, 2001년 15만 6,000톤, 2002년 12만 6,000톤, 2003년 11만 6,000톤으로 매년 90% 이상의 소진율을 보였다. TAC 책정의 적정성과 참여 업체의 호응도가 일치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TAC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국립수산과학원의 자원평가와 사회적 요인을 기초로 매년 어종별 TAC 설정과 할당량 배분에 명확성을 기하고 있으며, 어촌계까지 참여시키고 있다. 또한 적극적인 참여 어업인에 대해서는 경영개선자금을 지원하는 등 어업인들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효과적인 자원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최정윤 / 부경대학교 명예교수)



총허용어획량(TAC)제도 대상 어종



가두리와 육상수조식 양식

가두리식 양식이란 그물로 만든 고기우리의 가두리(cage)를 수면에 뜨게 하거나 수중에 침강시켜 조피볼락과 같은 유영력(遊泳力)이 높은 어류를 주로 양식하는 방법이다. 종류로는 가두리의 설치 위치에 따라 육상가두리, 해상가두리, 표층가두리, 중층가두리, 저층가두리, 연안가두리, 외해가두리가 있으며, 파도나 조류에 대한 저항방식에 따라 내파성 가두리, 부침식 가두리로 나뉘며, 가두리의 형태에 따라 사각형, 다각형, 원형가두리 등 여러 형태가 있다.

대상 어종은 조피볼락, 농어, 숭어, 방어, 참돔, 복어, 새우, 전복, 문어, 해삼 등으로 다양하며 최근에는 참다랑어까지 가두리식 양식대상으로 개발되어 외해양식을 시도하고 있다. 표준 시설기준은 125m²에 가두리 1대를 설치하며, 1대의 크기는 가로 5m, 세로 5m를 기준으로 한다. 그러나 설치 위치와 형태 및 양식대상에 따라 가두리의 시설 방법과 크기 및 형태를 달리할 수 있다. 다만,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면허어장 면적 대 가두리 시설 비율 5~20%는 엄격히 지키도록 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 물고기를 그물 우리에 가두어서 기를 수 있게 한 시설을 ‘가두리’라

하여 수산기술학에 처음 등장한 것은 1976년이며 어류학자 김인배 교수에 의해 지어진 것으로 알려진다. 김인배 교수에 의하면 1976년에 강원도청의 요청으로 춘천 의암댐에 향어(香魚, 이스라엘잉어) 양식지도를 위하여 개발한 양식 시설명을 우리말의 동물 우리에 착안하여 ‘가두리’라 하고 이 시설에 의한 양식 방법을 ‘가두리식 양식’이라 했다고 한다. 그리하여 당시 국내 방어 축양사업에서 흔히 사용하던 일본식 생책망(生簣網), 일본어명 ‘이케스(いけす)’라는 시설을 개조하여 부산에서 인천까지 이것을 트럭으로 운반해 의암댐에 설치한 것이 우리나라에서 가두리식 어류양식의 시초였다고 하는 것이 김인배 교수의 주장이다.

우리나라 수산제도에서 양식어업에 관한 명칭고시가 최초로 이루어진 것은 1966년 10월 18일 수산청 고시 제7호이다. 그러나 이것은 근거 법령도 모호할 뿐더러 관련 자료가 남아있지 않아 그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 수 없는 실정이다. 그 후 4년이 흐른 1971년 1월 22일 제8차 수산업법 개정 시 동법 제8조제4항에



송어 가두리양식

근거하여 같은 해 8월 수산청 고시 제28호로 양식어업에 관한 명칭을 처음으로 고시하였는데 여기에서 11번 항목으로 망활책(網活簣)이라고 하는 양식시설을 규정한 적이 있었다. 또한 1972년에는 양식어장시설기준령(1972.08.25, 농림부령 제498호)이 발표되었는데 여기에서도 제9번 항목으로 망활책이라는 것이 그대로 언급되었다. 물론 망활책은 지금의 가두리를 지칭하는 것이 분명하지만 이때까지만 하여도 일본식 어업용어를 그대로 쓰고 있었던 것이 문제였다.

1976년 7월 수산청은 양식어업의 명칭구분을 새로이 고시하면서 망활책을 삭제하고 대신에 ‘가두리’라는 양식방법을 명시하였으며 이로부터 가두리식양식이라고 하는 명칭이 비로소 제도와 행정을 통해 공식화되기 시작했다.

이와 같이 이미 업계에서는 가두리식 양식방법이 여러 곳에서 성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1970년대 중반까지 가두리식 양식을 망책식양식 또는 망활책양식이라고 하는 일본식 용어로 표현하고 있었던 것이다. ‘가두리’라는 명칭이 수산제도에 반영되기까지의 과정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71.08 양식어업 명칭고시 – 망책식

1972.08 양식어장 시설기준령 – 망활책

1976.07 양식어업의 명칭 구분 – 가두리

1991.05 양식방법의 구분 – 가두리식

2010.08 양식어업의 종류 구분 – 가두리양식어업, 외해양식어업

이러한 과정을 거쳐 성립된 가두리식 양식어업은 1970년대 중반 어류양식어업에 대한 면허가 시작될 때 1975년 면허번호 제206호의 경남 욕지수산업협동조합의 가두리양식어업권이 ‘가두리양식’이라는 이름으로 최초의 면허를 받게 되었다. 이어 2년 후인 1977년에는 전국적으로 27건의 가두리양식어업권이 면허되고, 1990년대에 들어와서는 전국적으로 278건이 면허되었다. 통계청 조사에 의하면

2006년도의 전국 가두리양식 면허면적은 1,194ha에 달하며 총 2,239개 경영체가 연간 4만 3,450톤의 해산어류를 생산하고 있다. 이 가운데 조피볼락 가두리양식은 총 99.6ha 시설에 2만 7,363톤을 생산하여 같은 해 해산어류 총 양식생산량의 63%를 차지하였다.

육상수조식 양식어업은 1990년부터 제도화된 육상양식어업의 일종으로 콘크리트나 합성수지(FRP)로 수조를 만들어 이것을 해안 가까운 육지에 설치하고 여기에서 넙치나 전복 같은 해산어류를 양식하는 방법이다. 영어로는 tanks system culture 또는 tank raising 및 land based rearing으로 표현한다.

이 양식방법은 육상에서 양식장을 관리하기 때문에 생존율이 높고 관리가 용이 하며 양식물의 도난과 자연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원래 이 양식기술은 양식대상 어패류의 종묘생산을 위해 고안된 가온종묘(加溫種苗) 생산시설로부터 시작된 것인데 유영 범위가 좁은 넙치 양식에 이 기술이 도입되면서 크게 성과를 보이게 되자 이후 넙치 양식을 위한 전형적인 기술로 넙치 수조식 양식으로 발전되었다. 넙치 수조식 양식어업면허는 1983년에 국립수산진흥원 종묘배양장에서 넙치 인공종묘 생산기술이 확립되자 바로 그 이듬해인 1984년부터 시작되었으며 이로부터 5년 후인 1989년에는 경기도를 제외한 전국 8개도에 총 160건에 달하는 어업권이 면허되었다.

1984년 처음으로 양식면허를 받은 3건의 육상수조식 양식은 경북과 제주도 및 경남에 각 1건씩이었는데 이 가운데서 경북의 1건은 경북 경주시 감포읍 감포리 장성규 씨의 것으로 경북 제1321호로 면허번호가 밝혀졌다. 다음 제주도의 1건은 제주도 제주시 용담2동의 고문필 씨의 제주 제18호로 면허받은 육상수조식 양식 어업권이다. 이 어장은 제주도 북제주군 애월리, 동귀리 지선에 소재했다. 마지막으로 경남의 1건은 당시 경남 충무시에 본사를 두고 굴수하식 양식어업에 참여한 한려개발(주) 김명년 씨의 육상수조식 양식어장인 것으로 알고 있다는 것이 노섬 교수의 증언이다. 한려개발(주)는 당시에 넙치 양식을 목적으로 거제도 사등

면 견내량 지선에 8각 수조로서 직경 7×7m 규격인 수조 약 30조를 설치했는데 이 양식장이 경남에서는 최초의 넙치수조식 양식장이었을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노교수의 이런 주장과는 달리 한려개발(주) 김명년 사장의 양식장은 면허일자와 면허번호 및 면허기간 등의 자료에 있어 현재 명확한 증빙자료가 전해지지 않고 있다.

넙치를 주된 양식대상으로 하는 육상수조식 양식어업이 활기를 띠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초반이다. 육상수조식 양식어업권은 1980년대 중반에 불과 15건 미만이던 것이 당시 한국양어협회 조사 결과에 의하면 1980년대 말에 50건에서 1990년 말에는 571건으로 증가했다. 이러한 것은 이전까지 수산업법상에 인허가 관계 규정이 불명확하게 되어 있던 것을 1990년 8월 1일 제14차 수산업법 개정을 통해 허가어업으로 제도화하고 이어 신고어업으로 규정함에 따라 반드시 면허에



넙치 육상수조식양식

의해서만 양식어업을 할 수 있는 다른 양식어업보다 간편하게 어업권을 취득할 수 있게 된 것이 주된 요인이다. 그리고 넙치 수조식 양식기술에 대한 적극적인 개발시험이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이루어졌다는 것도 1990년 이후 넙치 수조식 양식어업 발전의 촉진요인이 되었다.

1985년에 국립수산진흥원이 폐낸 양식품종별 표준 설계도에는 살포식 양식을 위시해서 15종의 양식품종별 시설표준이 제시되어 있으나 여기에 육상수조식 양식시설 표준은 제외되어 있다. 마찬가지로 수산청의 1985년도 양식품종별 수익성 분석에서 총 30종의 양식대상 품목이 등장하지만 넙치 양식 경영은 그 대상에 들어있지 않았다. 이것을 보면 1983년에 국립수산진흥원에 의해 이미 넙치 인공 종묘 양식기술은 확립된 상태였지만 넙치 육상수조식 양식기술에 관한 연구는 아직 적극적으로 시도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한다.

육상수조식 양식은 육상에서 여러 가지 양식시설을 설치하여 어류를 계획적으로 양식하는, 마치 육상의 어류생산공장과 다름없는 양식방법이므로 여기에는 어류양성용 수조시설이 기본이며 그밖에 어류의 활동을 촉진시키는 유수시설, 가온 시설, 사료의 저장 및 제조시설, 기계·전기시설 외에 창고시설 등 여러 가지 부대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해양수산부 자료에 의하면 2006년도 기준 전국의 주요 5대 해산어류 양식 가운데서 가두리 사육면적비율이 넙치는 0.3%에 지나지 않으며, 조피볼락은 68%, 참돔은 10%, 감성돔은 7.6%, 송어는 2.5%이며 전국의 어류양식어업 경영체수는 해상가두리식 2,239개소, 육상수조식 659개소, 축제식 207개소, 기타 양식방법 26개소로 당시 해산어류 양식량은 9만 1,000톤 가운데 50%에 육박한다. 이러한 육상수조식 넙치 양식기술의 발달에 따라 2011년 7월 14일 농림수산식품부는 제주도의 육상수조식 넙치 양식사업을 전국 최우수 전략식품사업의 하나로 선정하여 우리나라 양식 넙치의 해외시장 개척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최정윤 / 부경대학교 명예교수)



신화처럼 숨을 쉬는 고래 잡으러~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춰 봐도 가슴에는 하나 가득 슬픔뿐이네
무엇을 할 것인가 둘러보아도 보이는 건 모두가 돌아앉았네
자 떠나자 동해바다로 삼등 삼등 완행열차 기차를 타고~
간밤에 꾸었던 꿈의 세계는 아침에 일어나면 잊혀지지만 그래도 생각나는
내 꿈 하나는 조그만 예쁜 고래 한 마리 자 떠나자 동해바다로
신화처럼 숨을 쉬는 고래 잡으러~
– 송창식의 노래 ‘고래사냥’

미국 소설가 허먼 멜빌의 대표작 『모비딕(Moby Dick)』에서 모비딕이라는 향유 고래를 쫓는 주인공은 “모든 것을 파괴하지만 정복하지 않는 고래여! 나는 너에게 달려간다. 나는 끝까지 너와 맞붙어 싸우겠다”고 외친다. 고래를 잡는다는 것, 그것은 확실히 다른 물고기를 잡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느낌이다. ‘신화처럼 숨을 쉬는 고래’를 잡기 위해 끝까지 맞붙어 싸우는 전쟁 같은 사냥, 포경업에 대해 알아본다.



1980년대 장생포항에서 경매중인 고래 ©울산광역시

포경선에서 고래를 잡는 방법은 이렇다. 포경선의 높은 둑대 위에 망대가 있고, 거기에서 고래가 수면에 나와 공기를 내뿜을 때의 분기(噴氣)를 보고 이를 쫓아가 고래가 숨을 쉬기 위해 수면에 부상하는 순간에 포경포로 작살을 발사한다. 수면 위로 하얗게 솟아오르는 물뿜기는 고래에게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다. 포유류인 고래는 비록 바다에서 생활을 하지만 아가미가 없어 반드시 수면 위로 올라와 숨을 쉬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때를 노려 포경선에서는 떠오른 고래를 향해 포를 발사해 고래를 잡는 것이다.

멀리에서 고래가 뿜어대는 물줄기를 발견해야 하는 만큼 포경선 선원들은 대개 시력이 뛰어났다. 이들은 선상 탐경 가시거리가 보통 3~4km에 달해 보통사람들의 1km보다 훨씬 멀리까지 살필 수 있었다. 고래를 맨 먼저 발견한 이에게는 별도의 '발견 수당'이 지급됐다.

포경선에서 가장 대접을 받는 사람은 선장이 아니라 '포수'다. 능력 있는 포수는 포경선 선주들이 서로 데려가려고 했다. 큰돈을 만지려고 배를 타는 젊은이들이

꿈꾸는 최고의 자리가 바로 포수였다. 잡은 고래를 나눌 때 포수가 가장 큰 몫을 차지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선천적으로 혈우병이 있어서 상처가 나면 피가 멈추지 않아 결국 죽게 되는 고래는 모성애와 가족애가 아주 강하다. 어미고래는 인간의 작살에 죽어가는 새끼고래 곁을 절대로 떠나지 않는다. 이때 아비고래도 필사적으로 주변을 맴돈다. 이런 고래의 습성을 이용해 세 마리의 고래를 다 잡기 위해서는 먼저 새끼부터 작살로 죽이기도 했다.

고래잡이가 우리나라에서 시작된 것은 신석기시대부터였다. 통영 연대도 조개 무지에서 돌고래 뼈와 석제 화살끝, 석촉 등이 출토된 것이 그 근거다. 청동기시대의 것으로 추정되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대현리의 반구대암각화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원시 포경장면이다. 여기에 나오는 고래를 잡는 그림에는 육상 동물 이외에 해양동물도 75점이 있는데 그 중 48점이 고래이거나 고래 비슷한 동물이다. 고래의 종류도 여러 가지가 새겨져 있는데, 고고학자들의 분석에 따르면, 혹등고래, 수염고래, 귀신고래, 부리고래, 범고래, 상괭이로 보이는 6종의 고래가 나와 있는가 하면 새끼고래와 새끼고래를 등에 업은 어미고래도 새겨져 있다. 그뿐만 아니다. 반구대암각화에는 용선(龍船)같은 두 종류의 포경선과 선수에서 작살을 던지는 장면도 묘사되어 있다. 당시에 얼마나 견고한 쇠붙이로 쪼아낸 것인지 2,000년이 경과한 지금도 이 암각화가 생생히 남아 있는 것을 보면 신비스럽기까지 하다.

그러나 정착농경이 발달한 고려시대, 조선시대에 와서는 경상도의 어촌에서 신루지(辰樓脂)라는 고래기름을 구했다는 기록이 남아있는 정도다. 특히 조선시대에는 어구어법이 발달했음에도 불구하고 포경업은 거의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위험하기도 하고 고래를 잡아봤자 관헌이 와서 바로 가져가버리는 등 착취가 심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우리나라가 고래잡이를 하지 않고 있는 동안 외국 사람들이 황금어장인

한반도 연근해의 고래들을 싹쓸이 해버렸다. 19세기 중반 미국, 프랑스, 영국 등 제국주의 열강의 포경 선박이 동해상까지 진출해 엄청난 양의 고래를 포획해 갔다.

우리나라 동해안에 외국의 포경선이 최초로 나타난 시기는 조선 현종 14년 (1848) 3월이며, 미국 포경선 찰스 모건(Charles W. Morgan)호였다. 두 번째는 프랑스 포경선 엘리자(Elija)호였다. 엘리자호가 1848년 동해를 거쳐 간 다음에 1849년 2월에는 프랑스 포경선 리앙쿠르(Liancourt)호가 지나갔다.

동해에서의 근대 포경은 러시아에 의해 시작되었다. 1894년 러시아 귀족 뒤두 모프 깨이제를링(Duiduimov Keizerling)이 장생포에 태평양포경회사를 설립하면서 고래잡이가 본격화되었다. 19세기 후반 동해 포경업을 독점했던 러시아는 1904년 러일전쟁의 패배로 한반도 연안의 모든 포경어업권을 일본에 빼앗겼다. 일본인들은 곧바로 한국 해안에서 본격적인 고래 포획에 착수하였고, 1945년 광복 이전까지 일본의 포경회사들은 한국 해안에서 엄청난 양의 고래를 포획했다.

마지막 포경선 '제6진양호' (울산 고래박물관)



광복 이후 일본에 있던 선원들이 하나둘 들어와서 1946년 가을에 조선포경주식회사를 설립했다. 이후 다른 포경회사가 늘어나면서 1960년대에 포경업은 더욱 발달해 우리나라의 포경어업의 항구적 발달을 위해 조합 설립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1962년에 수협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한국포경수산업협동조합은 이와 같은 배경에서 조직된 포경기업의 유일한 자조적 단체였으며, 나중에 근해포경수협으로 이름을 바꾸어 포경이 전면 금지될 때까지 우리나라 포경어업의 주체로 활동했다. 1985년 10월 해산될 당시 근해포경수협에는 100톤 미만의 포경선이 21척, 경육 운반선 7척, 고래 처리선 2척이 있었다. 그리고 조합소유로 장생포와 어청도 두 군데에 고래 처리장을 보유하고 있었다.

세계적으로 포경 금지 운동이 본격적으로 전개된 것은 1970년대였다. 우리나라 는 1978년에 국제포경규제조약에 가입하여 IWC(International Whale Committee)의 회원국이 되었다. 이후 1982년 영국 브리튼에서 열린 제34차 국제포경위원회에서 고래 자원 보호를 위해 1986년부터 고래조업을 금지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우리 정부에서도 포경을 전격 중단했다. 지금은 어획 대상에 섞여서 함께 잡히거나 자연사하는 고래 연간 80마리 정도가 국내에 유통되고 있다.

포경금지가 자원회복을 위한다고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고래에 의한 수산자원 포식량이 세계 어업생산량의 3~5배에 달한다고 추정되고 있어 이 양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또 고래가 어류를 계속해서 먹어치우면 먹이가 부족해져서 고래 수도 감소하기 때문에 결국 해양생태계의 파괴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에 따라 포경재 개를 지지하는 나라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포경수협 현판 ©부경대학교 박물관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춰 봐도
가슴에는 하나 가득 슬픔뿐이네
무엇을 할 것인가 둘러보아도
보이는 건 모두가 돌아앉았네
자 떠나자 동해바다로 삼등 삼등 완행열차

기차를 타고~



제주도의 해녀, 푸른 물결로 솟구쳐라

홀연히 물살 당기며 이리저리 타고 노니
해엄 배운 오리가 물속에 자맥질하는 듯
다만 바가지만 물 위에 둉둥 떴도다
문득 푸른 물결로 솟구쳐서
급히 허리에 맨 바가지 끈을 끌어올리고
일시에 긴파람으로 숨을 토해내니
그 소리 비장하게 움직여서 수궁 깊이 스민다
인생에 일을 하되 하필이면 이 일인가
그대는 다만 이(利)를 탐내 죽음도 무릅쓰는가
– 조선 정종 때 신광수가 지은 『석북집』 중에서

잡녀(潛女), 잡수(潛嫂)라고도 하는 해녀에 관한 최초의 공식기록은 1630년경 제주도를 다녀간 이전의 『제주풍토기』에 있다. ‘바다에서 미역을 캐는 여자’이면서 ‘부수적으로 생복을 잡아서 관아에 바치는 역을 담당하는 자’로 묘사된다.

해녀는 우리나라와 일본에만 분포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의 해녀는 한반도 각 해안과 여러 섬에 흩어져 있지만 대부분 제주도에 몰려 있다. 해녀의 발상지 역시 제주도로 보이며, 그 기원은 자연발생적인 생업수단의 하나로 비롯되었으리라 추측된다.

어려서부터 바다에서 해엄치기와 무자 맥질을 배우다가 15~16세에 이르면 독립된 해녀가 되는데, 해녀생활은 대체로 60세 전후까지 이어진다. 해녀들은 대부분 농사일을 겸하고 있어서 물질만을 전

업으로 하는 경우는 드물다. 농사일을 치르는 사이에 물때에 맞추어 바다로 나가 물질을 하므로 이들의 밭은 물과 바다에 걸쳐 있는 셈이다. 따라서 해녀들은 밭일과 물질을 한가로운 경우가 흔하다. 해녀작업은 봄에서 가을까지 이어지고 특히, 한여름에 성행하지만 추운 겨울에도 물질을 하는 해녀들이 많다. 그들은 바다에서 무자맥질하여 보통 수심 5m에서 30초쯤 작업하다가 물 위에 뜨곤 하지만, 필요 한 경우에는 수심 20m까지 들어가 2분 이상 물 속에서 견디기도 한다.

해녀들이 숨죽이고 잠수하는 시간을 ‘물숨’이라고 한다. 호흡을 참다가 잠깐 해면으로 올라왔을 때 한동안 참았던 숨이 터지면서 나오는 ‘호오이’하는 소리가 이색적인데 이를 ‘숨비소리’·‘숨비질소리’ 또는 ‘솜비소리·솜비질소리’라 부른다.

이웃과 함께 바닷가에 나간 해녀들은 간편하게 마련된 털의장이나 바위틈에서 ‘물웃’이라는 해녀복으로 갈아입고, ‘눈’이라고 하는 물안경을 낀다. 오늘날의 ‘왕눈’이라는 물안경은 1950년대부터 쓰기 시작하였고, 그 이전에는 ‘족세눈’이라는 쌍안경을 사용했다.



옛날해녀 복장

해녀들이 부력을 이용하여 가슴에 안고 해엄치는 ‘테왁’ 밑에는 채취물을 담는 자루 모양의 ‘망시리’ 또는 ‘망사리’, ‘망아리’라고 하는 것이 달려 있다. 해녀들이 무자맥질할 때에는 이 ‘테왁’과 ‘망시리’를 물 위에 띄워둔다.

그 밖의 기구로는 전복 등을 캐는 길쭉한 쇠붙이인 ‘빗창’, 해조류를 베는 ‘정게 호미’라는 낫과 조개 등을 캐는 쇠꼬챙이 갈퀴인 ‘갈고리’ 등과 물고기를 쏘아 잡는 ‘소살’이라는 작살이 있다.

나잠어장의 구조에 따라서 해녀작업에는 ‘갓물질’과 ‘뱃물질’이 있다. 해녀들이 폐지어 해엄쳐 나가서 물질하는 경우를 ‘갓물질’이라 하고, 15명 내외씩 배를 타고 나가서 치르는 작업을 ‘뱃물질’이라 한다. 그들은 마을 단위의 어촌계에 가입함으로써 공동체를 이루며, 또한 해녀회나 잠수회를 조직하여 해녀들의 입어시기, 공동채취, 입어관행 등을 자치적으로 결의하고 수행한다.

해녀들은 자기 고장에서만 작업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방이나 외국으로 나가 몇 개월씩 출가생활을 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해녀들을 출가해녀(出家海女)라 한다. 그들은 경상북도와 강원도를 거쳐 청진에 이르기까지 점점 동해안 일대를 누비며 북상했고, 남해안·서해안 및 울릉도·흑산도에 이르기까지 본토의 각 해안뿐만 아니라 객주의 인솔에 따라 일본 각지와 블라디보스토크, 요동반도의 다롄, 산동성의 칭다오까지도 진출했다.

이들의 출가 이유는 본토의 각 연안이나 외국 바다에도 값이 비싼 해조류와 패류 등이 많았으나 이를 캘 해녀가 없으므로, 그곳에 가서 제주도에서보다 더 높은 수익을 얻기 위해서였다. 1920년대부터 광복을 맞을 때까지 일본 각처에 약 1,500명, 우리나라의 각 연안에 약 2,500명이 출가하였던 것으로 전한다.



광복 이후 출가는 우리나라의 각 연안에 국한되었고, 1960년대 초까지는 경상북도 구룡포·감포·양포 등 영일만 일대에만도 수천 명씩 집중적으로 나갔는데, 지금은 출가인원이 현저히 줄고 있다.

독립운동사에서도 해녀에 관한 기록을 찾아볼 수 있다. 일제강점기 때 어업조합이 발족하면서 많은 문제를 야기하자 1931년, 제주도 북제주군 구좌면 일대 해녀들이 9개 조항의 진정서를 도사(島司, 일제강점기 도지사의 감독하에 섬의 행정사무를 맡아보던 관직)에게 제출했다. 하지만 반응이 없었고 이들의 불만은 1932년 1월 24일 구좌면 세화리 잠수사건으로 폭발했다. 도사가 이곳을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1,000여 명이 세화리 주재소 앞에 모여들었다. 이들은 양손에 비창, 호미 등



입선_물질가는길(이형범)

을 들고, 머리에 흰 물수건을 동여맨 채 길을 가로막고 항의를 시작했지만 도사는 아무런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고 자리를 피하려 했다. 분노의 불길은 더욱 높아져 급기야 관용차를 대파했으며, 결국 긴급 출동한 일본 경찰과 충돌하기에 이른다. 당시에 불리던 노랫말이다.

우리들은 제주도의 가엾은 잠녀
 비참한 살림살이 세상이 안다
 추운 날 무더운 날 비가 오는 날
 저 바다 물결 위에 시달리는 봄
 아침 일찍 집을 떠나 어두우면 돌아와
 어린 아기 젖 멜이명 저녁밥 진자
 하루 종일 해봤으나 번 것이 없어
 살자 하니 한숨으로 잠 못 이룬다

최근에는 제주 해녀를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하고, ‘해녀의 날’을 지정하는 등 해녀를 체계적으로 보존·전승하기 위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2011년 7월 7일 제주도가 마련한 제주 해녀문화세계화 5개년(2011~2015년) 기본계획에 따르면, 해녀문화와 관련한 유·무형의 콘텐츠를 개발, 도내 6개 수협과 100개 어촌계, 해녀 가족, 도민, 관광객 등이 참여하는 해녀 축제를 개발한다. 축제에는 전남, 울릉도, 강원도 등 제주를 떠나 타향에서 생활하는 제주 출신 해녀와 일본 해녀 등을 초청, 국제적인 행사로 키울 계획이다.

또한 1단계로 2012년까지 해녀를 국가 비지정 무형유산 잠재목록에 등재하고, 2014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목록에 등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제주도는 해녀가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는 날을 ‘해녀의 날’로 지정할 방침이다.

(참고문헌 : 주강현, 『관해기』, 2006)

인생에 일을 하되
하필이면 이 일인가
그대는 다만 이(利)를 탐내

죽음도 무릅쓰는가

– 조선 정종 때 신광수가 지은『석북집』 중에서



입선_작업(유인자)



바닷물과 햅볕으로 만드는 하얀 소금꽃

햇빛이 현기증을 물어 나른다 끌려온 바다는 점점 핏기를 잃어가고
몸뚱이마저 네모난 틀에 제압당하는 수모를 겪었다
그 깊고 푸르던 물지느러미 잘린 채 파닥이는 몸부림, 저 마른 뒤척임은
이제 파도가 아니다 물결 한 채 짓지 못할 자신을 확인하고
심장의 마지막 물 한 뒷박 퍼 올려 정한 몸 만든다 수차에 휘감기며
고무래에 밀리며 졸아든다 구르고 부딪쳐 생긴 상처마다 흰 딱지가 않는다
그렁그렁 눈물이 맺힌다
묵언에 든 져 많은 사리(舍利)들, 눈이 부시다
– 이애경 시인의 〈염전〉

어느 해의 여름이든, 혹은 가을이라도 별만 좋다면 염전에서는 소금을 내느라 여념이 없다. 드넓은 염전 위로 햅볕이 내리쬐면 맑은 물에 새하얀 소금꽃이 피기 시작한다. 바닷물과 햅볕과 바람이 만나 만드는 천일염은 땀의 결정체이기도 하다. 단지 염화나트륨이 아닌, 인간과 자연이 만난 조화의 산물이다.

염전의 천일염은 수로를 통해 받아들인 해수를 저수지에서 마지막 결정지까지 23~25일간 최고 24단계를 거쳐 생산된다. 먼저 깨끗한 바닷물을 끌어들여 저수지에 저장했다가 수로를 통해 증발지로 보낸다. 증발지에서는 해수를 통상 1주일 정도 증발시켜 소금물을 만든다. 그리고 소금물을 결정지에서 분리해 내는 작업 등을 거친다.

소금 중에도 제일로 치는 소금이 있다. 송화(소나무의 꽃가루)가 염전에 떨어지는 5월의 보름 정도 사이에 만들어지는 송화소금을 소금 중의 으뜸이라고 한다. 서해안 갯벌에서 나는 미네랄이 풍부한 소금에 각종 유효성분이 들어있는 송화가 자연스럽게 흡수되어 다른 소금들과는 사뭇 다른 진미를 낸다.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바닷물에서 소금을 생산해왔지만 천일염의 역사는 그리 길지 않다. 바닷물의 염도를 높인 뒤에 끓여서 석출하는 자염은 삼국사기에도 기록이 있을 정도로 그 역사가 오래된 반면 천일염은 일제강점기 때 들어왔다. 1907년 탁지부에서 인천의 주안에 천일염 시험장을 설치한 것이 그 시초였다. 자염을 만드는 전오염제조법은 생산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염전을 개발하기보다는 값싼 중국산 소금을 주로 수입하여 사용하고 있어서 천일염으로의 전환을 통해 소금의 자급자족을 도모하기 위한 시도였다.

천일염전의 개발은 광복 이전까지 대동강 하구의 광량만을 중심으로 행해져 광복 이후 소금이 크게 부족하게 된 데다 6·25를 거치면서 소금 생산이 대폭 줄어들었다. 이에 정부가 민영 염전의 개발을 적극 장려하고 나서면서 염전 면적과 소금 생산량이 급격히 증가해 자급자족이 이뤄지게 되었다.

이후 1979년에 울산에 이온교환식 기계염 공장이 건설되었고, 화학 소금의 생산량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자연에 대한 의존도가 크고 노동집약적인 천일제염업은



금상_작업(송일달)

큰 압박을 받게 되었다. 게다가 국토개발 계획의 시행에 따라 기존 염전이 공업용지 등으로 전용되기도 하고, 1997년에는 소금수입자유화 시행에 따라 정부와 대한염업조합의 폐전정책이 진행되면서 천일염의 생산량은 계속 줄어들었다.

해양생태공원으로 변한 경기도 시흥시 일대의 염전이 화학 소금들에 밀려 퇴락의 길로 접어든 오늘날의 상황을 잘 말해주고 있다. 그나마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전통적인 염전은 경기도 화성시의 공생염전과 남창염전, 전남 신안군 비금도의 대동염전과 중도의 태평염전 정도다.

우리나라의 천일염은 1963년 염관리법이 제정된 이후 45년간 광물로 분류되면서 법적으로는 식품이 아니었다. 하지만 2008년 3월 28일부터 염관리법과 염업조합법을 개정하면서 비로소 식품위생법상의 식품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또한



동상_겨울염전(박종권)

2010년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천일염 제조업자도 어업인의 범위에 포함되었으며 이에 따라 영어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중국산과 호주산 소금의 수입으로 위기를 맞기도 한 염전은 이제 품질을 내세워 새로운 돌파구를 찾고 있다. 수입염의 경우 염도가 95%대에 육박하지만 천일염은 85%대로 식용에 적당하다. 갯벌소금이라 미네랄이 많다는 것도 장점이다. 소금을 한마디로 '바다가 생물에게 주는 은혜로운 선물'로 표현하는 일본 자연의학회 치넨 류이치(知念隆一) 사무국장이 한국 소금을 세계 제일이라고 극찬한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다. 우리 염전에서 프랑스 게랑드 염전의 명품소금을 능가하는 웰빙 천일염을 생산하게 될 날도 멀지 않았다.

바닷물과
햇볕과
바람이 만나
만드는 천일염은

땀의

결정체이기도 하다





황토 친환경 치료제

평생 황토를 이용하여 잉어 양식을 해온 류도옥 선생은 황토가 우리 수산업에 새로운 희망을 안겨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1973년 양식업을 시작한 이후 그동안 연구해오던 황토와 양식업을 접목하는 실험을 했다. 주로 했던 연구는 물고기의 상처, 피부질환, 세균성 아가미 부식병, 부패한 사료로 인한 손상, 독극물에 의한 폐사 직전인 어류의 상태를 호전시키는 것이었다. 대부분의 증상은 초기 일 경우 황토를 치방하면 완치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물고기가 치료된 이유를 살펴보면 황토 한 숟가락에는 약 2억만 마리의 미생물들이 다양한 효소들의 순환작용을 일으킨다. 그 작용은 해독과 항균을 돋게 되고 그 물을 마실 경우 중금속을 배출시키기도 하여 다양한 질병을 완화시킬 수 있었던 것이다. 게다가 물속에 황토를 넣을 경우 물이 정화되고 산소량이 증가한다는 것은 이미 실험으로도 입증된 사실이다.

또한 황토는 적조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큰 효능이 있다. 1980년대 전국적으로 적조가 확산됨에 따라 굴이나 피조개만 죽이던 것이 독성이 강화되어 모든 어패류를 집단 폐사시키는 일이 발생했다. 그 역시 1970년대 적조로 인해 하룻밤 만에

100여만 마리의 치어가 폐사된 적이 있었다. 그리고 그 어장에 황토를 풀어 개선시킨 경험이 있었다. 그는 황토를 처방하자고 건의했으나 아무도 귀담아 듣지 않았다. 당시 정부는 계면활성제로 적조문제를 해결하려 했으나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말았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고 끊임없이 황토의 효능을 설명하고 외국에 발표하기도 했다. 외국에서도 황토에 대한 실험을 진행하였고, 그 효능에 대해 잡지에 게재하기 시작했다. 그때서야 사람들은 황토에 대해 묻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적조가 발생하기 시작하고 십수년이 지난 후였다.

갈수록 적조가 심해져 일부 지역의 어업인들은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을 정도가 되었다. 이에 1996년 해양수산부의 신상우 초대장관이 그를 찾아와 황토에 대해 자세히 물었고, 그 이후 황토를 처방할 것을 지시했다. 그 결과 첫 해 21억 원의 피해를 막는 데 성공했으며, 그 후에도 매년 수억 원에 달하는 피해를 줄여 나갔다. 그런 공로를 인정받아 그해 '적조와 수산피해 구제 대책'에 대한 수산정책 포럼에 초청받아 해양수산부로부터 감사패를, 2001년에는 정부로부터 철탑산업훈장을 수상했다.

이렇듯 황토는 물고기의 병을 예방하고 치료할 뿐 아니라 바다를 정화시키기도 한다. 세계가 한창 친환경 수산물에 대해 열을 올리는 지금, 황토는 어쩌면 우리에게 희망을 가져다 줄 고마운 선물일지도 모른다.

(참고 문헌 : 류도옥, 『황토의 신비』, 1995)



적조 확산 지역에 황토 살포(2001)



‘어업인의 날’ 부활 숙원을 풀다

“어민의 날은 있어야 한다. 그 날짜는 이순신 장군의 탄신일과 중복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유는 국가적 행사에 어민의 날 축제가 아주 작게 보여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별도의 날로 정하지 말고 수협 창립기념일과 일치시켜 부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1970년대 중반 ‘어민의 날’ 부활 문제에 대한 노산 이은상 선생의 의견

어업인을 위한 국가기념일이 최초로 제정된 것은 1969년 4월 1일이다. 당시에는 ‘어민의 날’로 제정되었지만 불과 4년 만인 1973년에 ‘권농의 날’로 통합되면서 아쉽게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권농의 날’ 역시 1996년에 폐지되었고 같은 해 11월에는 다시 ‘농어업인의 날’로 변경되지만 이듬해인 1997년부터 ‘농어업인의 날’은 ‘농업인의 날’로 변경되면서 ‘어업인’은 빠졌다. 그리고 어업인의 날은 해양수산부 출범과 동시에 시작된 ‘바다의 날’ 행사에 어업인이 참여하는 것으로 전환되었다.

그러나 ‘바다의 날’마저도 그동안 해운과 해양레저 위주로 진행되었고, 해양수산부 폐지 이후에는 국토해양부 주관 행사로 바뀌면서 어업인과 수산업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고유의 기념일을 제정하는 것마저도 상대적으로 홀대를 받아왔다. 이에 어업인의 권익 향상과 위상 확립을 위하여 ‘어업인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하자는 의견이 어업인과 국내 수산업계에서 꾸준하게 제기되어 왔다.

어업인들의 숙원은 ‘어민의 날’ 폐지 이후 무려 38년 만인 2011년에야 이루어졌다. 2011년 6월 29일, 어업인의 위상확립과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수협의 창립기념일인 4월 1일을 ‘어업인의 날’로 지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수산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이다. 자원 고갈과 조업 여건 악화로 어려움에 처한 어촌과 어업인들에게 모처럼 전해진 희망적인 소식이었다.

당초 어업인과 수산단체들이 의견을 수렴해 ‘어업인의 날’로 제시한 것은 휴가철 어촌관광과 연계할 수 있는 ‘7월 7일’이었다. 7/7이 한자 수(水)의 형상과 비슷하다는 의미도 있었다. 하지만 한국농어촌공사가 7월 7일을 ‘도농교류의 날’로 추진하고 나서면서 이는 무산되고 말았다.

이에 ‘농어업인의 날’이었던 ‘11월 11일’, 고 유정충 선장의 뜻을 기리기 위한 ‘3월 9일’, 수협의 창립기념일인 ‘4월 1일’이 대안으로 제시되었다. 1996년에 ‘농어업



제1회 어업인의 날

인의 날’이 11월 11일로 정해진 것은 그 날이 한해의 농사를 마감하는 시기인 데다 한자 흑토(土)가 十一(십일)이 되어 겹치기 때문이었다. 또한 3월 9일은 1990년 3월, 조업 중이던 속초선적 ‘하나호’가 거센 파도에 침몰하게 되자 선원 21명을 모두 구명정으로 피신시키고 끝까지 조타실에 남아 구조신호를 보내다 끝내 유명을 달리 한 고 유정충 선장의 의로운 죽음을 기리자는 의미였다. 이와 같은 의견들이 있었지만 결국 어업인의 대표기관인 수협이 탄생한 ‘4월 1일’로 국회에서 최종 확정되었다.

이날을 택하여 어업인만을 위한 독자적인 국가기념일이 부활한 것에 대해 전국의 어업인은 물론 어촌계, 수협조합원 등 수산업 종사자들은 크게 환영했다. 아울러 ‘어업인의 날’이 어업인의 위상을 제고하고 침체된 국내 수산업 분야를 육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감추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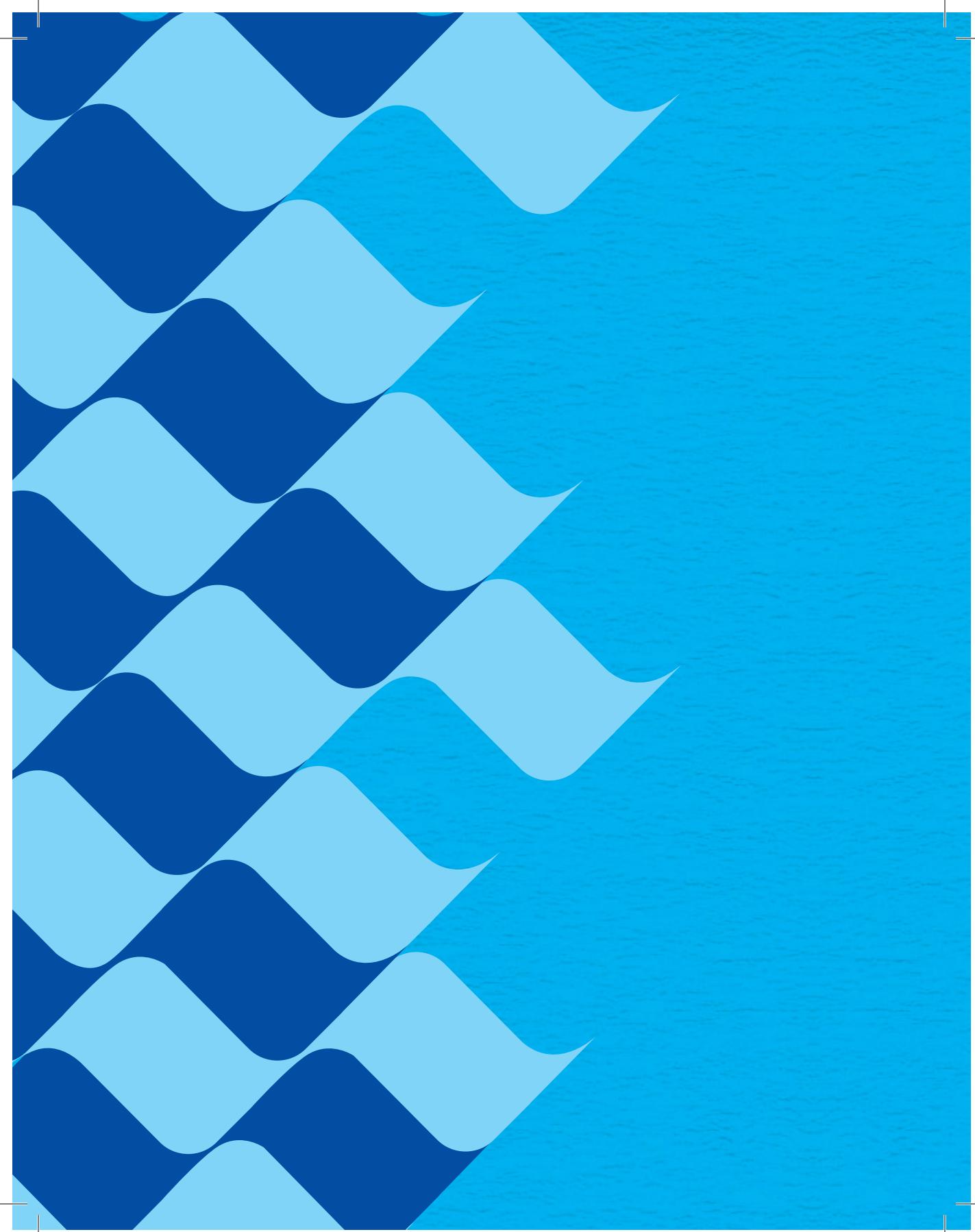
‘제1회 어업인의 날’ 기념식은 2012년 3월 30일 일산 킨텍스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4월 1일이 일요일인 점을 감안해 기념식을 3월 30일로 앞당겨 개최한 것이다. 김황식 국무총리를 비롯해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이종구 수협중앙회장, 어업인과 관계자 등 1,000여 명이 참석한 이날 기념식에서는 유공자 포상, 어업인의 날 기념 퍼포먼스, 풍어제 기원 등 성대한 축제가 펼쳐졌다. 시상식에서 이종구 수협중앙회장은 40여 년간 수산인의 권익 향상, 어업인 복지증진, 수협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로 최고 영예인 금탑산업훈장을 수상했다. 또한, 수산의 현재와 미래를 조명해볼 수 있도록 ‘기술혁신을 통한 수산업의 녹색성장’이라는 주제의 특별 전시코너가 마련됐으며, 수협 창립 50주년 기념 ‘바다사랑 어촌사랑 사진전’ 수상 작품과 ‘바다숲 사진전’ 등 전시행사도 함께 열렸다.

수협 탄생 50년과 같이 하는 ‘어업인의 날’ 부활은 수협과 어업인이 상호공존함으로써 ‘위대한 수협, 행복한 어업인’으로 재탄생돼야만 그 역사적 의의가 있을 것이다. 전시효과적인 기념행사에만 그치지 않고 우리나라 수산 중흥의 새로운 전기를 모색하는 기회가 되어야 할 것이며,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거센 풍랑을 헤치며 지나온 전국 어업인들의 앞날을 밝게 비추는 등불이 되어야 할 것이다.

수협 탄생 50년과 같이 하는
‘어업인의 날’ 부활은
수협과 어업인이 상호공존함으로써
‘위대한 수협, 행복한 어업인’으로
재탄생돼야만

그 역사적 의의가 있을 것이다.





수 협



어촌에 희망의 짹을 틔운 일당백의 전사들

거칠고 힘든 환경 속에서 진정한 전사가 태어난다고 했던가. 일선 어촌계에 파견된 지도원들은 반복되는 풀무질 속에서 진정한 강철이 완성되듯이 스스로를 활활 타는 용광로 속으로 투신했다. 그들은 그와 같은 각오와 노력으로 수협의 일선 촉수 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 어촌계를 건설하였다. 일선 어촌계에 파견된 지도원들은 수협의 어려운 사업만을 도맡아 하는 수협의 특수전 부대원들이나 마찬가지였다.

– 『어촌 근대화의 기수, 56명의 상록수』 본문 중에서

지금은 폐지되어 사라졌지만 한때 수협 ‘어촌지도원’은 어촌의 희망이었으며, 등대 같은 역할을 해온 숭고한 존재였다. 1960년대의 어촌, 삼면 해안에 터전을 잡은 150만 어업인들의 삶은 힘들기 짹이 없었다. 그들에게는 내일이 없었고, 오로지 당장의 생활이 문제였다. 숙명처럼 받아들인 가난 속에서 어업인들은 하루하루 생활을 아무 의미 없이 보내고 있었다.

모든 것이 부족하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수협은 협동조합다운 모습으로 발전

하기 위하여, 가장 낙후한 지역인 어촌을 잘 사는 마을로 변화시키고 의욕을 잃은 어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노력을 시작했다. 그 노력은 수협의 조직적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어촌을 발전시킬 수 있는 소수 정예의 전사들을 양성하는 데에서 출발했다.

협동조합 운동의 새로운 계기를 마련하고 안팎으로 처해있던 절박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수협은 지도원(처음 명칭은 교도원)의 양성과 일선 어촌계 배치를 계획했다. 1966년 초가을 주요 일간지에 대대적인 지도원 채용공고부터 냈다.

공개 공고에는 특히 우대함이라는 문구와 함께 '수산계 대학과 수산계 고등학교 출신 우대'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응시자는 수산대학을 졸업하거나 중고등학교에 재직하는 교사들과 일선조합에서 근무하다 '특히 우대함'이라는 문구에 매력을 느껴 입사 지원한 응시자들이 많았다. 1966년 10월에 50명을 선발하고 그해 12월에 6명을 추가 선발했다.

공개 채용을 통해 선발된 지도원들의 학력과 경력 수준은 매우 높았다. 이들은 별도로 마련된 교육과정을 통해 현장 배치가 이뤄졌다. 교육은 강도 높게 진행되었다. 수산업 일반에 관한 교육은 물론 전문기술 교육, 의식개혁, 생활개선과 어업인 오락 교육까지 함께 이뤄졌다. 지도원들을 협동조합 운동에서 일당백의 전사로 만들기 위해 3주 동안 혹독하게 진행한 교육이었다. 그 다음에 또 부산의 어민 훈련소(수산진흥원)에 입소해 2주 동안 굴, 김, 어로 등에 관한 전문수산기술교육을 받은 뒤 다시 서울 동교동에 있던 협동교육원에서 신용협동조합 교육까지 받아야 했다. 이후로도 협동교육원에서는 수시로 2주 또는 3주에 거쳐 보충 교육이 이뤄졌다.

교육을 마친 지도원들은 바로 어촌으로 출발했다. 사명감과 책임의식으로 무장하고 임지로 발령받았지만 그들의 손에 들려진 것은 정작 아무 것도 없었다. 모든 것은 현지에 가서 사정을 파악한 뒤에 그곳에 맞는 지도사업을 벌일 것을 지시받았을 뿐이었다. 실험기기와 어로장비가 변변치 않은 데다 먹을 것이 없어서 아이



어촌지도원 메달

울음소리가 집밖으로 새어나오는 가난한 어촌, 게다가 외지 사람들에게 특히 배타적인 어촌 사람들, 참담하기까지 한 현실과 마주하게 된 지도원들은 막막했다.

지도원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는 오직 하나, 바로 어촌 근대화가 수협운동 확산이라고 하는 사명감이었다. 그들은 열악한 환경을 대하고서도 열정을 잃지 않았다. 그런 열정이 지도원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스스로 강제하게 만들었다. 그들은 스스로 어업인들에게 모범을 보이기 위해 노력했다. 노젓는 법을 모르는 지도원은 임자 없는 나룻배에 올라 타 노젓는 연습을 반복했다. 매일 같이 노젓는 연습을 하다 보니 나중에는 손바닥에 물집이 잡히고 그 물집이 터지는 일이 반복되었다.

어업인들과 일체감을 형성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지도원들은 어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생활습관 개선운동이 급선무라는 것을 깨달았다. 마을마다 만연해 있는 노름 풍조 없애기, 무절제한 음주 자제시키기, 아침에 일어나서 골목길 청소하기 등의 생활 개선은 물론이고 산아제한 사업, 공동사업, 부업 장려 등의 활동에도 참여했다.

지도원들의 헌신적인 활동은 점차 마을 주민들의 인식을 바꾸어 놓았다. 패배주의나 뿌리 깊은 관에 대한 불신 풍조가 점차 사라졌으며 대소사가 있으면 지도원과 상의를 하여 결정을 할 정도가 되었다.

다음 단계로 지도원들은 기술 지도를 통한 생산 증가와 어업인 소득 증대를 위해 나서야 했다. 먼저 주목한 것은 양식 등 기르는 어업이었다. 김, 굴, 미역 등의 양식어업에 대한 현대적 기술 지도를 통해 마을 주민들의 신뢰는 한층 깊어졌다. 아울러 어촌의 풍경도 달라지기 시작했다. 새로운 양식어업 기술이 자리



어촌지도원 대어민 봉사

를 잡기 시작했고 부랴마다 결성된 신용조합을 통해 저축하는 습관도 자연스레 생겨났다.

지도원들은 여러 가지 지도활동을 병행하면서 자신이 이 어촌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찾기 시작했다. 그 중의 하나가 아이들의 교육이었다. 교사가 없어서 교육을 받지 못하는 어촌 자녀들에게 교육을 시키는 일, 야간재건학교의 시작이었다. 주민들에 대한 문맹 퇴치 운동과 함께 야간재건학교 운동을 열정적으로 펼쳐 나갔다.

그리고 1968년 말, 신용협동조합 결성운동에 나섰다. 지도원들은 수협 역사상 가장 뚜렷한 족적을 남긴 업무와 마주치게 된 것이다. 수협 역사상 그 유명한 '100억 자체자금 조성운동'의 현장 실천운동이었다. 이제 겨우 신용협동조합을 만들기 시작한 어촌계에서 100억이라니! 지도원들은 난감했다. 하지만 그들은 역시 일당백의 전사들이었다. 어촌과 어업인을 위해서, 단 그 한 가지 대의명분으로 기꺼이 100억 자체자금 조성운동의 전도사 역할을 떠맡은 것이다.

이후 지도원들의 활동은 눈물겨웠다. 강습할 차트를 어깨에 짊어지고 삼면 해안 어촌을 빠짐없이 돌았다. 이미 걷는 데에 이골이 난 그들이었다. 차편, 배편이 닿지 않는 오지 어촌까지 순회하며 신용조합 결성과 자체자금 조성운동을 알리고 전파했다.

이렇게 하여 처음에 불가능해 보였던 100억 자체자금 조성운동은 지도원들의 피나는 노력과 어민들의 동참으로 예정 기간을 훨씬 앞당겨 3년 만에 이뤄졌다. 가난이 대물림되던 어촌은 이제 눈에 띄게 변화하기 시작했다. 유명무실했던 일선 어촌계는 자체자금 조성과 절약운동을 통해 신용조합으로 거듭났다. 그뿐이 아니었다. 공동사업과 공동구매·판매사업을 통해 소득 증대는 물론 적립금을 마련해 자립의 터전을 닦고, 생활개선운동을 통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의 싹을 틔우고 있었다. 그 희망의 싹에 거름이 되고, 물을 뿌려준 이들이 바로 1960~1970년대의 수협 어촌지도원들이었던 것이다.

일선 어촌계를 조직하고 어업인들을 변화시킨 지도원들은 1970년대 들어 대출금 회수사업, 군납 사업, 면세유 부정유출방지 등의 업무에까지 투입되면서 수협의 기동타격대로 불렸다. 그런 업무까지 맡게 된 것은 수협조직의 급속한 안정과 일선 어촌계의 환골탈태로 중앙회에서 지도원들에게 요구하던 업무에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이었다.

지도원 문제로 고심하던 수협중앙회에서는 지도원들에게 사령장을 준 지 5년 만인 1972년에 환직시험제도를 내놓았다. 시험을 봐서 일정 요건을 갖추면 수협 정식직원으로 채용하겠다는 취지였다. 그 소식을 전해들은 지도원들은 낙담했다. 젊음과 뼈를 깎는 노력이 그와 같은 대접을 받는 것에 분노하는 지도원들도 있었다. 실제로 수협중앙회의 그와 같은 제안을 받고 수협을 떠나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다. 그렇지만 시험은 예정대로 진행되었고 구둣발로, 삼면해안을 누비며 열정을 불사르던 수협 지도원들의 시대는 그렇게 마감되었다.

수협 어촌지도원들은 수협이 일선 조직을 갖추지 못하고 있을 때, 전국의 어촌계를 수협의 말단 지구 조직으로 전환시키는 데 결정적으로 공헌을 한 사람들이었다. 수협의 시초였으며 오늘날의 수협이 있게 만든 초석이었다.

가장 낙후하고 희망이 없는 지역으로 나아가 일선 어촌계에 새바람을 일으킨 사람들. 궁핍한 삶에 허덕이던 어촌에 파견되어 잘 사는 어촌을 위해 온몸을 던진 지도원들은 우리 어촌 발전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영웅들이다.

지도원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는
오직 하나, 바로 어촌 근대화가
수협운동 확산이라고 하는 사명감이었다.
그들은 열악한 환경을 대하고서도

열정을 잊지 않았다





객주세력 근절을 위한 새로운 수산물 판매질서 확립

수협이 발족할 무렵인 1960년대 초, 우리 어촌의 현실은 참담했다. 보릿고개를 힘겹게 넘기던 농촌보다도 더 피폐하고 궁핍한 생활이었다. 희망은 그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았다. 우리나라 수산업의 후진성과 어촌경제의 빈곤을 초래한 원인 중의 하나는 이른바 ‘객주’라고 불리던 전근대적 상업자본가에 의한 경제적 착취에 있었다.

원래 객주는 유통기관이었으며 유통제도가 미발달한 조선시대와 일제강점기에 는 중요한 존재였다. 그러나 상품의 위탁매매를 주요 업무로 하고 금융, 여인숙, 도매, 보관, 운송까지 겸한 객주가 고리채 수산금융과 수산물 유통과정에서의 가격조작으로 어업인들을 착취하였다. 1950년대에는 객주세력의 창궐과 횡포로 인해 수산단체의 위판기능이 마비되는 사례마저 빈번할 정도였다.

대대로 물려온 가난과 객주의 착취에 시달리던 어촌은 당시 가장 낙후된 지역으로 손꼽혔다. 소도 비릴 언덕이 있어야 하듯이 어업인이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자금이 필요했지만 그것을 구할 방도가 마땅치 않았다. 바다에 나가 어로작업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선박이었다. 그런데 정작 배가

절실한 어업인들 대부분은 배를 갖고 있지 못했다. 배라고 있어봐야 연안어업에나 가능한 소형 무동력선이 전부였다.

어로기가 다가오면 어업인들은 발을 동동 굴렸다. 어촌을 중심으로 세력을 형성한 객주들은 돈줄을 틀어쥐고 어획 작업에 나설 돈을 풀지 않았다. 어촌 사람들도 객주에게 빌리는 돈의 성격을 모를 리 없었다. 그 돈을 빌리게 되면 당장 어로 작업에 나설 수는 있지만 돌아온 뒤에는 고리채로 갚아야 하고, 자신들의 어획물을 헐값으로 객주에게 넘겨야 한다는 사실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실상 고리채로 갚고 나면 막상 손에 쥐는 것은 아무 것도 없었다. 설상가상으로 어업인들은 애써 잡아온 고기를 객주에게 넘겨주어야만 했다. 돈을 빌리는 조건이 그것이었기에 어쩔 도리가 없었다. 그렇게 되면 객주들은 돈을 빌려주고 받는 고리의 이자에 고기까지 싼 값으로 구입할 수 있었다. 객주들이 이문을 불려가는 동안 어업인들의 가난은 더욱 심각한 구렁으로 빠져들었다.

객주(客主)는 객상주인(客商主人)의 줄임말이다. 학자 최호진은 『근대조선경제사』에서 “객주나 여각의 전개는 이미 수백 년도 더 된다”고 정의하고 있을 만큼 그 연원이 깊고, 따라서 어쩌면 고려시대나 그 이전까지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는 설까지 내놓고 있다.

『한국수산지』에 의하면 객주는 제반 상품의 유일한 판매기관으로 전국에 산재해 있었는데, 그 업종은 도매에서부터 위탁판매 및 중매에까지 확대되고 있었고, 거기에 대부업과 환전업무도 병행했다고 한다.



부산중앙어시장



인천 객주회(1936)

조선시대의 제반 산업을 요약한 『조선산업지』를 보면, 명태 조업의 경우 자본가들이 자행한 수탈 사례를 다음과 같이 고발하고 있다.

자본이 빈약한 어민은 자본주로부터 돈을 빌리는데, 그러면 자본주가 반드시 물 양장으로 내왕하여 어획물 전량을 인수하는 방식을 썼다. 대부금에는 한 달 3푼의 고리가 따라붙었고, 자본주가 직접 매수할 때는 상당액을 깎아 내리기도 하였다.

『한국수산지』에는 보다 상세한 수탈 방식이 소개되고 있다.

자본주는 어기 동안 수시로 어획상황을 파악하면서 행여 어민이 타인에게 밀매라도 할까 봐 대리인을 파견하거나 신임하는 사람을 공공연히 감독관으로 투입시켰다. 금전 이외의 어망이나 기타 어구 및 주·부식 등에 대해서도 월 3푼의 이자를 적용했다. 돈을 빌려 줄 적에는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만약 불황으로 돈을 갚지 못하면 그간 미수된 이자를 가산하여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였고, 거기에도 월 3푼의 이율을 적용하였다. 돈을 빌려준 대가로 어민으로부터 어획물을 확보한 자본주는 그것을 지방 점포와 행상들에게 넘겼다.

대부금 회수는 모두 어장에서 이루어졌다. 거기에는 자본주가 내보낸 별도 선박인 출매선(出買船)이란 것이 따라붙고 있어서 어업인들이 고기를 잡으면 곧장 출매선 갑판으로 옮겨진 게 그것이었다. 그럴 때는 명태나 조기 1,000마리를 현장에서는 700마리로 싸잡아 계산하는 식이었다. 자본이 빈약한 어업인들은 출어경비를 조달하느라 빚을 지게 마련이었고, 정작 고기를 잡은 다음에도 어획물을 직접 판매 하지도 못하고 빈손이 되기 일쑤였다.

당시 어업인들은 생산물의 대부분을 그렇게 수탈당했으므로 그들의 경제적 상황이 호전될 리 만무했다. 그에 따라 일반 서민층에서는 역시 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은 대구, 명태, 조기, 청어 등은 일종의 사치성 기호식품으로 치부되면서 결과적으로 수산물의 수요가 제한적이 될 수밖에 없었다. 한국의 어업 내지는 수산업이 발달하지 못하고 원시적 틀에서 맴돈 것은 그 때문이었다.

수협이 발족하자마자 객주세력의 근절을 위해 발 벗고 나선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다. 고리대금으로 인해 빈곤의 악순환을 겪고 있는 우리 어업인들의 고통과 암울한 수산업의 현실을 방치할 수 없었다.

가장 시급히 추진해야 할 것이 수협에 의한 위탁판매를 확립하는 일이었다. 수협은 1962년 인천, 마산, 강경, 울산에 직영공판장을 개설하고, 이듬해인 1963년에는 부산, 목포, 여수, 영광으로 이를 확대해 위판자금을 투입함으로써 생산어업인의 보호와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사업을 시작했다. 직영공판장별 취급품목은 인천과 영광에서는 선어, 마산·울산·여수에서는 건멸치, 강경에서는 새우젓, 목포에서는 김을 비롯한 해조류를 취급했다.

수협이 초기에 직영공판장을 개설한 8개 지역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표적인 객주세력의 본거지로 회원조합이 단독으로는 정상적인 위판장을 운영하기가 힘든 곳이었다. 수협은 의욕을 갖고 사업을 시작했지만 위판사업이 자리를 잡기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뒤따랐다. 어업인들의 인식이 아직 부족한 데다 위판자금이 부족한 경우도 많았고 무엇보다도 토착 객주들의 방해가 극심했다. 특히, 충남 강경 위판장의 경우에는 토착 객주의 심한 방해공작으로 한때 위판기능이 마비될 정도였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수협은 어업인을 지도·계몽하는 지도사업을 강화하고, 신용사업을 통하여 위판자금 지원을 확대하는 등 위판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기반조성을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했다. 그 중에서도 위판자금을 비롯한 경제사업 자금의 확보가 가장 시급했다. 초창기 중도매인의 재력부족으로 인한 어대금 지불지연, 판매미수금의 회수 부진, 경영수지 악화 등으로 위판사업이 위기에 직면하기도 했기 때문이었다.

위판사업 정상화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에 힘입어 위판사업 취약지역으로 손꼽

혔던 8개 위판장의 위판질서는 점차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하게 되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객주의 세력이 약화되자 이들의 수탈에서 어업인을 보호하고자 했던 수협의 당초 목적도 이를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같은 노력에 힘입어 1962년 이후 수산물 위판비율이 꾸준한 증가세를 유지했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객주라는 것이 본래 고리채와 수산물을 싼 가격으로 선매하는 이중적 기능과 방식으로 생산 어업인을 착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판사업 기반의 강화만으로 객주세력을 추방할 수는 없는 일이었다. 즉 어업 생산에 필요한 자금을 어업인에게 저리(低利)로 넉넉히 지원하는 일을 함께 추진해야 했던 것이다. 이에 따라 수협은 1963년에 재정자금 5억 원을 재원으로 수산자금 공급을 위한 여신업무를 개시하게 되었다.

1965년도에는 산업은행과 농협 등에서 분산 취급해 오던 수산자금 취급창구를 수협으로 일원화하고, 1969년에는 수신업무를 개시하여 마침내 1971년도에는 영어자금 소요액의 일부를 자체자금으로 조달하기에 이르렀다. 수협 50년 역사의 한 획을 장식한 '100억 원 자체자금 조성운동'이 바로 이때의 일이다.

직영공판장 개설과 수산물 위탁판매사업 그리고 수산자금 공급을 위한 여신업무는 우리 수산업의 가능성은 밝히고 우리 어업인들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게 하는 일이었다. 오랜 세월 동안 수산경제 발전을 저해하며 어업인들을 괴롭혔던 객주세력과 문란한 수산물 유통질서가 사라지고, 그 자리에 어업인 소득증대와 권익 향상을 위한, 새로운 수산물 유통형태가 등장한 것이다. 바로 수협이 시작한, 위탁판매사업 중심의 근대적인 수산물 판매질서였다.

(참고문헌 : 천금성, '한국漁民史', 〈현대해양〉 2012년 2월호)

일반 서민층에서는 역시 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은 대구, 명태, 조기,
청어 등은 일종의 **사치성 기호식품**으로
치부되면서 결과적으로 수산물의 수요가

제한적이 될 수밖에 없었다.



어로한계선의 소고

기억의 저편 속에 있다. 40년 전의 일이다. 1971년 12월 중순이다. 강추위다. 추운 정도가 아니다. 매섭기 짹이 없다. 영하 몇 도나 될까. 거기다가 항구의 세찬 바람 까지 겹쳐서 체감온도는 말이 아니다. 너무 추워서 입이 잘 안 떨어질 정도다. 방 송은 수십 년 만의 강추위라는 멘트가 곁들여졌다.

하필 이런 날 어민학교 교장 선생께서는 출장을 떠나고 없었다. 말이 어민학교 교장 선생이지 직제에 정해진 직함은 아니다. 편의상 우리들끼리 부르는 직함이었다. 그럭저럭 오전은 넘어갔다. 다행히 이 추위에 교육을 받겠다고 온 어선원들은 없었다.

추위가 수그러들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다. 오후 한 시가 조금 넘어서 교육을 받겠다고 어선원들이 찾아왔다. 교장 선생이 없는 터라 대신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교육장 환경은 열악하기 짹이 없었다. 겨우 연탄난로가 두 개 있었다. 그나마도 연탄을 갈아 넣은 지가 얼마 되지 않아 냉기를 느끼다 못해 오한까지 몸 깊숙이 스며들었다. 찾아오신 분들은 쌍끌이 어선원분들이셨다. 아무튼 추위와 관계없이 교육은 해야 한다.

교육내용은 4부 장관 합동고시로 되어 있는 ‘선박안전조업규칙’이다.

선박안전조업규칙의 제정 목적은 동서해의 접적(接敵) 해역에 출어하는 어선이나 항해하는 배들의 안전을 위해 1964년 6월 24일 농림부가 북위 38°35'45"에 어로저지선을 설정함으로써 어로를 제한하게 되었다. 그리고 1989년 4월 13일 4부(내무부, 국방부, 농림수산부, 교통부) 합동으로 개정 공포된 규칙이다. 이 규칙을 책임지고 교육을 담당해야 할 기관이 바로 수협이었다.

이곳 어장에서 어업을 하겠다고 하는 어선원들은 무조건 교육을 이수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선단편성은 물론 이 해역에서 조업을 할 수가 없었다. 그러니 이들에게는 교육자체가 계륵일 수밖에 없지만 국가는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안보차원의 고육지계였다. 그리고 어선원들은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만 하는 생존이 걸려 있다. 그러니 그 어장 내에서 조업을 위해서는 교육을 받기 싫어도 분명히 받아야만 했다.

교육이 시작되었다. 가르치는 사람이나 수강을 받는 분들이나 다 마찬가지로 춥기는 매 일반이다. 차트를 넘겨가며 하나하나 짚어가고 있지만 귀에 잘 들어가겠는가. 3시간이라는 짧지 않는 교육시간, 여기저기서 ‘어 춥다’ 소리가 저절로 나오고 있었다. 드디어 말이 터졌다.

“선장님 추운데 이쯤하면 안 되겠습니까.”

“아, 안되겠습니다. 조금만 참으소. 평소보다는 조금 일찍 마쳐 드리겠습니다.”

‘아, 추워라’가 저절로 나온다.

“결론적으로 한마디만 말씀드리면 절대로 월선조업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빠르게 그어놓은 이 선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알았죠. 이 안이 무슨 해역이라고요.”

“특정해역입니다.”

“추운데 고생했습니다. 이만 교육을 마치겠습니다. 고기 많이 잡아가지고 오이소.”

평소보다는 약 30분 정도 일찍 강의를 마쳤다. 그러나 차트의 마지막 장까지 교육 시킬 것은 다 시켰다. 그러자 선장이 다가와서 봉투를 내미는 것이 아닌가. “이거 뭔데요.” “날씨도 춥고 수업도 좀 일찍 끝나고 했으니 가서 약주라도 한 잔 하세요. 얼마 안 되지만 성의를 봐서라도 받아 주이소.” “됐습니다. 저는 괜찮으니 여러분들이나 가서 한 잔 하시고 출어준비나 하이소.” 극구 사양하고 받지 않았다.

거리에는 징글벨이 울려 퍼지고 있었다. 눈도 소록소록 내리고 있었다. 3~4일 뒤면 크리스마스다. 젊은 남녀들은 삼삼오오 짹을 지어 거리를 활보한다. 참으로 분위기는 딱이다. 우리도 퇴근 후에 한 잔하자고 약속을 해두었다. 몇이 모여서 동인천역 근방으로 갔다. 먼저 소주로 서막을 열기 시작했다. 목구멍을 지나 가슴 깊숙이 파고드는 짜릿한 맛은 매일 마셔도 그 향은 변함이 없다. 잔을 부딪치며 ‘위하여’를 외치면서 신이 났다. 봉급쟁이란 퇴근 후 딱 한 잔만 하자는 맛에 더하여 직속상관을 안주로 올려놓는 맛이란 참으로 깨소금 같다. 그래서 봉급쟁이 철학을 따져보면 이런 재미다.

첫째는 노는 날 노는 재미다. 둘째는 봉급 올라가는 재미다. 셋째는 승진하는 재미다. 넷째는 마누라에게 봉급 속여 먹는 재미다. 다섯째는 직속상관을 술안주로 올려놓는 재미다.

아무튼 이날도 이 다섯까지 재미 속에 3차까지 푹 빠졌다가 헤어졌다. 눈은 계속 내리고 있었다. 그 눈을 맞으며 콧노래까지 흥겹게 부르며 하숙집 골목으로 들어서려는 찰나, 바로 내 앞에 까만 지프차가 한 대 서 있었다. 속으로 ‘웬 차야’ 하면서 골목으로 들어서자, 어디서 “어이, 귀관!”하며 나를 부르는 것이 아닌가. 돌 아보니 다짜고짜 팔을 낀다. “뭐꼬” 하며 빠져 나가려 하자, “조용히 가자”고 다그친다. 술기운이 싹 달아나버렸다. 바로 이 시간 내 직속상관이신 차장과 과장께서 이미 인천 모 호텔에서 조사를 받고 있었다고 한다. 후에 들은 일이지만.

하는 수없이 차에 실려 갔다. 간 곳이 다름 아닌 우리 사무실이었다. 야간 당직자가 눈이 휘둥그레져서 나를 쳐다보고 있다. 서류함은 이미 열려져 있었다. “귀

관, 당신 서류함 어느 것이야.” “왜 반말이야.” 나도 강변하면서 “무슨 서류?” “어로보호지도에 관한 서류다.” 그들이 준비해온 보자기에 서류를 모두 다 챙겼다. 그리고 서둘러 차를 탔다. 간 곳은 다름 아닌 대공 분실이었다. 들어서니 넓은 사무실 공간이다. 저쪽에 소파가 보였다. 대한민국 태극기도 선명하게 서 있었다. 방 안 공기는 훈훈하다. 입구에서 보아 우측 편에 책상이 있고 책임자 되는 사람이 앉아 있었다.

잠깐 내 안색을 보더니 나를 데리고 온 두 사람을 보고 큰 소리로 호통을 친다. “정중히 모시고 오라고 했는데, 왜 말 안 들어.” 그들이 나가려다 주춤하자 “빨리 나가”하며 또 한 번 호통이다.

그리고 이내 나를 보고 묻는다. “교육책임은 어디에 있소.”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면 선단 편성은?” “선단 편성은 해경입니다.” “그래요?” 하면서 핫라인을 들었다. 그리고 어디에다 대고 큰 소리다. “여보. 흥 대장 선단 편성은 당신네 소관이 라며?”, 그러자 저쪽 편에서 “예 맞습니다.” 하고 바로 나온 모양이다. “그런데 조금 전에 왜 아니라고 했소.” 커피가 나왔다. 목이 마르던 차라, 구세주 같았다.

“자, 차 들면서 얘기합시다.” “예”하면서 한 모금 훌쩍 했다. “2주 전에 교육시킨 선원들에게 왜 시간을 단축시켜 주었소?” “아, 예. 그것은 교육장에 가 보면 아시겠지만 교육장 환경이 워낙 열악해서 한 겨울 교육은 고역입니다. 화력이라고는 연탄난로가 고작 2개뿐인 데다가 그날 날씨마저 영하 15도를 오르내리고 있어 시간을 약간 단축시켜주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추웠는지 알아보면 알지”하면서 또 핫라인을 듣다. “거기 기상대요?” 그리고 그날의 이곳 기상정보를 듣고는 고개를 갸우뚱한다. “맞아. 이 정도면 교육은 어렵겠지.”

“그런데 돈은 얼마 받고 시간을 단축했나?” “예?” 하자 “선원들에게 단축한 대가로 얼마를 받았느냐고.” “아, 예. 분명 봉투는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내어 밀기에 ‘이게 뭐냐’고 물었습니다. ‘날씨도 춥고, 공부도 일찍 마쳤으니 가서 약주나 한 잔 하시라고 드립니다’하기에 ‘됐소. 여러분이나 가서 한 잔 하이소.

그리고 배에 남아 있는 당직자 두 분에게 대신 전달 교육은 꼭 시켜주소’한 것뿐입니다. 한 푼도 받지 않았습니다.”

“조사해 보면 곧 알게 됩니다. 만약 그때 가서 발각되면 강한 처벌이 따른다는 사실을 알고 계세요”하는 것이 아닌가. “하늘이 두 쪽 나도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알았소. 그때 가서 봅시다. 그런데 귀하가 교육담당자가 아닌데 왜 그날 교육을 하게 되었소?” “예, 그것은 그날 담당하시는 분이 출장을 가는 바람에 제가 그 실무를 맡고 있다 보니 저보고 하라고 해서 하였던 것입니다.” “아, 그래요. 아무튼 이따가 두고 봅시다.” 재삼 강조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자 문이 열리면서 정장을 한 하얀 백색 머리의 어르신 한 분이 보자기에 뛸 싸들고 들어온다. “죄송합니다. 이 추위에 오시라고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공손하게 절을 하는 것이 아닌가. “아니요. 이것쯤이야. 자, 여기 있소” 하면서 보자기를 넘겨준다.

“선생님, 저들의 피랍의도가 무엇일까요. 저들의 사정도 그리 좋지 못한데.” “아마 모르기는 해도 해가 넘어가는 길목이라 저들 과시용의 의도된 도발 행위가 아닌가 하오.” 약간의 침묵이다. 이때가 오전 3시를 넘기고 있었다. 간식으로 떡국이 들어왔다. 잠을 못 자서 그렇지, 억압된 분위기는 아니라서 견딜 만했다.

그 사이 문이 또 열린다. 이번엔 잘 아는 분이 들어오는 것이 아닌가. 벌떡 일어나서 아는 척을 했다. 그러자 악수를 청한다. “아니 왜 여기 와 있소.” “잘 아시는 분인가?” “예, 잘 압니다. 내가 출입하는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실무자입니다.” “아, 그래요”하면서 나에게 질문을 던진다. “현재 역할 분담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거요?” “예, 해군은 국방차원이고요, 내무행정 차원은 해경이 맡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민간차원의 실무교육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알았소.” 전화벨이 성급하게 울리고 있었다.

나는 이때야 비로소 알았다. 쌍끌이 두 척 중 한척만이 북쪽으로 피랍되었고 한척은 밤을 세워가며 예인되어 오고 있음을 말이다. 아니, 내가 알았을 때는 이미

항만에 대기상태에서 조사관들의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 조사내용이 속속들이 핫라인을 통해서 들어오고 있었던 것 같다. 이때가 새벽 4시였다. 그렇구나. 근본 문제가 무엇인가 나는 생각해보았다.

이번 사건의 핵심을 교육 잘못으로 몰고 가려는 의도인 것 같았다. 그래서 그날 강의를 담당했던 교육담당자의 금품수수 여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유는 간단하다. 어느 기관이든 책임질 기관이 하나 있어야 하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제일 힘없는 단체인 수협을 택하고 있는 것이었다.

나는 분명하다. 봉투는 봤어도 돈은 못 봤고 봉투는 받아보지도 않았다. 그러나 상대방이 주었다고 우기고 나오면 낭패다. 생각이 여기에 이르자 모든 것을 체념 할 수밖에 없었다. 이때부터 정말로 지루한 시간이 흐르고 있었다. 하품이 나왔다.

그런데 그때 담당 조사관이 나를 부른다. “귀관, 참으로 운이 좋은 사람이구먼. 귀관 말대로 돈은 안 받았구먼.” “어선이 돌아왔습니까.” “왔네. 그런데 한 척만 돌 아왔어. 한 척은 끌려갔어. 앞으로 조사가 계속 될 걸 세. 우리 자료가 넘어가면 검찰이 맡을 거네. 자넨 돌아가시게. 그리고 조사 받을 준비를 철저히 하시게. 어제 그 차가 올 거야. 내가 잘 일러두었으니까 어제와 같은 실례는 없을 것일세.” “예. 알았습니다. 가보겠습니다.”

문 앞을 나서니 막 동이 트고 있었다. 사무실로 돌아왔다. 의자에 앉아 한잠을 자고 나니 오전 아홉시였다. 라디오를 틀었다. 아홉시 뉴스가 나오고 있었다. 피립 어부 규탄대회가 전국 방방곡곡에서 열릴 예정이라는 것이다. 이제 그 세월도 40년이 흘렀다.

천안함 피침과 연평도 만행을 보면서 언제나 되어야 저들이 동족이라는 의식을 갖고 공생공영하는 세상을 만들어 갈까 하고 자문해 본다. 아직도 비극은 끝나지 않았다. 역사는 다시 쓰는 것이 아니라 돌아보고 반성하며 미래로 가야 하는 최첨단의 지름길임을 곱씹어 봐야 알겠다. 그날 아침의 햇살은 오늘처럼 참말로 눈부셨다.

(정정길 / 시인)



수협의 풀뿌리 어업인 조직, 어촌계

2011년 12월 21~22일 이틀간 경기남부수협 전곡어촌계에서 풍어제 성격의 ‘전곡항 안녕기원제’가 열렸다. 신을 청해 들이는 ‘신청을림’을 시작으로 어선과 낚시선 등 어업인들의 풍어와 안전을 기원하는 ‘뱃고사’에 이르기까지 이틀간 스무 거리에 이르는 대동풍어굿 형식으로 진행되면서 어촌계원들의 흥을 돋웠다.

본래 서해안 어업인들이 마련하는 대동굿은 주로 어한기라 할 정초부터 2월 초순경에 성한 어촌민속이다. 그러니 동지를 하루 앞두고 열린 ‘전곡항 안녕기원제’는 아주 특별한 경우인 셈이었다. 어선 사고로 인한 피해 어업인을 위로하고, 다가올 임진년 한 해 동안 풍어와 무사안녕을 기원하는 어업인 축제의 장으로 ‘전곡항 안녕기원제’가 처음 마련된 것이었다. 이는 수협의 어촌 전통문화 재현사업 지원과 경기남부수협 임직원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전곡어촌계는 토박이 어업인들 외에도 간척매립 등으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고 주변에서 이주해온 외지 어업인들이 더불어 살고 있는 데다 전곡항이 ‘한국 해양 레저 제1전략 허브’로 인정받고 있는 상황이라 화합과 협동이 무엇보다 중요한 마을이다. 다른 협동조직과 달리 상부상조의 이념을 역사 속에서 찾아 볼 수 있는

계(契)가 존재하고 있는 수협의 풀뿌리 조직으로서의 성격을 잘 보여주는 마을이기도 하다.

수협의 존재 이유는 회원조합과 어업인 지원은 물론 공생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다. 그 대표적인 사업이 도시-어촌 교류 지원이다. 도시-어촌의 교류 활성화를 통한 이해증진과 상생의 기반구축을 위해 수협이 2005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는 ‘올해의 도시-어촌 교류상’은 해를 거듭할수록 범국민적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히 도시-어촌 교류를 통해 어촌과 바다의 중요성에 대해 전 국민이 공감하고 도시와 어촌이 고루 잘 살 수 있는 희망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 2011년 ‘도시-어촌 교류상’에서는 최고의 영예인 국무총리상에 해양환경관리공단과 경기남부수협 백미리어촌계가 각각 선정됐다.

어촌계는 지구별 수협의 조합원을 계원으로 하여 행정구역 또는 경제권 등을 중심으로 하여 설립된 수협법 상의 어업인 조직이며, 가장 소규모의 지역수협에 해당한다. 1962년 수산업협동조합법(이하 수협법)이 시행되면서 먼저 시·도 단위로 지구별 어업협동조합(지구별 조합)이 설립되고, 다음 단계로 지구별 조합 산하에 처음으로 자연 마을별로 어촌계를 조직했다. 어촌계 설립의 기본목적은 계원 상호간의 협력을 통하여 경제적·사회적 이익을 높이고자 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어촌계는 어업권 취득과 그 개발, 어촌 공동시설의 설치와 운영, 공동구매 및 공동판매사업, 어업자금 알선사업 등의 사업을 행할 수 있다. 그러나 주된 기능은 연안 어촌에 접해있는 마을어업의 관리이다.

현행 수협법에서는 어촌계의 형태를 크게 ‘어촌계’와 ‘내수면 양식계’로 구분하고



어촌계 밀가루 배급(1964)



수협은행 해우리봉사 '어촌자매결연'

있는데 일반적으로 말하는 어촌계는 전자이며, 수협의 계통조직을 구성하는 수협 운용상의 가장 기초 단위이다. 반면에 ‘내수면 양식계’는 수협법(제16조의 2)에서 그 근거를 규정하고 있을 뿐, 수협의 계통 조직과는 무관하고 내수면 어업개발의 단위로 활용하기 위해 허용된 조직이며,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로 설립될 수 있다. 같은 법 테두리 안의 조직인데도 계통상 정체성을 확보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것은 모순이며, 계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도 결국 소속 지구별 수협을 통해서만 할 수 있고, 지도감독도 지구별 수협의 지휘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소속 지구별 수협이 없는 내수면 양식계가 어떻게 기능을 발휘할지가 모호하다. 이는 내수면 수협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수협 계통조직의 하나로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수협은 지구별 수협, 업종별 수협 및 수산물가공 수협으로 구분되는데, 전체 92 개 단위수협 가운데 70개가 지구별 수협이며, 이 지구별 수협 아래에 마을을 기준으로 조직되어 있는 어촌계 수는 2010년 말 기준 총 1,874개이다. 어촌계의 대표는 계장(契長)이며, 계원의 투표로 선출하고, 계의 정관에 따라 감사와 간사를 두어 어촌계의 기관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다.

지구별 수협을 지역단위의 기본조직으로 규정하면서도 별도로 그 산하에 주로 어촌의 마을을 중심으로 하는 어촌계를 두어 수협 계통의 한 조직으로 규정하여 제도화하고 있는 것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그 취지를 찾을 수 있다.

첫째, 대규모 조직으로 발전하고 있는 수협의 기능이 주로 경제사업, 신용사업에만 한정되기 쉬우므로 수협의 기본 목적 실현을 위해서는 어촌계와 같은 소규모 조직을 통하여 생산과정상의 협동화를 꾀하고자 한 것이다.

둘째, 지구별 수협이 대규모 경제단체화함에 따라 연안에 접해있는 공동어장의 합리적 운영과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구별 수협을 대신할 지선의 어민 협동 조직을 별도로 설립할 필요가 있었다.

셋째, 지구별 수협의 광역화와 업무복잡성으로 인해 어촌에서 실질적으로 협동 조합운동을 실천해 나갈 협력조직으로 공식적인 하부조직의 역할이 필요했다.

이와 같은 객관적 요구와 필요에 의하여 수협법에서 어촌계를 제도화한 것이며, 수협법 시행 후 어촌계는 전국 연안의 전 어촌에서 설립되기 시작하였고, 그 가운데는 법인화된 대규모 어촌계도 있었다.

조선시대에도 어촌사회에서는 어업계(漁業契), 어계(漁契), 어망계(漁網契), 어부계(漁夫契), 어선계(漁船契), 선창계(船倉契), 해업계(海業契) 등의 자생적 협동 조직체들이 있었다. 일제강점기 때 총독부는 1911년 6월에 어업령을 공포하여 어업조합을 설립하고 어촌사회를 식민지화해 나갔는데 이 시기에도 어촌에는 해조류와 패류 공동어장을 개발하고 보호하면서 지선 어민의 생업보장 기능을 담당했던 자치적 공동 관리체제를 지속시켜온 대표적인 어업계는 마을 단위의 어업계였다. 이중에는 면 단위 또는 군 단위로 조직된, 규모가 큰 어업계도 있었다. 실존하는 근대의 어업계 17개 가운데서 일제강점기 이전부터 있었던 어업계는 강원도 오산어업계와 업종별 어업계로 해업계와 제주도의 방진망어업계(防陳網漁業契)였다. 그리고 17개 어업계 중 설립역사가 확실한 것은 11개였으며, 나머지 6개 어업계는 설립 미상으로 밝혀졌다. 또 종류별로는 14개 어업계가 지역 어업계였고, 3개는 해녀, 휘저망, 포쾌 목적의 업종별 어업계였다. 따라서 수협법 시행으로 1962년부터 전국적으로 설립되기 시작한 어촌계는 다양한 형태로 존속하면서 어업계로부터 그의 명칭이 유래되지 않았나 유추해볼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현재의 어촌계는 전통사회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우리사회의 다양한 계와 마찬가지로 공동체성과 합리성의 이중적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즉, 공동체적 유산이면서 동시에 오늘날 어촌사회의 번영과 개별 어가의 생활 및 어업 개선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경제조직인 것이다.



기름 유출 사고, 피해 어업인을 보듬다

2007년 12월 8일 토요일 밤, 수협의 전 임직원들에게 비상소집령이 내려졌다. 다음날 새벽 각자 집에 있는 플라스틱 물바가지와 양동이를 들고 출근해 태안반도 현장으로 달려가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기름 유출 사고로 인한 피해가 견접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다는 내용의 뉴스가 TV를 통해 계속 보도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기름 유출량이 너무 많아 방제 선박의 오일 펜스로는 전혀 감당할 수 없으며, 사고 유조선의 누출 구멍에서는 마치 소방호수에서 물이 뿜어 나오는 것처럼 기름이 세차게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어업인들의 삶의 터전이 초토화되고 있는 급박한 상황에서 어업인과 수산을 대표하는 수협이 손을 놓고 바라만 보고 있을 수는 없었다. 전 임직원들을 비상소집하는 한편 플라스틱 용품 제조 공장에 기름 수거에 필요한 제품을 요청하고, 음식과 대형 버스 준비까지 모든 일이 일사불란하게 진행되었다.

12월 9일 일요일 아침 5시, 작업복 차림으로 사무실 앞에 모인 임직원들은 각 버스에 나누어 타고 태안반도의 천리포 해수욕장으로 향했다. 9시쯤에 도착한 현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다. 밀려든 기름 덩어리가 모래사장에 스며들어 있었고,

해상은 시커먼 기름 파도로 덮여있었다.

수협 임직원들은 팀을 나눠 준비해온 물바가지, 쓰레받기, 양동이 등으로 대형 물통에 기름을 펴 담기 시작했다. 운반하기에는 거리가 너무 멀어 마을의 경운기를 있는 대로 동원해 기름을 수거한 대형 물통을 날랐고, 유류 흡착포 생산 공장에도 연락을 취해 흡착포가 빨리 공급되도록 했다. 두 시간 남짓 쉴 틈 없이 작업을 하고 점심을 먹던 중에 유류 흡착포가 현장에 도착했다.

오후에는 파도가 밀려오는 곳으로 흡착포를 날라 뿐리기 시작했다. 기름을 머금은 흡착포는 파도에 밀려 해변으로 이동해 왔다. 떠밀려오는 흡착포가 육지에 가까워지면 파도를 따라 후퇴하면서 전부 수거해 육지에 쌓아 놓고, 다시 썰물에 띠내려가는 일이 없도록 단속을 한 다음 늦은 밤중에 귀경했다. 다음 날부터는 업무로 인해 전 직원을 동원할 수가 없어 2개 조로 나눠 격일로 작업에 나섰다.

사고가 난 것은 2007년 12월 7일 오전 7시 15분경이었다. 충남 태안군 만리포 북서방 5마일 해상에서 예인선 삼성 T-5가 예인 중이던 부선이 정박 중인 유조선 '허베이 스피리트(Hebei Spirit)'호와 충돌하면서 유조선 화물창이 파공돼 사상 최악의 기름유출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이로 인해 청정 해역인 태안 앞바다는 순식간에 '검은 재앙'에 휩싸였다.

태안은 간석지가 발달한 서해안의 특성으로 극심한 어업피해가 발생했다. 만리포 북서방 8km 지점 사고해역에 있던 유류가 유막을 형성해 바람과 조류에 따라 이동하면서 타르 덩어리가 제주도의 추자도 해안까지 남하했다. 총 280km의



2007년 태안 기름유출 사고 피해 지역



방제작업 후 피해 지역

해안선과 3만 4,056ha의 양식장이 오염됐으며, 만리포해수욕장 등 15개 해수욕장도 오염을 피해갈 수 없었다. 충청남도 59개, 전라도 42개 도서지역에 타르 냉어리가 부착되는 등 2차 오염이 발생하기도 했다. 서산수협피해대책위원회 등 14개 수협 피해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피해신고를 접수한 결과 어업피해는 총 6만 7,732건에 1조 470억 원에 이르렀으며, 123만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방제작업에 참여했다.

수협은 사고 발생 즉시 비상대책반과 T/F팀을 구성하고, 피해지역 16개 회원조합에서 피해대책위원회를 발족했다. 피해주민 지원과 환경복구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유조선과 삼성중공업의 책임 제한절차를 진행했다. 오염어장 복원지원과 피해 어업인 배상추진을 진행했으며, 피해지역 회원조합에 피해 어업인 생계지원비 4억 7,000만 원을 지원했다. 피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산물 소비촉진 행사와 ‘새로운 희망, 서해안으로 떠나자’라는 버스투어도 7차례 실시했다. 대형 기름 유출 사고 관련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을 발간, 사고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기도 했다.

특히, 수협은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 fund)의 보상율이 7%에 불과한 상황에서도 방제인원과 거둬들인 오염물을 꼼꼼히 기록하고 사진을 찍어 방제비 1억 3,252만 원을 청구하여 1억 1,048만 원(보상율 83%)을 받아냈다. 국제기금의 보상청구 매뉴얼을 교과서 삼아 조합원의 위판 내역, 면세유 구입내역, 선박 입출항기록, 개인통장 사본 등 3년분의 소득자료를 수집한 A4 용지 10만장을 증거자료로 국제기금 측에 넘기며 어업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애쓴 결과였다. 이와 함께 수협은 향후 예기치 않은 기름 유출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일선 어업인들의 피해 입증자료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수협 임직원들은 팀을 나눠

준비해온 물바가지,
쓰레받기, 양동이 등으로
대형 물통에 기름을 펴 담기 시작했다.





또 하나의 어업인 가족, 외국인선원

우리나라도 1960~1970년대에는 국내에 일자리가 마땅치 않아 많은 이들이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광부로, 간호사로 해외에 나가 달러를 벌어야 했다. 이제는 인력 송입국이 되었지만 불과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대표적인 인력 송출국이었던 우리나라의 정서 상 외국인선원에 대한 애정은 남다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외국인도 한국에 오는 가장 큰 이유는 누가 뭐라 해도 바로 돈을 벌기 위해서일 것이다. 수협은 이러한 점을 백분 이해하고, 외국인선원에 대한 임금지급을 최우선으로 하여 사후관리를 하고 있다. 하지만 어업의 특성상 조업 시기가 아닌 금어기나 휴어기에는 외국인선원에게 적기에 임금을 주는 것이 쉽지 않았고 그로 인해 몇 가지의 크고 작은 에피소드도 있었다.

따가운 햇볕이 내리쬐던 2006년의 어느 여름날, 수협중앙회 외국인력지원단의 중국 담당 직원은 임금체불을 해결하기 위해 다섯 시간 동안 버스를 타고 경남의 한 업체에 도착하였다. 일을 했으면 임금을 받는 것이 당연지사겠지만, 유난히 어획량이 저조한 해당 사업주의 입장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기에 수협직원은 사업주에게 최대한 예의를 갖춰 임금 지급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낮술을 한 잔 걸친

사업주는 미안하다는 말은커녕 수협직원을 거칠게 대하기까지 했다. 이에 수협직원도 흥분하여 둘 사이는 주먹이 오고 가기 일보 직전이었다.

바로 그 순간, 어디선가 “선생님, 싸우지 마세요”라는 어눌한 한국말이 들렸다. 놀란 두 사람이 뒤를 돌아보니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중국인선원이 일에 지친 피곤한 얼굴로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수협에서는 외국인선원의 입국 시 2박 3일 간의 ‘입국 후 교육’을 직접 실시하는데, 당시 교육에 참여했던 중국인선원이 중국 담당 직원을 알아보았고, 비록 그 직원과 사업주와의 대화를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느낌으로 대강의 내용을 알아차렸던 것이다. 그 순간 수협직원의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건 아마도 중국인선원에 대한 미안함 때문이었을 것이다. 결국 사업주는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임금 지급을 약속하였고, 조업이 시작되자마자 사업주는 최우선적으로 외국인선원의 임금을 해결해주었다.

외국인선원들은 돈을 벌기 위한 큰 꿈을 안고 가족들과 헤어져 머나먼 곳, 한국 땅으로 온다. 그들은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사업주들에게 인정을 받기 위하여 하루 하루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 땅에서 불행한 결과가 나오는 경우도 있다. 바로 외국인선원의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다. 외국인선원의 경우에는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한국인보다 훨씬 긴 시간이 필요하다. 자국에 있는 가족들에게 연락해 유가족들이 한국에 들어오기까지 약 1개월 정도가 소요된다.

2006년 제주도 성산포에서 문어통발배를 탔던 중국인선원이 배에서 떨어져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다. 당시 수협에서 유가족들에게 연락을 취했고 1개 월 정도 후에 유가족이 한국에 입국하였다. 수협에서도 유가족을 위로하고, 보상 합의를 하기 위하여 제주도에서 유가족을 만났다. 유가족은 슬픔을 이기지 못하여 영정 사진 앞에서 계속 울기만 했다. 입국 시 교육장에서 봤던 그 환한 얼굴, 기대와 설렘으로 가득한 얼굴을 기억하다가 무표정의 싸늘한 시신을 본다면 누구라도 내국인 외국인이 아닌 똑같은 인간으로서의 슬픔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유가족에게 최대한 협조하기 위하여 수협 담당 직원은 공제지부, 해양경찰서

등을 유가족과 함께 다니며 행정처리와 보상처리를 도왔다.

유가족은 처음에는 몹시 고마워했다. 하지만 2일이 지난 후 보험금 수령 예상액을 알려주자 유가족은 보상금을 적게 주기 위해 자신들에게 잘해 주려고 한다는 의심의 눈길로 수협직원들을 바라보았고, 잠시 후 제주인권단체에 연락을 하여 도움을 청했다.

결국 수협직원과 인권단체, 유가족, 고용주 등이 한자리에 모여 약 10시간 동안 설전을 벌였다. 유가족에게 최대한 도움을 주려했건만 진심이 전달이 되지 않았는지 믿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수협직원은 안타까움과 야속한 마음에 속이 타들어갔다. 오전 8시에 시작된 협상은 오후 6시에야 끝이 났다. 유가족은 끝까지 믿지 못하겠다며 욕을 하면서 그들의 고국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그날 저녁 11시경, 한통의 국제전화가 걸려왔다. 낮에 그렇게 떠나버렸던 유가족이었다. 방금 집에 도착해 전화를 걸었다면서 미안한 마음을 전했다. 고맙다는 말도 덧붙였다. 수협과 수협직원들을 믿었지만 그래도 가족을 잃은 마음에 어떻게라도 해서 보상금을 좀 더 받아보려고 우겨봤다고 했다. 그 말을 듣자 하루 종일 싸우면서 쌓였던 감정과 잠시나마 느껴야 했던 실망감이 사르르 녹아내렸다. 그들에게 도움이 되었다는 생각에 눈물까지 흘렀다.

2006년도에는 충남 서천에서 외국인선원이 양망기에 손이 감기면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당시 지역에 외국인선원이 배정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 외국인선원의 사망사고 발생 시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지 몰라 난감한 상황이었다. 이때에도 역시 수협이 나섰다. 서천에 직접 내려가 장례와 보상처리를 도와준 것이다.

그로부터 5년이 흐른 2011년, 다시 찾은 그 회사의 사장은 그 일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다. 수협의 도움으로 지금은 회사 경영도 좋아졌고, 그 지역에는 외국인선원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당시 3명에서 이제는 100명 가까이 되었다고 했다. 이렇게 수협은 외국인선원과 조합원들의 곁을 지키며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노력해왔다.

수협은 외국인선원의 임금체불 해결, 재해사고 처리 등의 애로상담센터 운영과 함께 외국인선원의 복지 강화를 위하여 우수 외국인선원 한국문화 체험 행사, 우수 외국인선원 고향방문 행사, 외국인선원 방한 복 지원, 산재 외국인선원 위문품 지급, 외국인선원을 위한 자원봉사의 날 행사, 장기근속 외국인선원 기념 품 지급 등 많은 사업을 하고 있다.

특히, 2009년 이래로 시행하고 있는 우수 외국인선원 한국문화 체험 행사는 외국인선원과 사업주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2010년도에 이 행사에 참여한 한 인도네시아 선원은 오자마자 “안녕하세요?”하며 구수한 충청도 사투리로 수협직원에게 인사를 건넸다. 그런데 수협직원들을 더욱 놀라게 한 것은 지역별로 올라온 선원들이 저마다 지역의 사투리를 쓰며 인사를 하는 것이었다.

외국인선원들은 한국에 와서 일만 하는 것이 아니다. 한국의 문화와 한국말 등 많은 것을 보고 배운다. 무사히 일을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갈 때 그들의 마음에는 한국에 대한 사랑이 가득 차게 될 수도 있다. 그들의 마음에 사랑을 채우느냐, 미움을 채우느냐 하는 것은 한국인들에게 달려있다. 사랑이 채워진다면 한국 홍보대사가 될 것이고, 미움이 채워진다면 한국 혐오주의자가 될 것이다. 한국에 와서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고 아들처럼 또는 동생처럼 돌봐주는 한국선원들이 있다면, 그리고 그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의 마음은 사랑으로 채워질 것이다. 수협은 우리나라의 연근해어업에서 꼭 필요한 존재인 외국인선원들의 복지 강화와 근로환경 개선을 위하여 앞으로도 지금처럼 꾸준히 쉬지 않고 달려 나갈 것이다.



우수외국인선원 한국문화 체험



밴댕이, 꼴갑회유!

2006년 4월 3일, 수협 창립 44주년 기념식에서 서울 신학초등학교 김진희 교사가 수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린 공로로 수협으로부터 감사패와 멸치를 받았다. 김교사를 취재해 기사로 쓴 소년조선일보 류현아 기자도 함께 초청했다. 김교사는 평소 어린이들의 건강관리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학생들이 학교생활에 모범을 보이거나 성적이 올라가면 어린이 성장발육에 좋은 멸치를 두 마리씩 칭찬 선물로 줬다.

영양소가 풍부한 수산물이 어린이들의 건강에 이롭다는 생각으로 수산물 중에서 보관이 쉽고 먹기가 편한 멸치를 구입해 나눠준 것이다. 김교사의 멸치사랑은 언론매체를 통해 알려지면서 수산물이 국민 건강식품임을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이에 수협이 감사의 뜻을 전한 것이다.

수협의 독특한 수산물 홍보는 삼꼭대기에서도 이뤄졌다. 부장단이 태백산 정상



멀치 두 마리에 담긴 선생님의 사랑
〈소년조선일보〉 2005년 7월 4일 1면

에 올라 미리 준비해온 김을 등산객들에게 나눠준 것이다. 2011년 7월 12일에는 서울역 실내광장에서 이종구 회장과 임직원 등 3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여름휴가 어촌에서 보내기’ 캠페인을 펼쳐 서울역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어촌의 낭만과 정취를 선사하기도 했다. ‘어촌과 함께하는 작은 콘서트’를 열어 일상에 지친 도시민들에게 바다의 편안함을 전해주고, 오징어 등 수산물을 직접 나눠줬으며, ‘어촌으로 떠나는 봄·여름·가을·겨울’ 책자도 배포했다.

드라마 간접광고를 통해 적극적인 수산물 홍보에 나선 사례도 있다. 전남 완도군은 경기침체와 소비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을 위해 드라마를 통한 이색 판촉에 나섰다. 2009년에 드라마 <결혼 못하는 남자>의 제작 지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완도 넘치(광어)의 홍보에 나선 것이다. 완도군은 미식가인 주인공이 넘치의 맛을 찾아 온 완도에서 겪은 에피소드를 그린 이 드라마의 촬영을 지원하고, 드라마 내용 중에 ‘완도 넘치’라는 고유명사를 명확히 언급해 홍보함은 물론 전복, 미역, 김 등도 방송 소품으로 적극 활용하도록 했다.

2004년에 방영되어 인기를 모았던 드라마 <꽃보다 아름다워>에서도 여주인공이 일하는 대형마트의 생선가게에 ‘바다마트 원효점에서 바다의 싱싱함을 느껴보십시오’라는 현수막을 걸는 등 수산물 간접 광고 효과를 톡톡히 누렸다.

2011년 4월 23~24일 한국수산물무역협회 주관으로 중국 제1의 경제도시인 상하이에서 개최된 ‘한국수산물 홍보 및 식문화 전파를 위한 수산물 로드쇼’도 많은 화제를 모았다. 상하이 중심의 쇼핑지역인 우지앙루에서 개막 축포를 터트리고 전자바이올린 공연, 치어리더 공연, 민속놀이, 김밥말기대회 등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되었다.

이 로드쇼는 2009년부터 매년 개최하는 것으로 우리 수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함으로써 실질적인 수산물 수출 확대를 도모하고 수산식품을 값싸게 구매할 수 있는 기



“금(김)을 나누어 드립니다” 수협중앙회 임직원 수산물 홍보, 태백산 정상(2011)

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내방객들의 높은 관심을 유도하기 위하여 전복, 굴, 김 등 수출 주력 품목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요리시연 시식행사와 조미 김, 조미 오징어 등 수출업체의 현장 판매행사를 병행하여 수출지원 효과를 높이고 있다.

전국 각지에서 펼쳐지는 수산물 관련 축제에서는 색다른 아이디어가 만발하고 있다. 2010년 ‘울산 고래 축제’에서는 ‘고래아저씨 선발대회’를 개최해 눈길을 끌었다. 축제에 앞서 온라인을 통해 미리 진행된 이 대회에서는 넉넉한 배와 풍요로운 마음 등 고래처럼 든든함을 뽐내는 대한민국 남성이면 누구나 홈페이지에 신청할 수 있게 했고 온라인에서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은 아저씨를 선발해 누리꾼들의 관심을 모았다.

아저씨 선발대회의 원조는 전북 고창에서 매년 개최되는 ‘고창 수산물 축제’의 ‘주꾸미아저씨 선발대회’다. 이 대회에서 아저씨들은 탈모상태와 표정관리에 이어 주꾸미 연기와 소리 지르기를 통해 구성진 묘기와 번뜩이는 재치로 구경꾼들의 환호와 갈채를 이끌어낸다. 재치가 번뜩이는 슬로건으로 축제를 알리는 경우도 있다. 2009년 충남 서천군은 ‘장항항 수산물 꼴갑축제’를 마련하고 ‘밴댕이, 꼴갑회 유’라는 이색적인 홍보를 실시해 화제를 모았다. 서천군이 서천~공주 구간 고속도로 개통에 맞춰 밴댕이, 꼴(꼴뚜기), 갑(갑오징어), 회(생선회), 유(유채꽃) 등을 홍보하기 위한 축제에 재미난 슬로건을 내세워 홍보효과를 더한 것이다.

‘부산 자갈치 축제’에서는 ‘장어·문어 이어달리기’가 보는 이들을 즐겁게 한다. 장어나 문어를 바통으로 하여 이어달리기를 하는 이색 체험행사로 5명이 1팀을 이루어 관람객 누구나 즉석에서 참가 가능하다. 평소 살아 있는 물고기를 잡아보는 기회가 적은 참가자들은 미끌미끌한 장어를 놓치기 쉬워 잡느라고 애를 먹는 광경이 배꼽을 쥐게 한다. 해마다 외국인팀들이 다수 참가할 정도로 많은 인기를 끌고 있다.

2011년 10월 노량진수산시장에서 개최된 제1회 ‘도심 속 바다축제’에서도 색다른 이벤트가 펼쳐졌다. 관람객들이 직접 참여하는 ‘활어 맨손잡기’가 인기를 끌었고, 특히 소비자들이 매일 수산시장에서 실시되는 경매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모의경매’가 두 차례 마련되어 많은 화제를 모았다.



감사패를 수여받는 서울 신학초등학교 김진희 교사(2006)

김교사의 멀치사랑은
언론매체를 통해 알려지면서 수산물이
국민 건강식품임을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이에 수협이 감사의 뜻을 전한 것이다.



바다를 지키는 사람들

동해, 서해, 남해 바다에 나가 있는 어선들과 통신하는 수협의 어업정보통신국 안전조업상황실은 어선들에게 어황 정보, 날씨 등을 알려주고 어선들로부터 위치와 어획량을 보고받는 곳이다. 이를 위해 수협은 인천, 속초, 주문진 등 전국 16곳에 통신국을 두고 있다.

6명이 교대로 24시간 365일 근무하는 상황실이 모니터링 업무만 하는 건 아니다. 보고 받은 어획량을 근거로 통계도 만든다. 해상 재난사고가 일어나면 제일 먼저 파악하는 곳도 여기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별한 임무가 있다.

어선들은 잠수함을 곧잘 발견해낸다. 2010년 3월 강원도 고성 앞바다에서 북한 선박을 발견해 신고했던 ‘수일호’의 신대용 선장은 “물고기를 찾는 데 사용하는 어군탐지기가 반경 1km, 깊이 1.4km를 탐색한다. 잠수함은 물고기보다 훨씬 커서 알아보기가 어렵지 않다”고 설명했다.

육안으로 잠수함을 발견해 보고하는 경우도 많다. 잠수함은 원자력을 이용한 핵 잠수함과 디젤기관을 가진 재래식 잠수함이 있다. 재래식 잠수함의 경우 디젤엔진을 돌리려면 산소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 스노클이라고 불리는 빨대 같은 것을

수면 위로 띄워 공기를 흡입한다. 그때 디젤엔진을 가동시켜 축전지를 충전한 뒤 수중에서는 축전지의 힘으로만 항해한다. 스노클이 수면 위로 노출될 때 어업인들에게 발각되곤 한다. 제주 앞바다에서 잠수함 관측보고가 들어오면 이후 포항, 울진, 주문진 앞바다에서 3~4시간 간격으로 계속 보고가 들어온다. 제주에서 발견된 잠수함의 이동 경로를 어선들이 고스란히 잡아내는 것이다.

어업인들의 긴급보고는 실제 간첩선을 잡는 성과를 올리기도 했다. 1998년 6월 22일 속초수협 소속으로 꽁치잡이에 나선 '동일호'는 강원도 속초 근해에서 북한 잠수정을 발견했다. 선장 김인룡 씨는 발견 즉시 단파 무전기를 통해 수협 어업무선국에 알렸고 이는 곧 바로 수협중앙회 본부 중앙통제국을 거쳐 국방 당국에 신속하게 전달됐다. 인근에 있던 '용신호'도 40분 뒤 같은 내용을 보고해 왔다. 우리 해군의 신속한 대응에 수협 어업무선국이 큰 기여를 한 것이다. 당시 잠수함 인양 작업을 맡은 해군 측에서는 “우리나라 영해에 떠 있는 어선들이 모두 이렇게 해준다면 우리 해군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며 감격해 하기도 했다.

조업 중인 어선과 수협 어업무선국이 이처럼 신속한 연락체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수협이 연근해 조업에 나선 소속 어선에 반드시 무전기를 개방하고 조업을 하도록 한 규정 때문이다. 특히 동해와 서해상에서 조업을 하는 어선들은 북방한계선을 넘지 않도록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 수시로 무선국과 연락을 취하고 있다.



북한 무장간첩선 동대문 운동장 앞 전시(1980.07.16)



침몰한 무장간첩선 인양작업(1984)

이 때문에 1997년 10월 울릉도 인근에서 조업을 마치고 귀항하던 ‘진해호’ 선장이 비밀작전을 수행하고 있던 미해군 잠수함을 발견해 즉각 신고하는 일도 있었다. 또 1996년에 잠수함을 타고 강릉에 침투했던 간첩 이광수는 “북한이 잠수함을 이용해 수중 침투를 시도할 때 가장 두려워하는 게 남한의 어선”이라고 진술하기도 했다.

잠수함을 이용한 북한의 대남침투는 지금까지 여러 차례 있었다. 1983년 12월 3일 부산 다대포에서 남파간첩을 내려놓고 귀환하려던 반잠수정을 남한 해군이 격침시켰다. 1985년 10월 20일에는 부산 청사포 앞바다에 침투한 반잠수정을 격침시켜 북한 잠수복 3벌을 수거했다.

1996년 9월 18일 강원도에서 발생한 강릉지역 무장공비 침투 사건의 경우 북한 특수부대원 26명을 태우고 침투한 잠수함은 350톤의 상어급 잠수함이었다. 이들은 한국군에 의해서 생포 또는 사살되었다. 1998년 6월 22일에는 무장간첩 9명을 태운 북한 잠수정이 강원도 속초 해안으로 침투했다. 그러나 속초 해안 동쪽 11.5마일 해상에서 어망에 걸려 표류하다가 우리나라의 추격을 받자 9명 모두 집단 자살했다.

이렇듯 우리의 바다는 한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분단국가의 뼈아픈 현실을 대변하기도 한다. 바다는 어업인들이 제일 잘 안다. 천안함 잔해를 발견한 것도, 어뢰 파편을 건져 올린 것도 모두 어업인이었다. 우리나라 어선들에게만 있는 긴급보고 제도 때문에 북한은 어선들이 쉬는 기간을 노려 침투한다는 말까지 있을 정도다.

수협은 2010년부터 어업인들의 신고를 장려하기 위해 포상제도를 시작했다. 북한 어선을 신고한 ‘수일호’ 선장이 첫 번째 대상자였다. 부상은 망원경, 더 잘 감시해 달라는 뜻이다. 2011년 기준 수협 어업정보통신본부에 보고하는 우리 어선은 1만 270척이다. 하루 평균 4,000척 정도가 바다에 나가 조업을 한다. 바다 구석 구석에 촘촘히 박혀 있는 셈이다. 우리의 바다를 지키기 위해 수협의 상황실은 오늘도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다.

강릉에 침투했던 간첩 이광수는

“북한이 잠수함을 이용해
수중 침투를 시도할 때 가장
두려워하는 게 남한의 어선”이라고
진술하기도 했다.



안전조업 시범교육(1983년)



수산의 미래를 위한 희망의 약속

수협이 본격적인 장학 사업에 나선 것은 1980년 부터였으며, 두 형태로 나누어 실시하였다. 그 하나는 당시 공제환원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던 공제병원선 무료 순회 진료사업을 중단함에 따라 새로운 공제환원사업으로 공제장학제도를 실시한 것이다. 공제 가입 후 1년 이상 경과한 생명 공제 계약자 자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선정하여 면학을 지원하고 공제사업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한 공제장학제도다.

실시 첫 해인 1980년에는 중학생 97명에게 1인당 6만 원씩, 고등학생 67명에게 1인당 12만 원씩 지급하다가 이후 점차 지급인원과 금액을 확대해 나갔다.

1980년부터 18년간 총 2만 2,218명에게 32억 1,809만 5,000원을 지급하는 등 가입자 자녀에 대한 면학지원 및 환원사업 확대에 주력해온 공제장학제도는 정부의 의무교육 확대 적용과 중앙회의 경영수지 악화로 1997년에 중단하게 되었다.

다른 하나는 수산계 학교(수산고교, 수산계 전문대학, 수산계 대학) 재학생 중에서



소년소녀가장 등 어민자녀 장학금 전달



수산장학생 장학증서 수여식

수산장학생을 선발하는 일반장학제도이다. 1988년에 처음으로 주문진, 거제, 대천 등 3개 수산계 고교에 설치된 '자영수산과' 학생 160명을 대상으로 육성회비 800만 원을 지원하기 시작했으며, 이후 부산 수산계 학생을 위시한 군산, 통영, 제주도의 수산계 대학 학생을 대상으로 장학생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했다.

어업인 자녀에게 양질의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수산계 재학생에게 수산업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수협의 수산장학금은 2009~2011년 3년간 590명에 7억 3,600만 원, 학교운영비는 3억 5,800만 원이 지원됐다. 그러나 정부가 직접 수산계 고교 장학금을 지원함에 따라 수산계 고교생에 대한 장학금을 폐지하고 전문성과 우수인력을 갖춘 수산계 대학교에 지급하는 장학금을 확대해 2012년 한해 7개 대학 200명에 4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수협은 어선 조업 중 일어난 사고로 사망하거나 실종된 어업인의 유자녀를 지원하기 위해 1994년부터 해난사고유자녀장학재단을 운영하고 있다. 2011년 까지 총 1,600여 명의 유자녀에게 14억 원의 장학금을 지원했다.



어업인의 든든한 지킴이

수산업은 다른 어떤 산업부문에 비해서도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많이 받는 산업이다. 어업이 주로 이루어지는 바다가 태풍, 폭풍 등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자연재해로 인해 어업인들의 생명은 물론이거니와 어선이나 주택 등 재산상의 피해도 크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오래 전부터 자연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복구를 위한 자금을 지원하고 식량을 공급하며 자녀학자금 감면 등의 지원책을 강구해나가는 수산공제사업을 수협을 통해 실시해 왔다.

수협 공제사업의 효시는 1930년대 말 당시 조선수산회 시대부터 실시한 어선공제사업이다. 어업인들이 일부 공제료를 부담하고 국가와 도에서 일부 금액을 보조하는 형태로 운영되었다. 광복 후에 일시 중단되었던 이 사업은 1954년에 다시 재개되어 대한수산중앙회에서 담당했다. 이후 1962년 4월 1일 수산업협동조합이 발족하면서 이 사업을 승계하고, 어선공제사업 외에 선원공제사업과 어구공제사업을 추가했다. 정부가 담당해야 할 수산공제사업을 수협에서 대행하기 시작한 것이다.

1960년대까지 어선, 선원 및 시설물을 가입대상으로 하는 손해공제사업 위주로 실시되던 공제사업은 1970년도부터는 생명공제사업을 개발하여 실시함으로써

종합공제사업자로서 성장 발전하는 기반을 구축했다. 이후 1978년부터는 연근해 어선원의 보험료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2001년부터는 어선보험료도 지원하고 있다.

또한 2003년부터는 어선 선주의 부담능력을 감안하여 어선 톤수에 따라 공제료의 지원율을 차등화했다. 어선원공제의 경우에는 30톤 미만 어선은 50%, 30~49톤은 20%, 50~99톤은 10%를 지원하며, 어선공제에 있어서는 20톤 미만의 어선에 대하여 50%를 지원했다.

그러나 연근해 어선원 및 어선의 체계적인 재해보상 체계가 미흡하고 어선원에 대한 보험가입이 어선 톤수에 따라 선원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으로 이원화됨에 따라 재해발생 시 신속·공정한 보상이 어렵게 되었다. 이에 따라 2003년 3월 19일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을 제정하고 보험사업의 운영을 수협중앙회에 위탁하여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해 오고 있다.

최근 수협의 공제사업은 어업인 중심의 상품개발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그 이유는 영리 목적의 민영 보험과는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으로 어업인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어업인들은 민간 보험에 가입할 경우 보험료가 높기 때문에 가입이 쉽지 않다. 이에 수협은 민영 보험사들이 취급하기 어려운 보험 상품을 어업인들에게 제공하면서 특화된 서비스의 제공에 나섰다. 수산인안전공제Ⅱ가 대표적인 예다. 수산인안전공제Ⅱ는 기존의 어선원보험 및 산재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영세한 어업인들을 위해 개발된 상품으로 민간 보험사에서는 시행하기 힘든 내용들이다. 또한 어업 현장 외에도 이동 중 어업용 기계의 편승자와 배우자도 가입이 가능해 어업인 생활중심의 보험으로 평가받고 있다.

2011년 들어 수협은 협동조합 전문 보험사로서의 자립경영 기반 구축을 목표로 삼고 고객 중심의 전략적 마케팅 강화, 보장성·장기계약 확대를 통해 지속 성장기반 구축, 자산운용의 수익성·안정성 제고 등의 세부 계획을 수립해 추진해왔다.

그중에서도 핵심 사업은 어업인 실의 증대를 위한 정책보험 활성화와 양식어업인을 위한 양식보험 품목 확대였다.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양식어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수산물 및 양식장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보험료 및 운영비 등 총보험료의 72.5%를 지원하는 정책보험이다. 2008년 넙치를 시작으로 2009년 전복, 2011년 5월 조피볼락(우럭)에 대해 재해보험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 재해를 입은 어업인들이 재기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고 안정적으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현행법상 재해를 입은 어업인들에게 지원되는 재난지원금 지원한도는 최대 5,000만 원에 불과해 이 금액으로는 사실상 재기가 불가능하다.

수협은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의 범위를 확대하기로 하고 2011년 11월부터 굴·김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시범사업에 들어갔다. 이로써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대상 품목수는 5종으로 늘게 되었다. 굴·김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의 시범사업은 2014년 12월 말까지 실시할 예정이며, 시범사업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여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어서 2012년 1월에는 참돔, 돌돔, 감성돔, 쥐치, 기타볼락 등 5개 품목에 대해서도 시범사업을 실시해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의 보험 가입대상 품목수를 10개로 늘렸다.

아울러 소형 선박들의 보험 가입 장려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도 시행하고 있다. 소형 선박들의 사고율이 높은데 비해 가입률은 저조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5톤 미만 어선이 보험에 가입한 후 무사고 시에는 자부담 보험료의 20%를 환급해 주거나 동일 어촌계에서 5척 이상이 가입할 경우 보험료를 할인해 주고 있다. 이를 통해 보험 가입률을 높이고 어업인들의 안전의식 제고에도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수협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어업인들의 대다수는 보험료에 대한 부담이 커 가입을 꺼리고 있다. 실제로 넙치 양식을 하는 어업인이 평균 부담하는 보험료가

약 300만 원으로 최근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들에게는 여간 부담스러운 금액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어업인들의 자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 마련 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공제보험의 특성상 1년간 보험료를 납부하고도 재해가 발생하지 않으면 소멸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자부담 비율을 줄여 보험에 적극 가입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제 50년을 넘어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는 수협 공제보험은 '수협공제 선진화, 정책보험 전문화, 양식보험 안정화'를 3대 비전으로 수립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재무건전성 강화, 양식보험 성장기반 구축, 정책보험 활성화, 고객가치 극대화, 인적 인프라 최적화, 수익성 제고, 신성장 특화상품 개발' 등 7대 전략을 강력히 추진함으로써 최고의 협동조합 실현에 앞장서 나갈 계획이다.





계통판매제로 시급히 전환해야

우리나라의 산지 수산물 판매제도는 1997년 7월 1일 이전까지는 모든 수산물에 대해 반드시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산지 위판장에서만 판매하도록 하는 계통판매제가 원칙이었다. 그리고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판매장소란 다른 아닌 수협의 산지 위판장을 말하는 것이었다. 수산물은 무주물 선점 원칙이 적용되는 공유자원이므로 국가가 적극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고갈되어 버릴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특성상 불법 어업을 방지하고 수산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판매 장소를 지정하여 관리하면서 정착된 제도가 계통판매제이다.

계통판매제의 역사는 일제강점기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1911년 6월 3일 ‘어업령’이 발효됨에 따라 어업조합이 생겼다. 어업조합은 어업권을 취득하여 조합원들에게 생산을 하도록 하고, 조합원들이 생산한 수산물을 어업조합을 통해 판매하도록 했다. 이러한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1914년 조선총독부령 제136호로 ‘시장규칙’을 공포하고 이 규칙의 부칙에 의거하여 제3호시장의 경우 객주상 및 회사경영 시장은 규칙 발효 전의 것을 제외하고는 시장 개설을 금지했다. 다시 말해 도장관(도지사 격의 직책)이 지정하는 공공단체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만이 어획물을 판매

할 수 있게 한 것이다.

특히 1929년 4월 12일 조선총독부령 제109호로 공포된 ‘조선어업보호취체 규칙’ 제9조에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그 지역 내에 지정하는 구역이 아니면 어획물 또는 그 제품을 양류, 매매, 교환 또는 매매 위탁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여 특정 구역만을 수산물 판매 장소로 지정하였으며, 이것이 이른바 계통판매 제의 실시 근거가 되었다. 조선총독부는 1932년 11월 4일 식산국장통첩 제687호로 각 도별로 이의 지정장소를 어업조합 위탁 판매소로 정하였다.

이러한 지정판매제도는 1953년 수산업법 제정 이후에도 계속되었다. 1963년 12월 16일 자원보호령을 제정 공포하고 그 제19조에 주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장소에서만 어획물을 양류 판매할 수 있게 한 것이다. 1970년에는 수산자원보호령을 개정하여 불법어획물의 유통 방지와 수산자원 보호 및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계통판매제를 제도화했다. 즉, 근해어업의 어획물에 대해서는 수산청장이 지정하는 항구에 한하여 양류하도록 하고, 양류된 어획물은 수산청장(시도지사)이 지정하는 장소에서만 매매 교환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한 것이다.

원래 계통판매제였던 수산물 산지 판매방식에 경제발전이 급격히 이뤄지면서 산지유통제도에 대한 변화를 요청하는 움직임이 서서히 나타났다. 고흥 등 전남지역 일부 김 양식어업인들이 계통판매제는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제도임에도 양식 수산물은 이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계통판매제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에 정부는 1982년 산지거래제도 개선 방안을 수립하여 양식 수산물에 대해서는 1983년 1월 1일부터 임의상장제를 실시하고자 했지만 시기상조라는 이유로 실현되지 못했다.

그러던 것이 1993년 문민정부 출범으로 행정규제 개혁부문 농림수산분야 대상 과제로 수산물 산지수협 위원장 계통판매제 개선을 선정하고, 산지 수산물의 계통판매제를 임의상장제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이 발표되었다. 계통판매제로 인해 어업인들의 시장선택과 생산물 판매 자유가 근본적으로 저지되고 있다는 것이 수산

물 자유판매제 전환의 주된 이유이자 임의상장제의 성립배경이었다.

구체적으로는 자유시장경제 체제하에서 수산물 상장제도의 모순, 이중경매, 중매인에 의한 일방적 어가결정, 중매인의 도매상 행위, 상적 유통과 물적 유통의 겸업자 증가, 수산상품의 다변화에 따른 유통구조 변화, 수산물 정가판매의 증가, 어업인의 판매 선택권 제한, 위판 수수료의 어업인 부담 등이 계통판매제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이로 인해 수산물유통제도가 현실과 괴리된 채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임의상장제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것이었다.

1995년에 제1단계 자유판매제를 실시하여 김, 미역, 활어 등을 포함한 일부 어류에 대해 실시되었고, 1996년의 제2단계에서는 패류 및 기타 해조류를 추가하여 자유판매제를 확대했다. 그리고 1997년 7월 1일부터 모든 연근해 어획물은 수협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거래 및 판매 자유화가 전면 허용되었다.

하지만 다양한 판로를 개척해 생산자의 소득을 높이고 중간 유통과정을 없애 값싸고 질 좋은 수산물을 소비자에게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측과는 달리 임의상장제는 시행 이후 각종 부작용을 드러냈다. 가장 큰 문제는 위판율이 하락하면서 생산 통계 자료의 확보가 힘들어졌다는 점이다. 어업인이 임의로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어디서 어느 정도가 생산됐는지를 집계할 방법이 없다. 생산 통계는 관련 사업에 필요한 지원 방안이나 정책을 수립하는 데 기본이 되는 자료지만 수산업에는 이를 뒷받침할 신뢰성 있는 통계자료가 전무한 상태다.

부정확한 수산 통계는 결국 잘못된 정책수립으로 이어졌다. 통계자료의 신뢰성 하락으로 기존 수산정책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고, 신규정책 수립에 따른 지원금을 산정할 때 정책 집행에 문제점도 발생했다.

대표적인 것이 양식어업 면허의 남발이다. 경남 통영시의 경우 양식어업의 정확한 생산량을 알 수 없어 쉽게 면허를 내줬고 이후 생산 공급 과잉 현상을 유발시킨 주요 원인이 되었다. 통영시는 뒤늦게 2003년부터 신규 어장허가를 제한하였다. 1999년에 체결된 신한일어업협정 역시 정확한 수산통계가 작성되지 않아 불리한



나로도수협에 상장된 수산물과 무게 측정 바구니

조건을 떠안았다는 분석도 있다. 자국 어업에 대한 충분한 자료를 확보한 일본에 비해 한국은 마땅한 통계조차 없어 양국 사이에 있던 황금어장을 모두 내주는 꼴이 됐다는 것이다.

수산물 생산통계의 정확성 부족은 어업인에 대한 피해보상 문제도 어렵게 만들었다. 객관적으로 신뢰할 만한 자료의 부족으로 태안 기름 유출 사고, 해파리 피해, 화력발전소 건설, 간척사업 등의 인위적 피해나 자연재해 피해에 대한 어업피해 보상 시 피해금액 산정에 힘든 점이 많았다.

또 다른 문제는 중간 유통상인이 매매 단가를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을 정도의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면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수협 공판장을 거칠 경우 생산비를 감안해 최소한의 적정 단가를 유지할 수 있지만 유통상인이 부르는 가격에 맞출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그것이 힘들 수밖에 없다. 저가 중국산 수산물의 대량 유입과 국내산의 홍수 출하로 가뜩이나 판로를 찾지 못하는 상황에서 적정한 가격대를 유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새로운 유통구조를 개척하는 부분에서도 문제가 생겼다. 대부분 영세한 생산 업인들은 스스로 수산물 판로를 개척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므로 결국 중간 유통상인에게 판로를 의존할 수밖에 없으며, 여기에서 발생하는 유통비용을 고스란히 생산자 부담으로 안게 됐다.

특히 수협 위원장을 통한 경우 조합이 중간에서 검증된 중매인을 통해 판매할 수 있어 어대금 수령에 어려움이 없지만 개별적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는 수산물을 공급하고도 대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하였다.

최종 소비자들도 이런 중간 유통과정을 몇 단계나 거쳐 마진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후에야 구입하게 되는 악순환이 발생했다. 정작 혜택을 받아야 할 생산자와 소비자는 뒷전으로 물려난 채 중간 유통상인만 배를 불린 꼴이 된 것이다.

이러한 것은 수치상으로도 확인되었다. 수협이 2004년 발간한 '수산물 임의상장제 도입 후의 영향분석'에 따르면 임의상장제가 시행되기 전에는 매년 10% 이상 성장했던 어가소득이 1997년을 기점으로 7~8% 증가하는 데 그친 것이다. 유통단계도 이전의 3~4단계에서 5~6단계로 보다 다단계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임의상장제'가 불법으로 행위를 부추긴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계통판매제 하에서는 불법 포획한 수산물은 위판이 힘들지만 임의상장제는 이런 불법 어선들의 수산물도 판로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불법 어획물 대부분이 상대적으로 싼 값에 거래되는 텁평현상을 불러와 일반 수산물의 유통가격마저 떨어뜨린다는 주장이다.

임의상장제로 인한 조합경영의 악화도 문제다. 조합의 위원물량이 크게 감소하므로 수익이 급감하고, 그 결과는 조합경영에서 조합원을 위한 각종 환원사업 중단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현실인 것이다. 이에 수협은 2010년 1월 26일 수산물 판매방식을 종전의 계통판매제로 전환해 합리적인 수산정책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농림수산식품부에 건의하는 등 적극적인 움직임에 나서기도 했다.

이와 같은 임의상장제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계통판매제를 부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 하루빨리 대책 수립에 나서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전면적인 계통판매제 전환이 현실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인센티브제 도입, 품목별 적용 등 실현 가능한 제도 개선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급작스런 계통판매제 전환이 유통질서에 혼란을 가져다 줄 우려가 있기 때문에 대안으로 일선 수협 총회를 통해 상장형태에 대해 내규로 결정하고 제도 위반 시에는 해당 조합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방안이 있을 수 있으며 조합 특성에 맞는 전환여부의 선택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임의상장제에 따른 다양한 현실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속히 계통판매제로 전환해야 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위판실적과 어업인들에 대한 지원책을 연계해 일정한 범위 내에서 수산물 상장을 강제화하는 등 임의상장제에 대한 대대적인 보완책 마련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면세유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노력

어업인들의 생산의욕을 돋고 나아가 우리나라 수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어선용 기름을 공급해주는 유류사업은 수협이 야심차게 준비해온 사업이었다. 특히 영세한 어업인들에게는 더 없이 필요한 지원 제도였다.

어업용 유류는 유통경로가 복잡한 데다 유통단계에 따른 중간 이윤이 과다해 대다수 어업인들은 가격 면에서 큰 손실을 볼 수밖에 없었다. 뿐만 아니라 유류수급 장소가 어항 또는 해상이었기 때문에 수요물량이 적절한 시기에 공급되지 않아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그럼에도 어업인들은 조업을 위해 유류를 구입하지 않을 수 없었고, 이를 악용해 유류공급 상사 및 중개업자 등은 시중가격에 비해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으로 어업인에게 판매했다. 이처럼 힘든 현실을 견디다 못해 출어를 아예 포기하는 영세 어업인들도 많았다. 때문에 유류직배 문제는 어업인들의 숙원사업 중 하나였다.

수협이 유류직배제를 실시한 것은 1965년부터였다. 그해 5월 1일부터 당시 상공부로부터 소요량을 배정받아 어업용 유류의 공급업무를 개시한 것이다. 그러나 유류직배사업에는 많은 어려움이 도사리고 있었다. 특히 뿌리 깊은 부정비리 관행

이 문제였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물자라면 공짜라고 여기던 풍조가 팽배하던 시절이었다. 일부 어업인들이 지원받은 기름을 슬쩍 빼돌려 육지로 반출시키는가 하면, 제도를 관장하고 집행하는 일선 직원들조차 기름 양을 속이고 밖으로 빼돌려 이익을 취하는 일이 잦았다.

수협중앙회에서도 그런 일이 횡행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지 않았다. 마침 수협유조선 1호, 2호, 3호의 출범과 함께 수협중앙회에서는 유류사업을 주도적으로 관장하게 되었다. 문제는 유류사업을 실시하면서 용도에 정확하게 쓰이는 것을 감시하고 또 배분되는 양을 정확하게 지킬 것인가 하는 것이었다.

수협중앙회에서는 고심 끝에 어촌지도원들을 유조선에 승선시켰다. ‘사무장’이라는 직책을 주고 유류 관리 일체를 관할하도록 한 것이다. 어느 날 갑자기 사무장이라는 직책을 달고 유조선에 승선한 지도원들을 선원들이 곱게 볼 리가 없었다. 지도원들이 승선함으로써 그동안 암암리에 부정 유출을 통해 쟁기던 짭짤한 수입을 잃어버렸으니 당연한 일이었다.

거친 뱃사람들은 지도원 안면에 대놓고 욕지거리를 하기 일쑤였고, 유조선을 험하게 몰아 뱃멀미를 일으키게도 했다. 하지만 지도원들은 그들의 속셈을 훤히 알면서도 결코 굴하지 않았다. 뱃멀미로 눈앞이 깜깜하다가도 어선에 주유를 할 순 간이면 어디서 그런 힘이 솟는지 반짝 정신을 차렸다. 그리고 기름 주유 과정에서 양이 모자라거나 넘치지는 않는지 세심하게 주유계를 감시했다. 별 방법을 다 써도 주유를 할 때만큼은 정신을 바짝 차리는 지도원들 앞에서 두 손 두 발 다 든 것은 유조선의 뱃사람들이었다. 뱃사람들은 이 사람들만큼은 기름 부정 유출을 기어코 막아낼 사람들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허튼 짓을 시도할 엄두를 아예 접었다.



면세유류 저장소

그렇게 부정비리 관행을 바로잡은 수협은 어업인의 어업경영 활동을 통한 소득 증대에는 어업용 유류의 면세가 절실하다고 판단하고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면세를 추진했다. 그 결과 1972년 1월 1일부터 수협에서 공급하는 중유, B·A유 및 경유 등에 대한 석유류세의 면세를 받게 되었다. 이어 1975년 4월부터는 윤활유도 면세 적용을 받게 되었고, 1978년부터는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가 면세되어 어업인들에게 완전 면세유를 공급할 수 있게 되었다.

수협의 유류사업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유가자유화로 일대 전환점을 맞이했다. 수협이 직접 판매자와 협상을 해서 구입가격을 적극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에 수협은 1997년 4월부터 국내 5개 정유사를 상대로 경쟁 입찰을 진행해 종전에 비해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어업용 유류를 구입·공급함으로써 어업인의 수혜액을 늘리는 데 기여했다.

2005년 말에는 국제유가의 변동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남 여수시 낙포동에 22만 드럼의 저유 능력을 갖고 있는 여수저유소를 준공하여 운영하고 있다. 144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준공한 여수저유소는 15일치의 유류 비축물량을 보유할 수 있으며 연간 57억 원의 유류구입비 절감효과가 있다.

한편, 어업용 면세유 제도는 어업인의 유류비용 경감에 크게 기여해왔지만 일몰조항으로 인해 연장에 재연장을 거듭하는 방식으로 유지되고 있다. 2011년 9월에 기획재정부는 세제를 개편해 어업용 면세유의 부가가치세 감면 기한을 연장했다. 현행 2012년 6월 30일까지 100% 감면, 2012년 7월 1일~12월 31일까지 75% 감면계획이던 것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100% 감면을 적용하기로 세제를 개편한 것이다.

이와 같은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수협은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다. 2011년 5월 어업소득에 대한 비과세, 면세유 개별세법 전환, 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어업인 및 수협관련 세제개선 건의서'를 기획재정부 및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하는 등 관계부서에 어업용 면세유 시한 연장을 호소했다.

대부분의 어업인들은 면세유 제도가 한시적인 것을 알지 못하고 영구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면세유 제도가 일몰기간이 연장되지 않으면 바로 사라져버린다는 것은 어업인들에게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일인 셈이다. 수협이 발 벗고 나설 수밖에 없는 이유다. 면세유 제도가 영구화될 때까지 수협의 이와 같은 노력은 계속될 것이다.

수협은 2011년에 약 486만 드럼의 면세유를 적기에 공급했다. 따라서 면세에 따른 조세감면액 6,460억 원과 국내 4대 정유사 등을 대상으로 능동적인 입찰활동에 따른 염가 이익 1,200억 원 등 7,660억 원에 달하는 수혜를 입었다.

앞으로 수협은 면세유의 안정적 공급에 더욱더 매진함은 물론 어업용 면세유류에 대한 사후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어업용 면세유류 부정유통 전산상시감시 시스템의 운영을 더욱더 효율화하고 업그레이드하여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취급 담당자의 의식개혁을 위한 집합교육, 부정유통 방지 포스터 제작 배포, 부정유통 신고자에 대한 신고보상금 제도 등의 운영으로 면세유 부정유출 방지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다.



군 장병에게 싱싱한 수산물을…

수협은 군 장병의 체력 증강과 수산 소비 촉진을 위해 군납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수산물에 대한 군 장병 선호도 향상을 통한 급식 물량 확대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군·민·수협의 합동으로 ‘군납 수산물 선호도 향상 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고, 필렛 제품을 확대 공급하기 위해 급식 품목을 다양화하고 조리법 시연회를 늘리고 있다. 수산물 선호도를 증대시키기 위해 정기적인 시식행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식품안전종합연구소를 설치하는 등 다양한 군납 신제품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수협이 수산물에 한해서 군납사업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1970년부터였다. 1969년 10월부터 시범 실시한 데 이어 1970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군납 업무를 시작한 것이다. 그토록 염원하던 군납사업이었지만 막상 시작하려고 보니 경험도 부족했고 인력도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 갖춰진 것이 하나도 없는 실정이었다. 처음에 가지급급으로 업무를 추진하던 것을 군납사업회계를 별도로 개발하고 서울 외곽에 수산물 보관을 위한 냉동창고 시설을 설치하였다. 아울러 육군본부로부터 군납 담당직원을 특채하는 등 업무체계를 갖추어 나갔지만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폭설이나 폭우 등 기상악화로 인해 물량을 제때 납품하지 못하게 생기면 군납 담당자는 애간장을 다태우며 수습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발을 동동 굴러야 했다.

군납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납품 과정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수량과 선도를 유지해야만 했다. 수량은 문제될 것이 없었다. 전국의 회원조합을 통해 그 지역의 대량 생산 어획물을 계통수매하는 방식이었으므로 물량 비축은 선어든, 건어물이든 안정적인 확보가 가능했다. 그런

데도 납품을 담당하는 군인들이 주로 꼬투리를 잡는 것은 수산물의 선도였다. 당시의 상황을 보여주는 일화 한토막이다.

매번 선도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던 한 군납담당 직원이 있었다. 전남 지방에 거주하던 그 직원은 그 날도 군납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군부대 앞에 도착했다. 잠시 뒤에 도착한 군납 담당 군인은 신고 온 생선을 제대로 검사도 하지 않은 채 선도가 떨어진다는 이유로 가장 낮은 등급을 매기는 것 아닌가. 몇 차례 그런 일을 당한 직원은 더 이상 울분을 참을 수가 없었다.

“이것 보시오.” 등급을 매기고 돌아서는 군인을 불러 세웠다. 군인은 무슨 일이 나는 듯 멀뚱멀뚱 수협 직원을 바라보았다. 지도원은 미리 작성한 대로 화물차 적재함에 실려 있던 생선 한 마리를 꺼내 들었다.

“잘 보시오!”

직원은 납품 담당 군인이 보는 앞에서 생선을 우걱우걱 씹어 먹기 시작했다. 그 모습에 놀란 납품 담당 군인이 황급히 직원에게 달려갔다.



수협 부평군납출장소 개소식(1983)



“이게 무슨 짓이오?”

“잘 보시오. 아래도 이 생선이 선도가 떨어진단 말이오? 선도가 떨어지면 내가 이렇게 날것으로 먹을 수 있겠소?”

아직도 입 안 가득 생선을 베어 물고 씹어 삼킨 수협 직원의 눈에서는 눈물까지 흘러내렸다. 차마 볼 수 없었던 것인지, 납품을 담당하는 군인은 지도원을 못 본 척 외면하고 먼 하늘만 올려다보았다.

이렇게 군납사업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보고받은 수협중앙회에서는 그때서야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다. 수협 직원들에게 맡겼던 군납 업무를 군에서 제대한 예비역 장교들에게 맡기기 시작한 것이다. 그렇게 해서 군납사업은 점차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아 나갔다.

이제 수협은 군 장병들을 위해 싱싱한 생선회까지 납품할 정도로 최고의 식품안전과 품질 유지 시스템을 갖추고 수산물 급식시장에서 선두주자로서의 역할을 다

하고 있다. 2007년에는 감천항물류센터를 건립해 군납 수산물의 위생적 생산 체계를 구축하기도 했다. 감천항물류센터는 2008년에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HACCP 적용업소로 지정받았다. 이어 2010년에는 인천에 연간생산능력 1만 톤 규모의 현대적 가공시설을 갖춘 수산물 가공물류센터를 건립해 군납 수산물의 위생적 생산 체계를 구축했다.

또한 원료입고에서부터 출고까지 철저한 위생관리를 해나가면서 직원들에 대한 위생 교육도 강화했다. 이를 위해 자체 검사실을 활용, 일반세균과 식중독균 등 기존에 검사하던 항목에 추가하여 중금속, 노로바이러스 등 분석 항목을 더했다.

2011년 군납품목은 기본 급식품목 34종과 선택 급식품목 22종으로 계약물량은 9,967톤(품목별 평균 293톤)이었다. 하지만 매생이, 숭어순살 등 일부 조합 특산물의 경우 연간 생산량은 많으나 대중성 및 상품성이 없어 판로확보에 어려움이 따르고 넙치 등 양식 수산물의 경우 고단가로 인해 군에서 급식을 회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시험급식과 시식행사를 통해 회원조합 특산물 중 부안수협의 숭어순살과 해남, 완도지역의 매생이를 2012년 기본급식 품목에 반영하도록 추진하고 있다. 특히 회원조합의 군납 요구품목을 수시로 발굴하고 급식 품목으로의 반영을 적극 추진할 것이다. 아울러 수협중앙회와 회원조합 간 상생을 위한 사전 사업 정보를 공유하고 정보교환과 인적교류 등 네트워크 형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김천항물류센터 실험실



군 부식용 수산물 신규메뉴 시식회(2001)



수산물류 정보의 허브센터를 꿈꾸며

바다에서 나는 온갖 종류의 해산물이 다 모이는 곳, 노량진수산시장은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다. 밤이면 활어, 선어, 냉동 해산물, 조개류, 갑각류, 건어물 등의 해산물을 실은 차들이 시장으로 들어온다. 새벽 1시부터 경매가 시작되어 5시 즈음이 되면 끝난다. 이곳에서 거래되는 해산물의 종류는 370여 종이며, 도소매를 하는 점포는 800여 곳이다.

수협이 노량진수산시장의 현대화사업을 추진한 것은 2006년부터였다. 유통환경의 변화와 대형 할인점의 등장으로 경쟁이 치열해졌으며, 시설이 낡아 물류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등 문제점이 많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현대화 사업은 상인들의 반대에 부딪혔다. 상인들은 특히 시장 건물을 지하 3층, 지상 8층 규모의 복층 구조로 바꾸는 것에 대해 반발이 컸다. 복층화가 되면 물품을 실어 나르기도 힘들고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물건 값이 비싸질 수 밖에 없어 시장 기능이 사실상 마비될 수도 있으며, 해수 때문에 시설 안전성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이에 수협은 별도의 부지를 확보할 수 없는 상황에서 복층화는 부득이한 선택이며



수협의 노량진수산시장 인수운동(1988)



시장 전경

물품 이동에 대한 우려는 시간대별 물량을 충분히 계산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고 강조했다. 아울러 해수로 인한 부식 문제도 고강도 우레탄을 깔면 해결할 수 있
고 임대료는 낮아질 것이라고 설득했다.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사업의 걸림돌은 상인들의 반대만이 아니었다. 농림수산

식품부 소유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비축창고 6,700평에 대한 양도여부가 불투명해졌으며 사업비의 분담에 있어서 정부와 수협의 의견 차이도 문제였다.

하지만 2007년 8월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에 필요한 농산물 비축기지 부지 일부를 수협에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를 위한 농산물 비축기지 부지활용 기본협약’이 농림부와 해양수산부 간에 체결되면서 현대화사업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대체부지 문제 해결의 계기가 마련되었다.

2007년 10월에는 변화하는 유통 환경에 경쟁력을 갖춘 미래형 수산물 도매시장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현대화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후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해 2008년 5월에 완료하였다.

2012년 3월 22일 서울시는 노량진수산시장을 현대화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발표했다. 지하 2층, 지상 8층, 연면적 11만 8,346m² 규모의 시장 건물을 신축하는 현대화사업은 2012년 하반기부터 시작해 2016년 마무리될 예정이며, 시장영업을 계속하면서 일부 철거 후 순차적으로 공사하는 방법으로 진행된다. 이에 현재 농산물 비축기지는 시장현대화 사업부지로 활용하기 위해 유통상업지역으로 변경하고, 현재의 시장부지는 시장을 폐지하고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환원한다. 또 시장을 폐지한 부지의 일부를 활용해 대규모 창고건축이 가능하도록 준주거지역으로 조정했다.

2011년 서울시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조사한 ‘서울의 가장 매력적인 명소’에도 뽑힌 바 있는 노량진수산시장은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의 바다와 한국의 해산물 음식을 한 자리에서 설명해줄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아직까지 관광 시장으로서는 부족한 점이 많지만 ‘수산물류 정보의 허브센터’를 구축하기 위한 현대화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다면 노량진수산시장은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빼지지 않는 미래형 수산물 전문 도매시장으로 거듭날 것이다.





스포츠마케팅의 국가대표 수협은행

수협은행이 대한체육회 및 대한올림픽위원회와 공식후원 협약을 체결하고 다양한 형태의 스포츠 마케팅을 통해 브랜드 홍보효과 제고에 나선 것은 2005년부터였다. 그해 10월 21일 수협은행은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대한체육회(KSC) 및 대한올림픽위원회(KOC)와 공식후원은행 협약을 체결했다. 많은 은행들이 스포츠구단 운영을 홍보수단으로 삼고 있는 가운데 수협은행은 공적자금이 투입된 상태라 직접적으로 구단을 운영하기에는 내외부적으로 제약이 따랐다. 그래서 대한체육회를 지원하는 홍보방식을 택한 것이다.

대한체육회는 한국 스포츠의 본산으로 54개 가맹경기단체, 15개 시도지부 및 15개 해외지부와 함께 스포츠를 통한 국위선양에 크게 기여하고 한국 스포츠의 세계화에 주력하고 있는 단체다.

후원은행 협약 체결에 따라 수협은행은 2008년까지 대한체육회 및 대한올림픽위원회 휘장과 공식후원은행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게 되었다. 또한 대한올림픽위원회가 파견하는 올림픽, 아시안게임 등 국제 종합경기대회에 출전하는 국가대표 선수단의 공식후원은행으로 활동하게 되었다.

2008년에는 베이징올림픽에 응원단을 구성해 현지 응원전을 펼쳤으며 상품 개발, 대고객 프로모션 및 고객행사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스포츠 마케팅을 추진했다. 기자회견장 등 곳곳에 수협 로고를 노출시켜 간접적인 브랜드 홍보활동도 적극적으로 전개했다. 아울러 대한체육회 및 대한올림픽위원회와 함께 불우어린이를 태릉선수촌에 초청, 김연아 등의 국가대표 선수와 함께 하는 자리를 마련해 스포츠를 통한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해 왔다.

수협은행은 2005년에 이어 2009년에도 또 다시 공식후원은행으로 지정되었다. 수협은행이 우리은행, 외환은행, 농협중앙회 등 쟁쟁한 은행들과의 경합 끝에 공식 후원은행으로 재선정된 것은 그만큼 경쟁력을 인정받은 결과였다. 또한, 국내 최대의 스포츠 조직인 대한체육회에 장기간 후원을 하게 됨으로써 은행 공신력 제고와 브랜드 자산 가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었다.

이러한 점은 2010년 2월 밴쿠버 동계올림픽 때에도 여실히 증명되었다. 당시 우리나라 선수가 메달을 따고 인터뷰를 하면 방송 화면에 수협은행의 심벌마크가 나왔다. 수협은행이 전 세계의 방송에 나간 것이다. 이는 돈으로 따질 수 없는 큰 브랜드 가치를 지닌 것으로, 수협의 이미지 확산에 대단히 큰 효과를 가져왔다고 볼 수 있다.

2011년 6월 26일에는 대한체육회와 공동으로 ‘2011 올림픽의 날’ 행사를 서울 방이동 올림픽공원 평화의 광장과 공원 일원에서 개최했다. 수협은행이 대한체육회 공식 후원은행 권리를 행사하고 대한체육회와의 파트너십 강화를 위해 올림픽의



2008 베이징올림픽 관련 포스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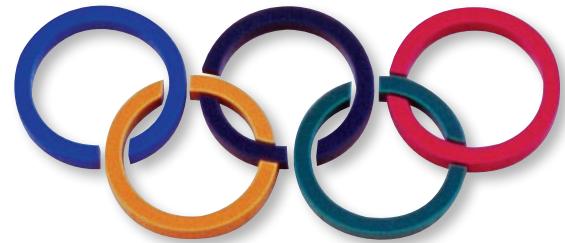
2008 베이징올림픽 관련 TV광고

날 행사 타이틀 스폰서를 담당한 것이다.

‘수협은행과 함께하는 2011 올림픽의 날’ 행사에는 약 3,000여 명의 시민들이 참여해 평창의 동계올림픽 유치를 기원하는 다양한 이벤트와 함께 올림픽공원 일대를 달리는 부대 행사가 이어졌다. 태풍 ‘메아리’의 영향으로 많은 비가 내리는 가운데에도 많은 시민들이 몰려들어 올림픽의 열기를 마음에 새기고 동계올림픽 유치를 염원했다. 평창은 2011년 7월 6일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총회에서 독일 뮌헨과 프랑스 안시를 누르고 2018 동계올림픽 개최권을 따냈다.

수협은행은 행사과정에서 대한체육회와 함께 각종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는 물론 인터넷 포털 네이버의 스포츠섹션 배너 및 연결 사이트(대한체육회 올림픽의 날)에 은행 로고 등을 노출해 홍보 효과를 극대화했다. 행사장 내 수협은행 홍보부스를 운영해 홍보물을 배포했으며 행사 참여자에게 수협은행 로고가 담긴 기념품을 배포해 대고객 홍보를 적극 유도했다.





수협은행이 대한체육회
공식 후원은행 권리행사를 행사하고
대한체육회와의
파트너십 강화를 위해

올림픽의 날 행사 타이틀 스폰서를
담당한 것이다.



Fish Care(양식생산관리지원) 사업

세계적으로 수산물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기르는 어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양식업은 이미 매우 중요한 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우리나라 양식업은 표면적인 생산량은 많으나 각종 질병과 자연재해로 인한 폐사로 많은 내적·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어 아직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질병문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체계적인 양식생산관리 시스템의 구축이 너무 절실한 시점이다.

이에 수협중앙회는 부경대학교와 손을 잡고 Fish Care(양식생산관리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Fish Care 사업은 우리가 건강검진을 받듯이 어체를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질병 발생 및 폐사를 방지한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그런데 수협중앙회의 Fish Care 사업은 'Fish Care'라는 용어를 처음으로만 들어 사용하였다는 데에 또 다른 의미가 있다. 'Fish Care'란 용어가 지금은 어류질병관리와 관련한 전문 학술용어로 통용되고 있다. 수산경제연구원에서는 양식어가에 대한 지원사업을 구상하던 중 어업인교육문화복지재단의 2011년도 신규 사업으로 이미 추진 중이던 어업인 질병치료 지원사업, 일명 '더불어와

완치’(Together and Cure) 사업에서 Fish Care라는 용어를 착안해냈다. 어업인 건강은 Together and Cure 사업으로, 양식어류의 건강은 Fish Care 사업으로 관리함으로써 어업인의 아픔을 돌본다 (care)는 아이디어의 기발함이 돋보인다.

기발한 아이디어가 기존의 패러다임과 충돌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인가 보다. Fish Care 사업도 기존의 어류질병 관리체계에 대한 선입견에 부딪혀 사업초기 어려움을 겪었다. 기존의 질병제어는 세균, 바이러스, 기생충 등의 발생 원인과 수질, 사육밀도와 같은 환경 관리 중심으로 일관되어 있었으며,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러한 방법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식조차 하고 있지 못한 상태였다. 이러한 인식의 부재가 사업시행 초기 가장 큰 걸림돌이 되었다.

일단 통영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행하였다. 통영은 우리나라 양식업의 메카이자 양식 어업인이 가장 많은 지역 중에 하나이고 사업시행 주체인 부경대학교와 거리상 인접해 있기 때문에 시범지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사업 추진을 위해 2011년 3월에 통영지역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20개 어가를 목표로 사업신청을 받았지만, 4개월이 지나도 신청자는 1개 어가에 불과하였다. 현재의 질병제어에 익숙한 상황에서 건강평가라는 생소한 방법이 의심스러웠을 것이고, “그 거 해 봐야 결과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무슨 큰 도움이 되겠나?”하는 생각들이 만연해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대로는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 사업시행 주체인 부경대학교 수산질병관리원에서는 수산질병관리사협회의 도움을 받기로 결정하였다. 통영일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수산질병관리사들을 한자리에 모아 사업에 대하여 설명하고 양식어가를 일일이 방문하여 신청하도록 설득한 결과 6개 어가의 신청이 들어왔으며



양식생산관리지원(Fish Care) 사업 협약식

총 7개 어가를 대상으로 사업을 시작하였다. 사업을 진행하면서 꾸준히 어업인들과 대화하고 수산질병관리사들과 기존 사업 참여 어가들의 권유로 매월 사업에 동참하는 어가가 하나 둘 늘어 4개월 후에는 당초 목표어가인 총 20개 어가가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다.

사업을 진행해 가는 도중에도 몇몇 어업인들은 건강평가 방법에 의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다. 한 예로 건강평가의 대상이 되는 어류는 한 어군에서 가장 건강하다고 생각되는 어류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인데, 평가결과에서 지난달과 비교하여 건강이 너무 악화된 양식장이 발생한 것이다. 확인을 위해 어업인과 전화한 결과 평가결과가 믿을 만한지 알아보려고 일부러 질병에 감염된 어류를 주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사업시작 3개월째 접어들 무렵 일부 어업인들의 이탈이 발생하기도 하였지만 다시 찾아가 설명하고 설득하여 사업에 계속 참여하게 되었다.

2012년 1월에는 2011년 12월까지의 건강평가 자료를 바탕으로 품평회를 개최하였다. 건강평가 등급이 꾸준히 상승한 사업의 우수 사례를 발굴하여 다른 어업인들에게 열심히 관리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고 나아가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어업인들에 대한 홍보와 인식의 전환을 위한 자리였다.

품평회에 참석한 어업인들은 처음 사업에 참여할 때는 반신반의하였으나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급이량 조절을 실시함으로써 폐사량도 줄어 어류사육에 많은 도움이 된다는 반응이었다. 또한 수산질병관리사는 평소 치료 위주의 방법을 추구하다 보니 원인불명의 대량 폐사 현상에 항상 의문을 갖고 있었으나 그 해답을 찾은 것 같다고 말하고 양식산업에 있어 건강평가법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사양모텔의 개발 등 수협중앙회의 계속적인 지원을 부탁하기도 하였다.

부경대학교에서는 사업을 진행해 나가면서 시기별 건강평가 등급과 폐사율의 상관관계에 대하여 확인하고, 건강평가 등급 하락시기의 사육사양과 더불어 우수 사례에 선정된 어업인의 사육사양과 폐사율의 관계도 계속 확인해 나갈 것이다.

한편 수협중앙회는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의 지원을 이끌어 내어 현재 통영

(조피볼락)에 한정되어 있는 사업지역과 대상에서 벗어나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갈 계획이며, 친환경·안전 수산물 생산체계의 구축은 물론 안전 수산물 인증제로 확대 발전시켜 양식 수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제고해 나갈 것이다.

이렇듯 Fish Care 사업은 수협 본연의 역할을 제고하고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아주 뜻깊은 사업으로서 수협은 이 사업을 통해 어업인에게 한발 더 다가서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Together & Cure, 더불어 완치되다

2011년 6월 24일 경남 통영에 위치한 통영서울병원의 제5수술실에서는 주재우 일반 외과 과장(의학박사)의 집도하에 오원혁 병원장과 정상호 마취과장, 윤창식 진료부 원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대장암 3기 환자에 대한 대장절제수술이 긴박하게 이루어 졌다. 의료진에 따르면, 환자는 대장암에 의한 대장폐색 상태로 금식과 술전(術前) 상태의 악조건으로 진단되고 특히 칠순을 바라보는 고령인 탓에 조금만 시기를 놓 친다면 수술마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신속한 수술이 진행되었다. 드디어 5시간 이 넘는 대수술이 끝나고 수술실의 문이 열렸고, 다행히 수술결과는 성공이었다.

같은 시각, 그 소식을 전해 받은 서울 송파구 소재 어업인교육문화복지재단에서는 환호성이 터져나왔다. 대장암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친 환자 이상우 씨(68세/통 영수협 미수2동 어촌계장)가 바로 재단이 2011년부터 신규사업으로 약심차게 추진한 '어업인 질병 치료 지원(더불어와 완치, Together & Cure)' 사업을 통해 암 수술을 지원한 바로 우리 어업인이었기 때문이다. 그날의 감격은 아무리 곱씹어 봐도 지금껏 그 어떤 소설이나 영화, 드라마보다 더욱 강렬하게 남아있다.

Together & Cure 사업은 어업인교육문화복지재단이 2011년 사업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고민에 고민을 거듭한 끝에 탄생된 작품이다. 재단은 2010년 한 해 동안 국민들로부터 모금한 소중한 기부금 2억 원을 사용하는 것을 두고 어떻게 해야만 어업인과 어촌지역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인지와 얼마나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깊은 고민의 과정을 거쳤고, 결국 물품지원 등 선심성 지원보다는 의료기관을 통한 간접 지원으로 어업인들이 의료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주자는 취지로 이 사업을 기획·추진하게 되었다.

특히 이 사업은 어업인들이 기존에 재단이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한국마사회 특별적립금을 지원받아 실시하고 있는 어업인 의료지원 사업을 통해 건강검진과 진료 등의 지원을 받아왔다. 그러나 만약 건강검진을 통해 암 등의 중대질병이 발견되어 추가적인 치료 및 수술이 필요한 경우 정작 어업인은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치료 및 수술을 아예 포기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차안하였다. 그 틈새를 메워주고자 협약병원을 통해 어업인 본인부담금의 1,000만 원까지 치료·수술비를 지원하여 즉각적인 의료지원을 통해 어업인의 생명보호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생업종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통영수협 이상우 어촌계장의 경우는 말 그대로 '하늘이, 아니 바다가 도왔다'라는 표현이 딱 맞아떨어지는 것 같다. 재단이 경남 통영지역 어업인들에게 의료지원과 의료봉사활동을 추진하고자 통영서울병원과 협약을 맺은 것이 2011년 5월 13일이었다. 이어 같은 달 29일에는 휴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재단과 통영수협 임직원, 통영서울병원 의료진 등 약 30여명으로 구성된 의료봉사단이 중부어촌계 마을회관에 의료장비를 설치했다. 그리고 내시경 등의 첨단장비를 갖춘 이동식 검진 버스까지 동원하여 어업인 150여명을 대상으로 건강검진 및 정형외과, 신경과, 내과진료와 더불어 물리치료, 재활치료 등을 실시했다. 그 결과



어업인 의료지원 사업 의료봉사 활동

에 따라 추가적으로 상세검진이 필요한 어업인들에 대하여는 6월부터 통영서울병원에서 종합검진이 실시되었다. 이상우 어촌계장의 경우 6월 16일 통영서울병원에서 종합검진을 실시한 결과 복부 초음파 검사에서 간 내 이상성 종괴가 발견되었고, 혈액검사에서 태아성암항원(CEA)이 일정수치 이상을 보여 6월 20일 대장 내시경 등의 추가검사를 실시해보니 결국 대장암 3기 이상으로 판명되어 6월 24일 긴급 수술이 이뤄진 것이다. 재단이 통영서울병원과 의료협약을 맺은 5월 13일부터 이상우 어촌계장이 수술을 받은 6월 24일까지 걸린 시간이 불과 한 달 남짓이다. 조금이라도 늦었다면 수술조차 할 수 없었을 것이란 집도의 주재우 박사의 말이 잊히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통영수협을 통해 들려오는 소식에 따르면, 이상우 어촌계장은 수술 후 빠른 회복을 보이며 현재 약물치료와 통원치료를 받으며 건강한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한다.

2009년 9월 10일 유일한 어업인 복지전담 기구라는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어업인 교육문화복지재단이 설립되어 제3섹터인 비영리부문을 통한 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어촌지역 발전에 미약하나마 집중해 나가기 시작한 것은 참으로 다행스런 일이다.

특히 재단에서 추진하는 Together & Cure 사업과 같이 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이루어지고 있는 의미 있는 사업들의 재원이 정부나 수협의 대규모 예산 투여로 인한 것이 아니라, 매월 급여를 쪼개어 Together 1% 정기기부에 참여한 수협 임직원들과 일반국민들, 그리고 수산단체, 기업체 등의 나눔 문화 참여로 조성된 기부금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더욱 깊은 의의를 가지고 있다.

진심으로 바라건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제 역할을 해나가고 있는 어업인들의 중요성을 사회구성원 모두가 함께 인식하고 그들의 존재가치에 대하여 진심 어린 존경과 감사를 담아 대우해주기를 바란다. 어업인의 목숨을 담보로 생산해내는 수산물에 대한 경제적 가치뿐만 아니라 사회적 가치가 정당하게 평가되어 우리 어업인들이 타 산업부문과 동등한 교육·문화·복지 혜택을 받으며 당당하고 행복하게 영원히 어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



조금이라도 늦었다면

수술조차 할 수 없었을 것이란
집도의 주재우 박사의 말이
잊히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수산지식 나눔 시리즈

우리나라에서 연간 생산되는 정보의 양은 얼마나 될까? 한국EMC의 보고에 따르면, 2007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디지털 정보량은 세계 2위로 4,401 페타바이트(PB), 한반도의 해안 연안선(총 8,593km)을 따라 책으로 100m 폭의 벽을 11m 높이로 쌓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분량이라고 한다.

또한 당시 2011년 전망에서는 2011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 디지털 정보량은 2007년의 6배 이상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었다. 이대로 실현되었다면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디지털 정보량은 해안선을 따라 100m 폭의 벽 70m를 쌓을 정도이다. 이 시간에도 페이스북을 통해 끊임없이 전달되는 지인들의 사소한 일상을 볼라치면 이 어마어마한 생산량이 새삼 놀라울 것도 없다.

그런데 이렇게 넘쳐나는 정보 속에서 수산에 관한 정보는 얼마나 될까? 평생 뒤져도 다 뒤져보기 힘들 만큼 많은 디지털 정보는 그만 차치하고, 국내 출판물만을 놓고 보자. 대한출판협회에서 집계한 2011년 1월부터 11월까지 우리나라에서 초판 발행된 서적은 총 4만 8,827종이고, 이중 수산관련 서적은 13종(0.07%)에 불과하다고 한다. 우리나라 수산업이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18%임을 감안

하더라도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최근 수협중앙회가 수산 도서 출판활동 장려에 직접 발 벗고 나섰다. 지난 2011년 12월 첫 호를 발간한 ‘수산지식 나눔시리즈’가 바로 그것이다.

‘수산지식 나눔시리즈’라는 사업명을 잘 들여다 보면 크게 세 가지 특별한 뜻이 마치 퍼즐처럼 엮여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첫 번째 퍼즐은 ‘수산지식’의 발굴이다. 수산지식 나눔시리즈는 수산서적 시장의 저수익성과 영세성으로 인해 책 내기를 주저하는 수산 전문가들로부터 원고를 모집하고 출판을 지원해 줌으로써 사장될 위기의 수산 지식에 생명을 불어넣는다는 취지에서 기획되었다.

두 번째 퍼즐은 ‘지식 나눔’이다. 수협중앙회는 수산 전문가들이 보유한 지식과 정보를 책으로 발간하여 일반 대중에게 보급함으로써 수산업에 대한 중요성을 알리고자 하였다. 이는 곧 수산에 관한 ‘지식 나눔’이 수산업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관심으로 이어진다는 데 진정한 의미를 둔 것이다.

마지막 세 번째 퍼즐은 ‘나눔시리즈’이다. ‘연속, 연속간행물’을 뜻하는 ‘시리즈(series)’란 단어를 사업명에 포함한 것은, 우선 이러한 출판장려사업을 단발성이 아닌 지속적인 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일차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그러나 보다 더 큰 의미는 이 사업을 통한 ‘나눔의 연속’이다. 전문가로부터 독자에게 지식이 나눠지고, 독자로부터 ‘소비자 기부’를 통해 도서 판매수익금 전액이 ‘어업인교육문화복지재단’에 기부되고, 재단으로부터 어촌과 어업인에게 사랑이 나눠지는 나눔의 이어짐, 말 그대로 ‘나눔시리즈’가 이 사업의 핵심 구조인 것이다.

이처럼 따뜻한 의미를 담고 있는 ‘수산지식 나눔시리즈’가 탄생하기까지는 생각보다 많은 준비가 필요했다. 2010년 사업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2011년 수협중앙회



조선시대 말 일본의 어업 침탈사

수산경제연구원의 신규사업으로 확정하였다. 2011년 초부터 수산관련 기관 및 학교, 단체 등에 사업의 취지를 알리고 원고 모집을 홍보하였다. 수산인 협동조직에서 출판사업을 한다니 처음에는 모두들 의아하다는 반응이었다. 그러나 곧 사업의 취지와 ‘지식 나눔’의 뜻에 공감하고 많은 격려를 해 주었기 때문에 사업 홍보와 원고 모집은 희망적인 듯 보였다.

그러나 아직 해결할 문제는 쌓여 있었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판매용 또는 일반 유통용으로 도서를 발행한 경험이 없는 수협중앙회가 시중에 유통될 수 있는 도서를 출판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절차가 필요했다.

수협법상 도서출판업을 할 수 있느냐는 문제부터 검토해야 했다. 우여곡절 끝에 시중 출판사 중 해양·수산 도서를 출판한 경험이 많은 출판사를 찾아 ‘수산경제연구원BOOKS’로 임프린트 출판 계약을 맺기로 했다. 출판 업무는 출판사가 대행하지만 도서의 표지에는 ‘수산경제연구원BOOKS’라고 표기함으로써 수협중앙회의 발행물임을 분명히 밝히고자 한 것이다.

원고 선정도 소홀히 할 수 없는 문제였다. 좋은 취지에서 출발하는 사업인 만큼 특별히 의미 있는 원고를 제1호로 채택하고자 했다. 그러나 마침 부경대학교 장수호 명예교수로부터 『조선시대말 일본의 어업 침탈사』를 접수받게 되었다.

장수호 교수는 우리나라 수산학계 최고의 원로로서 수산업계 인사들이 대부분 장교수의 제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게다가 『조선시대말 일본의 어업 침탈사』는 국내에서는 구할 수 없는 귀한 자료들을 장교수가 직접 일본 각지를 다니면서 수집하여 정리한 것으로, 수산서로서뿐만 아니라 역사서로서도 상당히 가치가 있는 도서이다. ‘제1호’로 선정하여 출판하는 데 망설일 이유가 없었다. 수협중앙회는 저자에게 원고료를 지급하고 출판에 관한 권리를 인도받았다. 판매수익을 ‘어업인교육문화복지재단’으로 기부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였다.

2011년 12월 드디어 ‘수산지식 나눔시리즈’ 제1호가 발간되었다. 12월 21일에는 ‘수산지식 나눔시리즈’의 취지를 널리 알리고 제1호의 발간을 기념하고자 출판

기념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출판기념회에는 부경대학교 총장을 비롯하여 학계, 정부, 수산단체 등 약 200명의 인사가 참석하였다.

수협중앙회 이종구 회장은 “알면 참으로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면 참으로 보게 된다”는 조선 정조대 문장가 유한준의 말을 인용하여 “일반 대중이 수산을 사랑하고, 나아가 수산의 원대한 비전을 올바로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수산을 알리는 데 앞장서겠다”는 사명의 메시지를 전달하였다.

부경대 박맹언 총장은 추천사를 통해 “장수호 교수만큼 우리나라 수산의 역사를 잘 아는 이는 없다”면서 장교수에 대한 존경을 표하였으며, 농림수산식품부 오정규 차관은 『조선시대말 일본의 어업 침탈사』는 우리 기억에서 영원히 사라질 위기에 처한 조선시대말 수산업사를 재정리한 귀중한 책으로, 현대 수산업 발전을 이해하는 주춧돌이 될 것”이라고 적극 추천하였다. 한편 60~70대의 머리가 희끗하게 센 어르신들이 장수호 교수의 제자라면서 40여년 전 스승을 뵈러 온 모습은 짹이나 인상적이었다. 50대의 저자 아들이 80이 넘은 아버지의 출판기념회를 바라보며 느낀 소감을 발표하는 순간도 참으로 감동적이었다.

장교수는 “내 생에 가장 오랜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온 『조선시대말 일본의 어업 침탈사』를 좋은 취지의 ‘수산지식 나눔시리즈’로 출판하고 기념회까지 개최해 준 수협중앙회에 감사하다”면서 자신의 원고료 1,000만 원 전액을 ‘어업인교육문화복지재단’에 기부하여 더 큰 감동을 안겨주었다.

2011년 ‘수산지식 나눔시리즈’ 제1호 『조선시대말 일본의 어업 침탈사』를 통해 얻은 판매수익금은 2,834만 5,000원(2011년 12월말 기준)으로, 저자 원고료를 포함하면 총 3,834만 5,000원이 ‘어업인교육문화복지재단’에 기부되었다.

‘수산지식 나눔시리즈’를 통한 또 다른 보람은 서점에서 찾을 수 있다. 우리나라 대표 서점인 교보문고에 가면 ‘수산경제연구원BOOKS’가 새겨진 수산서적이 책장 한편에 꽂혀 있다. 이로써 수협중앙회는 그 동안 거친 바다와 고된 노동의 이미지로 인해 가려져 있던 지성적인 면모를 공개함으로써 자긍심을 드높였다.



수산박물관은 꼭 필요하다

전 세계 수많은 나라에서는 국내 식량자원 확보와 국가 산업의 발전에 있어 바다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자국민들의 관심을 이끌어 내려고 노력 중에 있는데, 그러한 노력의 일환이 바로 해양·수산박물관을 건립하는 것이다.

박물관은 인간이 살아온 역사와 문화의 유형·무형의 자산들을 수집·보존·전시하는 곳일 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을 위한 평생교육의 장이자, 학생들의 학교 밖 현장 교육의 장이다. 특히 자연사박물관은 각 나라 또는 지역의 특수한 환경과 생태, 그리고 인류의 생활과 변천에 대한 자료를 수집·보전한다. 또한, 소장물의 전시는 물론 이와 관련된 다양한 학습을 통해 관람객들의 자연과 인간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우리 주변의 생물, 생태, 환경에 대한 관심을 갖고 통합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최근 대도시 학생들의 새로운 현장체험 학습장으로 각광받고 있다.

이외에도 박물관이 국제적인 문화 교류를 선도하는 등 그 활동 폭이 더욱 넓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해양·수산 박물관이 우리나라의 수도이자 전체 인구의 5분의 1이 정착하고 있는 서울에 지어진다면 그것이 가져올 해양·수산과 관련된

문화적·교육적 효과는 매우 클 것이다.

그간 우리나라는 1981년 국립해양유물관, 1996년 기장 수산박물관, 2002년 서천 해양박물관과 해남 땅끝 해양자연박물관을 설립하는 등 해양·수산박물관을 건립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전 세계에 있는 해양·수산박물관들 대부분이 그러하듯 우리나라에 있는 해양·수산박물관에도 해양에 관한 자연사, 민속학 등의 자료 전시에 그치고 있을 뿐 수산업에 대해 다루고 있는 곳은 없다. 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들이 쉽게 찾아갈 수 없는 곳에 위치한 까닭에 실제 박물관을 찾고 이용하는 관람객 수는 극히 적은 형편이다.

수산업과 비슷한 1차 산업인 농업은 농협중앙회가 운영하는 농업박물관이 서울 도심에 있고, 산림청에서 운영하는 산림박물관 역시 수도권인 경기도 광주소재 광릉수목원에 위치한 것과 비교하면 더욱 아쉬움이 크다.

그나마 일반인들에게 가장 널리 알려진 부산 기장의 수산박물관의 경우, 선박 수산생물관, 어업기술실, 중양식실, 수산물 이용기공실 등 수산업에 대해서도 다양한 카테고리를 전시하는 등 해양·수산업 모두에 대해 폭넓게 다루어 보고자 노력한 흔적이 보인다. 그러나 너무 많은 내용을 광범위하게 다루려고 했기 때문인지 각 부분이 매우 간략하게 소개만 되어 있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수산업의 발달 모습이나, 수산업의 중요성에 대해 알려주는 자료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물론 우리나라가 환태평양 국가들 사이에서 중심국가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태평양의 생태와 다양한 생물을 다룰 수 있는 해양박물관도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보다 실리적 차원에서 해양 산업의 근간이 되는 ‘수산업’을 독립적으로 다룬 ‘수산박물관’을 건립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일 것이다. 그것은 대내외적인 전시 효과는 물론 항상 일반 대중들에게 수산업의 중요성을 인식시켜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해양박물관에서 관람객들이 실제 접하기 힘든 신기한 해양 생물들을 보고 접할 수 있다고 하면, 수산박물관의 관람객들은 수산업이라는 1차 산업에서 잡고 기르고 가공하는 어패류와 해조류 등 실제 식탁에 오르는 수산물을 보고 접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수산박물관들은 해양·수산박물관의 일부로 해양박물관과 함께 취급되면서, 현재 해양·수산박물관들은 수산박물관 본래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앞으로 ‘관람객들에게 해양 생태와 자연환경의 경이로움을 인식시키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했던 해양박물관과는 달리 독립하여 ‘관람객들에게 수산업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수산물을 보존하고 수산업을 발전시켜야 함을 인식시키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순수 ‘수산박물관’을 건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다.

수협중앙회가 가진 대외신인도 및 브랜드와 서울이라는 대도시의 이점을 최대한 이용하여 수협중앙회의 주된 사무소가 소재하는 곳에 수산박물관을 건립한다면 도시의 일반시민들과 자라나는 어린이, 학생 등에게 수산업을 더욱 가까이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면서 자연스럽게 수산업을 홍보하고 교육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전 세계 협동조직 간 인종, 종교 및 국경을 초월하여 상호 유대관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결성된 국제협동조합연맹(ICA) 수산위원회 위원장국인 수협중앙회가 수산박물관을 보유함으로써 각종 정보의 교환 및 인적 교류를 통하여 우리나라 수산업의 현황과 발전상을 세계 속에 알리고 세계 여러 나라에 상시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국제 문화 교류의 장으로서의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수산박물관은 한국 수산업의 역사 및 전 세계 수산업의 역사를 알리는 수산업 역사관, 한국의 전통 어촌 및 수산물 거래의 생활상, 과거 수산물의 유통 과정을 보여주고, 풍어를 기원하는 기원제를 지내던 모습들을 재현한 수산업 생활관과 과거에서 현재까지 어선·어구·어법의 변화상 등 각종 수산업에 동원되는 수산

기자재를 전시할 수산기자재관, 그리고 미래의 어업을 보여줄 미래수산관, 수협의 발전사를 보여줄 수협역사관, 어업인과 애환을 같이 해오고 어업인의 생활터 전인 독도를 알리는 독도관 등 종적·횡적으로 한국 수산업의 역사와 발전상을 입체감 있게 보여줌으로써 한국 수산업에 관한 산 교육장이 될 요소들을 갖추게 될 것이다.

또한 그 동안 해양박물관이나 민속박물관에서 따로따로 부분적으로 다루어졌던 수산업과 관련된 제반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다루게 될 것이며, 현재 해양 자원과 어업관련 협정이 중요해지는 점을 감안하여 관련 특별 전시실이나 홍보활동을 펼친다면 일반 국민들에게 일시적인 감정대응이 아니라, 보다 깊이 수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수산업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 동아시아 및 전 세계 나라들과 국제 학술·문화 교류를 통하여 한국의 수산업 발달 상황을 홍보하고 더 폭 넓은 국제 교류의 장으로 사용될 것이다.

그러므로 일반 국민들, 특히 미래 사회의 주역인 어린 학생들에게 수산업에 대한 현장체험 학습의 장이자, 한국 수산업과 수협의 위치, 한국에서의 수산업의 중요성 및 한국 수산업의 역사들을 대내외로 알리고, 발전적인 수산업을 이끄는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는 수협 수산박물관의 건립은 한시라도 지체할 수 없는 당면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수산박물관의 건립은 비단 수협중앙회 차원의 문제만은 아닐 것이다. 국민에게 수산업의 중요성을 알리고 어업인의 삶의 터전이자 미래 자원의 보고인 바다를 지키고 가꾸는 일에 국민적 공감대를 이끌어내는 부분은 정부의 관심과 지원 역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누군가 보존하지 않으면 결국은 사라진다.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에서 수산업의 역사를 보전하는 일은 누가 보아도 당연한 일이며 관련 자료와 유물의 체계적인 보존과 관리는 100년 후 우리 후손들의 알 권리의 일이다.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역사적 사명이다.



입선_다대포 연가(김영태)

넓은 세상을 거침없이 유영하던
기억이 흐르고 흘러 마침내 가닿은

바다, 길은 다시 시작되고
그 너머에 있을
가장 아름다운 날들을 꿈꾸며

푸른 지느러미 한껏 펼치다





발행인 수협중앙회장 이종구

편집인 『수협 50년사』 편집위원장 정만화

발행처 수협중앙회

서울시 송파구 오금로 62
02-2240-2114 | www.suhyup.co.kr

발행일 2012년 4월 1일

기획편집 『수협 50년사』 편집위원회, 김기훈
함정임, 김득순, 최윤혁

집필 김기태, 김득순, 김상곤, 김준, 남종영, 성세정, 송경원, 옹윤례,
윤명철, 이광수, 이두석, 이영미, 이정운, 이준희, 정민민, 정일근,
정정길, 천금성, 최정운, 한창훈, 홍신선, 『수협 50년사』 편집위원회

감수 최정운

기획제작 (주)다니기획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 415 3층
02-545-0623 | www.dani.co.kr

교정교열 신현경, 고건

A D 김경수

디자인 김선희, 손향미

인쇄 (주)대원문화사

Copyright © National Federation of Fisheries Cooperatives. All rights reserved.

이 책은 수협중앙회가 창립 50주년을 기념하여 바다, 수산, 수협을 테마로 한 다양한 이야기를
공유하기 위해 발행하였습니다. 이 책에 수록된 내용을 이용할 시에는 본회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ISBN 978-89-97110-20-9